

김영철 열사 유고모음

못 다 이룬 공동체의 꿈

목 차

발간사 - 518기념재단 이사장

헌사 - 김상운

임낙평

헌시 - 문병란

사진화보

1. 못 다 이룬 공동체의 꿈 -----전용호
2. 유고 - 자서전
3. 일기 - 승주군 별량면 공무원이 되어

4. 편지 - 사랑하는 아내에게

5. 부록

감사 인사 - 가족

후기

<헌사> **김영철,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임 낙 평

광주, 5.18로부터 35년이 흘렀다. 5.18과 관련해 고난과 시련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김영철 열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5.18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27일 새벽, 도청에서 동료들과 끝까지 저항하다가 체포되고, 군부대 상무대 영창을 거쳐 광주교도소에서 ‘폭도의 지도자’로서 재판을 받고 2년여의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풀려나긴 했으나 그의 정신과 육체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수감 중 신군부의 악랄한 고문을 못 이겨 치명적인 정신질환을 얻었기 때문이다.

석방이후 몇 년 동안 가정에서 치료의 시간을 가졌으나, 1998년 삶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대부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 그 사이 부인과 1남 2녀의 가족이 겪은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김영철 열사의 ‘역사와 인간에 대한 열정’과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아쉽게도 5.18항쟁 마지막 날까지였다. 이후 18년은 그에게 ‘기나긴 죽음의 시간’이었다. 항쟁현장에서 두 살 연하의 윤상원의

죽음을 목도하고, 체포직후 의형제 박용준의 비보와 광주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보며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저항의 수단으로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김영철 열사가 왜 5.18항쟁에 참여했는가? 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광주를 사수하기 위해 도청에 들어가 총을 들었는가? 그는 당시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부인과 1남 2녀의 가장이었다. 더불어 그는 평범한 시민들처럼 날마다 출퇴근하는 일욕심이 많은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이었고, 광천동 시민아파트의 공동체운동의 지도자였다.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가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왜 분연히 항쟁의 현장에 과감히 떨쳐나섰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는가. 아마도 이 책은 사람들에게 그가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청 투사들도 그런 유사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내가 김영철 열사를 처음 대한 것은 1978년 여름, 몇 동료들과 들불야학의 창설을 준비하던 대학 초년생이었을 때였다. 우리가 들불야학의 학당(교실)으로 광천동 천주교회 교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무렵, 천주교회의 정문 곁에 있는 광천시민아파트에서 주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분을 소개받았다. 소개한 분은 당시 녹두서점 김상운 선배였고 그가 소개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 열사로, 고교동창이라고 했다. 가난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광천동의 비좁은 시민아파트! 거기서 우리는 첫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그가 구상하고 있던 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종합계획’을 들었고, 그의 계획에는 야학도 있었다. 아파트와 그 주변에 가정살림이 어려워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들불야학 설립이 그의 야학구상과 일치했다. 아울러 주민경제공동체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신협 설립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구상은 야심찬 내용이었고, 설명도 명쾌하고 단호했다. 그는 동조하는 우리를 보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우리를 반겼고 환호했다. 광천동 들불야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해 가을 윤상원 열사가 들불야학에 합류, 시민아파트에 기거를 시작하고, 들불야학 2기 모집과 함께 아파트교실이 개설되고, 다음 해에 박관현 열사를 비롯해 들불의 식구들이 늘어났다. 그의 비좁은 두 칸짜리 아파트 살림집, 의형제하는

고아출신 박용준 열사와도 함께 사는 이곳은 한때 들불야학 사람들의 베이스캠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를 비롯 박용준 윤상원 박관현 등 들불의 성원들이 그의 집에서 한술밥을 먹고, 저녁 시간 흥이 날 때면 막걸리 파티도 자주 있었다. 그는 들불의 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형제처럼 대했다. 김영철 형의 인간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그는 명경수처럼 맑고 깨끗하면서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자신보다 우리, 나아가 이웃, 더 나아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공동체의 이익과 미래를 우선하는 개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힘보다 공동체의 힘을 믿었다. 그는 봉사과 헌신성이 남다른 사람이었다. 대학마저 진학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었으나, 오히려 가난한 이웃과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그의 삶을 던졌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인이자 고아원 등에서 헌신했던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원인을 알고 있었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꿈꾸고 계획하고 진행시켜 가고 있던 ‘서민아파트 공동체운동’은 예수의 사랑과 정의를 지상에 구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다.

이 책은 5.18항쟁이 있기 이전까지 그가 직접 기록했던 일기며, 그가 심혈을 기울여 해왔던 일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석방이후 아직 정신이 살아있던 때 기록했던 자신의 삶의 역정, 정신병동에서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 이 책은 소설가 전용호 선생이 그 삶의 궤적을 더듬어 정리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전용호 선생은 들불야학 시절과 5.18항쟁을 김영철 열사와 함께 하며 그가 했던 일들을 직접 보았고, 그와 어울리며 그가 했던 말과 그가 좋아했던 노래와 스타일까지 기억하고 있는 형제 같은 사이이다.

늦게나마 5월항쟁 지도자의 한 사람, 김영철 열사의 삶과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나오게 되어 반갑고 다행스럽다. 그와 고락을 함께했던 윤상원 박관현 박용준 신영일 등 많은 5월 열사들도 반길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5월항쟁, 항쟁을 전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김영철 열사는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다.

이 책을 엮는데 수고해 주신 소설가 전용호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의 박수를 보낸다.

2015년 12월, 임낙평 씀

김영철 열사 약전

못 다 이룬 공동체의 꿈

1. 출생과 성장

역사의 격변기에 태어나 성장하고

1948년 음력 7월 14일 김영철 열사는 전남 순천시 금곡동 76번지에서 아버지 김경목, 어머니 백은혜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 또한 활달하고 박력 있는 사람, 지식과 덕성과 건강한 육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가 3살이 되던 해인 1950년에 동생이 태어났다. 부모님은 큰 아들을 인철, 둘째는 영철, 막내 동생은 중철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열사의 아버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막내인 김종철이 1950년에 태어났고 목포모자원으로 옮긴 해가 1953년이므로 그 사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것 같다. 김영철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 속에 남아있는 사진 속의 영상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 열사의 아버지께서는 사람은 호연지기의 기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술 담배를 즐겨하셨다. 아버지의 애주, 애연 때문에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다투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지게를 메고 나무를 한 짐 해서 앞마당에 던져놓았는데 어린 김영철은 옆에서 빨간 멧감을 많

이 따먹었다. 그런 장면들만이 아버지에 대해 남아있는 기억이다. 그 어느 순간엔가 아버지는 가족에게서 사라졌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단독정부 수립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여수, 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지역을 점령한 소위 '여순사건'이 일어났다. 김영철 열사가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50년, 동생 종철이가 태어났고 그 해에 6.25전쟁이 발발했다. 여순사건과 6.25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김영철 형제는 태어났다.

한국전쟁의 포화로 국민들의 생활은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 각지에 부모 잃은 고아가 득실거리고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 국민들 모두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다. 남자들은 군인으로 전장에 끌려가 죽었다.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정이 늘어나자 일종의 고아원인 난민구호소라고 할 있는 모자원과 고아원이 전국 각지에 많이 세워졌다.

영철이 여섯 살이 되던 해인 1953년, 어머니는 아들 셋을 데리고 <목포 모자원>으로 옮겼다. 여섯 살 어린이 김영철은 당시 <목포 모자원> 시절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의 잔재 쓰레기더미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가 지금도 생생하다. 어머니께서는 그의 손목을 잡고 미국인 선교사가 트럼본을 불며 선교하시는 공터로 데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거지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여주셨다. 식사시간에는 꼭 어머니께서 앞에 나가서 감사기도를 유창하게 하셨다. 외국인 선교사에게 배웠던 한·영·중·일어 4개 국어로 ‘그는 기뻐요’를 원아에게 가르쳐주시고 여러 가지 유희와 노래를 가르쳐주셨다.”

1955년 3월,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목포 중앙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어머니께서 손수 재봉틀로 형질을 바느질하여 만들어주신 가방을 메고 다녔다.

고아들과 형제처럼 함께 살다

1955년 6월, 어머니는 목포에서 다시 광주의 <인성모자원>으로 옮겨왔다. 그가 목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석 달 쯤 되던 시기였다. <인성모자원>은 당

시 광주의 중심지인 시청 근처, 지금은 젊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유흥가로 변신한 ‘구시청’과 ‘사직공원’ 사이의 불로동 113번지에 있었다. <인성모자원>은 이듬해인 1956년 10월 학동으로 옮겨서 영·유아 고아원인 <영신영아원(약칭, 영신원)>으로 개편되었다.

열사는 어머니와 함께 <인성모자원>에 살면서 광주서석국민학교에 다녔다. 그의 가족이 광주로 옮겨진 것은 어머니가 <인성모자원>에 간호사나 보모와 같은 직원으로 취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사는 어머니께서 <영신원>에 계실 때 무더운 여름날에 어린 아이가 병이 들어 울면 아이를 안고 날이 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다가 아침이 되면 애를 안고 병원에 데리고 가며 극진히 보살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인성모자원>, 나중에 <영신원>으로 이름이 바뀐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은 서경자 였다. 김영철은 어릴 때부터 <영신원>에서 서경자 원장을 ‘이모’라 부르며 자랐다. 서경자 원장은 지역의 사회복지활동과 협동조합운동에 앞장서서 나중에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전남협동개발단 부단장을 맡는다. 열사가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하고 전남협동개발단 간사가 되어 광천동시민아파트 지역개발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도 모두 서경자 원장이 추천하고 지원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영철과 서경자 원장은 그 때 이미 인연이 맺어졌다. 열사 가족은 한동안 영신원에서 살았다. 열사는 그곳에서 고아들과 형제처럼 동고동락하며 살았다.

그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났다. 당시에 3.15부정선거로 전국이 술렁거렸다. 그는 시위 군중을 따라다녔으며 그 기억은 어린 그에게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를 열사는 이렇게 기억한다.

“내가 다니는 광주서석초등학교 옆의 광주공고와 앞의 광주여자고등학교가 술렁거렸다. 친구 이준성과 1학년 때부터 달나라 별나라 ‘진또리’ 놀이하던 사직공원에 가보았다. 많은 시민들과 고교, 대학생들이 이승만대통령의 독재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우리보고 연단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했다. 이승만대통령보다 밀의 아부하는 여당 측과 정치 깡패들의 소행이라고 하며 부산 임시수도 당시의 사사오입 선거와 부정선거 등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며칠 후 전국적인 4.19의거가 발발하였다. 담임선생님께서 집에서만 있으라며 모든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키셨다. 나는 친구 이준성과 같이 전라남도청 앞으로 가 시위대의 뒤에 따라 다니며 구경했다. 한 대학생이 도청 입구 옥상에 올라가 ‘전라남도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죄하고 물러가라’고 외쳐댔다. 금남로 1가 도로에서 광주경찰서를 향하여 시위대들이 돌을 던지곤 했다. 갑자기 소방차가 밀어닥치더니만 물을 뿌어대었고 광주공고생 수 명이 금남로 우측 도로로 들어가 소방차를 빼앗아 역공하였다.”

1961년 열사는 서석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광주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광주서중학교는 호남 최고의 명문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열사는 안정된 가정이 아닌 고아원과도 같은 <영신원>에서 살면서도 높은 경쟁률이 걸린 입학시험을 치러 당당히 서중에 합격했다. 그는 서중 3년을 마치고 광주제일고에 진학하였다.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 대부분 서울의 명문대학이나 국립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열사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당초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당시 김영철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은 무척 어려웠다. 아들 3명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수입이라곤 어머니가 영신원에서 받는 급여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급여로는 3명 자식들의 의식주 비용에 교육비까지 충당하기에는 어렵도 없었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을 하여 돈을 벌어야 했다. 동생 종철이도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였다. 형도 대학을 포기하고 학군간부후보생이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였다.

그는 운동을 좋아하여 학교 수업과목인 유도와 태권도도 열심히 배우고 방과 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야구와 축구도 즐겨 했다. 펜싱도 배웠다. 펜싱은 고교 2학년 때 보았던 '달타냥과 삼총사' 영화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게다가 전남여고 강당의 펜싱경기장에서 예쁜 여고생이 새하얀 펜싱 도복을 입고 경기하는 것을 보고 펜싱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 그는 어머니께 펜싱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펜싱은 서양 무술이어서 전쟁 놀음이긴 하지만 멋진 운동경기이니 해보라며 5,000원을 주셨다. 그 돈으로 경기용 프리레 펜싱 칼과 운동화를 사고 충장으로 입구 의상실에서 도복을 맞춘 후 금성여객 옆 태권도장을 겸한 펜싱도장(광주천 광주체육관)에 등록하여 프리레, 에페, 사브르를 수련했다.

1966년, 열사는 광주일고 3학년이 되자 대학진학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입학금과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광주일고 학생들은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서 정치학이나 철학, 의학 등을 전공해서 정치가, 학자, 의사가 되어 사회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었다. 김영철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동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곤궁한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광주일고 3학년 여름방학에 다른 학우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그는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을 했다. 당시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의 서글픈 심사가 담긴 글이 남아 있다.

“3학년 1반 복도에서 생각에 잠겨있을 때 멀리서 기적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아, 이제 나의 학창시절도 끝장이구나. 언제 생활난이 풀려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와 행정대학원에 진학하여 철학박사 정치학 박사가 되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어 또 종교계에서 들은 정치적 예수가 되어 남북한 평화통일을 이루고 남이장군의 수신제가 치국평천 하하여 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을는지...”

그는 영화도 즐겼다. 입장권을 구하기 위하여 닭을 기르고, 달걀을 팔거나 건축현장에서 일해서 번 돈을 모아 동생 종철이와 광주 제일극장에서 상영하는 외국 영화는 거의 빠짐없이 보았다. 당시 그가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스파르타쿠스’와 ‘벤허’ 였다.

1967년 3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2동에서 방림동으로 이사하였다. 어머니께서 몸이 허약해져서 영신원 근무를 그만두고 방림동에 조그마한 야채 가게를 열었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새벽 4시에 양동 채소류 공판장에 나가 무, 배추를 사서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그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 주택가에서 소매로 팔았다. 그러나 가게 운영은 적자였다. 그는 동생 종철이와 함께 조선대학교와 부속고등학교와 부속병원의 건축공사장에서 노동을 하였다. 조선대 본관 공사 현장에서 그는 모래등짐을 지고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내려올 때는 다리가 풀리곤 했다.

채소 상점이 실패하자 가게를 정리하고 조선대학교 앞 서석동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조선대 부속 여중·고 건물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계속하였고 어머니께서도 공사현장에서 벽돌 깨는 작업을 하여 생활을 겨우 영위해나갔다. 인철 형님은 소위로 임관하여 상무대 교관이 되어 강의 준비를 위해 밤새워 공부를 하였다. 그즈음 조선대 앞의 민가를 조선대에서 매입한다고 하자 주민들은 반대를 했으나 민가 옆에 쓰레기 더미를 싸고 부속고등학생들이 민가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을 강제로 헐다가 떨어져 한 학생이 죽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2. 세상을 배우다

승주군 별량면 사무소 공무원이 되어

그는 5급 행정 공무원 시험공부를 시작한 후 1년 후인 1968년 국가 5급 행정직과 지방 5급 행정직 시험에 둘 다 합격했다. 그러나 국가직은 면접 때 군대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합격하고 지방직만 합격하였다. 그는 합격한 후에도 가게에 보탬을 주기 위해 발령이 날 때까지 건축현장에 일하러 다녔다. 어떤 날은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완도의 해태(김) 화입(김의 숙성과 건조, 검수 과정 등을 마치면 불로 굽는 공정)공장 건설 현장까지도 갔다. 완도에서는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의 아들 완도수산고 학생 박학모를 만나 친구가 되어 그 집에서 숙식하기도 했다.

1968년 11월, 광주의 어머니로부터 승주군으로 발령났다는 전화가 왔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출근 준비를 하였다. 발령지는 승주군 별량면사무소였다. 어머니는 군청이 아니라 면사무소라서 더 고생하겠다면서 섭섭해 하셨다. 그는 맨 밑바닥 기초행정부터 배우는 게 훨씬 낫다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렸다.

출근하는 날, 별량면사무소에 가서 산업계의 수도작(미곡), 잠업 등의 업무를 배정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숙소를 별량면 장터에 있는 하숙집으로 정하고 숙식을 했다. 나중에는 광주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한 푼이라도 더 보내드리기 위해 면사무소 숙직실로 옮겨 두 사람의 급사와 함께 자취생활을 하였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인 김영철은 승주의 젊은 남녀 청년들을 만나면 잘 어울렸다. 그가 담당한 지역에 출장 나가 자신의 또래 남녀 청년들과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과 소주를 마시며 유행가를 같이 불렀다. 그들에게 'All for the love of the girl'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Un kiss me guide'를 가르치며 같이 놀았다. 그러자 나중에 그의 숙소로 마을 처녀들의 편지가 날아들기도 했다.

농협의 부정과 무능한 공무원에 실망하고

그가 기초행정 연수 수료 때 해프닝이 일어났다. 분명히 성적이 가장 우수한 연수생이 따로 있었는데 전라남도청 직원이 수석을 했다. 그러자 연수생인 한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였다. “권력 배경이 없는 행정고시 합격자는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오지로 발령이 나고 돈푼이나 쥐어주고 권력 배경 있는 연수생에게 수석이 간다.”

수료 후 돌아와 근무하는데 추곡수매가 있었다. 농민들이 수매가가 너무 낮고 등급을 농협에서 잘 주지 않는다고 수매를 꺼려했다. 농민들을 수매에 참여시키기 위해 상부의 지시로 면 직원에게 돈을 몇 십 만원 주어 수매하게 했다. 별량면 농협 직원들이 먼저 중량을 재고 등급을 매기는데 면사무소의 상부 직원의 지시대로 등급을 매겼다. 그리하여 그는 3만여 원의 억지 손해를 보았다. 담당하는 마을 별로 성적이 나쁘면 인사 조치한다는 강력한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미리 준 돈으로 면 직원들이 사전 수매한 것이다.

농협의 부정은 더 심했다. 농협 직원들은 부정하게 빼돌린 돈으로 수당을 많이 받아 통통하게 살이 찼다. 반면 면장, 부면장을 제외한 면 직원들은 뺨뺨 말랐다. 그런데 유독 창고를 맡은 직원은 횡령을 하여 통통하게 살이 찼다.

그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 저수지를 쌓기 위하여 정부가 땅을 수용하자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시위를 일으켰다. 면장을 지낸 사람과 그 동네의 주민들이 저수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그 마을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되었다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어린이까지 포함한 전체 주민들이 ‘노령의 큰 산줄기 타고 내려라’ 라는 ‘전남의 노래’를 부르며 별량면사무소 건물 주위를 돌며 횃불을 들고 시위하였다. 그 후 보상 상황은 그가 군대 입대하느라고 알지 못했다. 그는 1년 3개월의 짧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운 형편과 주민들 민원을 접하였지만 말단 공무원 입장에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할 수 없었던 무력감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다.

열사가 이 기간에 쓴 일기가 남아 있다. 당시 공무원의 급여는 박봉이었던 듯 싶다. 월급날이 되면 그동안 먹었던 식비와 외상값과 누군가에게 빌려 쓴 돈을 갚고 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 돈을 쪼개어 광주의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냈다. 일기에 박봉을 이리저리 쪼개어 쓰느라 수고하는 모습이 선명하다.

“2월 13일 목

비가 끈질기게 내린다.

5,000을 받다. 기분은 좋지 않다.
오히려 돈 걱정 뿐이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누구든지 만나면 못살게 굴고 싶다.
학모로부터 안부편지 받다.”

“6월 6일 금
교육비 12,000 정도는 나온다고. 다행이다.
책값 2,000, 최 2,500, 정 3,000, 별량 1,000, 이 500 정도 갚으려면 9,000은 줄잡아
있어야 하니까.
다 들추어내어 갈 채비를 하다 동복 호주머니에서 100이 나와 흐뭇하다.
총무계장에게 5,000 정도 가불받아야 할 텐데 얼마나 힘써줄는지 모르겠다.”

“6월 15일 일
‘공무원 월급 30% 인상 7월부터’란 기사가 눈을 끈다.
12,520이 되겠으니 10,000 정도는 손에 쥐어질까?
12,000 정도의 갚을 것이 있으니 야단이다.
다음 달 부터나 5,000씩 부쳐줄 수밖에 없다.”

그 즈음 일기에 두 가지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절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친구는 별량면사무소 근무하기 전 완도의 해태(김) 화입공장을 짓는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서 만났던 사람으로,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의 아들인 박학모였다. 열사는 승주 별량면사무소에 근무할 때도 박학모를 그리워한다. 심지어는 “어찌된 인연인지 이렇게 성격과 취미 등 모든 게 부합된 친구를 내려주셨는지. 새삼 하나님께 감사를 앎을 수 없다.” 고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열사와 친구는 며칠 간격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한 달에 두세번씩 서로 만나 우정을 나누었다.

또 하나는 당시 승주에서 즐겼던 취미가 공기총 사냥이었다. 친구인 박학모와 함께 사냥을 다니기도 했다. 사냥이 언급된 일기의 대목들이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총을 메고 갔으나 통 쏘아보지 못하다.
기어이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가려던 참에 모(模, 김학모)가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
두 마리 기분 좋게 떨어뜨리고 밥을 들다.
깍두기 김치에 보리밥. 이렇게 달 수가 없다. 고구마도 캐 먹고.
비를 맞으며 정글 같은 곳을 쏘다니다.

비둘기 같은 건 맞아도 꿈쩍 않는다.
겨우 20마리 잡음.”

“11월 25일 월
어둑할 때 일어나 총을 들고 뒷산으로.
허탕.
청 앞 나무에서 부엉새 2마리 잡다.”

“11월 27일 수
쫓아 다녔으나 허탕치고 돌아올 때 대나무에 있는 딱따구리를 단방에 떨어뜨린다.”

“11월 28일 목
출장 겸 총을 메고 장산에서 까치 4마리와 딱따구리 1마리 잡다.”

“29일,
잘 요리해 송(宋)양과 같이 먹다.”

“12월 2일 화
구룡 공판 대비 대룡을 수중 씨(氏)와 담당했으나 여의치 못해 그냥 송기 구장 덕(宅)
서 자다.
공기총을 메고 돌아다녔으나 허탕.
비둘기 한 마리가 대나무에 뒹굴어 죽은 줄 알고 흔드니 멀리 날아가버려 서운.”

1969, 12, 20일 열사는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퇴직을 신청하였다. 그는 1년 3개월 남짓한 별량면사무소 근무시절, 공무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농협의 부정과 비리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일기의 행간에 나타난다. 그는 공무원 생활에 실망하여 교육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틈틈이 입시 공부를 하기도 했다.

1969년 12월 22일, 열사는 머리를 뽀뽀 깎고 퇴직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드리고 빈 털털이로 광주 3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였다. 그는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마치고 몸무게를 재보니 형편없이 빠졌다. 훈련을 마치고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방부 본부 영문 타자병으로 복무하였다.

그는 천성적으로 쾌활한 심성 때문에 군대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을 만들어 팔아 라면에 막걸리 파

티를 열기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던 최무룡의 ‘꿈은 사라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 고향 남쪽바다’ 등 노래를 부르고 랩 댄스를 춰서 내무반원을 즐겁게 했다. 나중에는 부대가 대구로 옮기게 되어 경주 토함산과 불국사를 구경하며 백제의 사적이 남아있는 전라도 지역과 비교하며 한탄하기도 했다. 휴가 때는 관동8경과 단양8경 유람도 하여 경포대의 일출과 신사임당 유적을 보고 단양8경의 도담삼봉을 사진에 담고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고 귀대하였다.

세상의 밑바닥을 헤치며

1972년 11월 30일, 그는 제대하여 어머니와 형님께 인사드리고 이모라고 부르는 <영신원>의 서경자 원장께 인사를 드렸다. 서경자 원장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해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덕담을 해주셨다. <영신원>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어린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왔다. 서경자 원장은 열사의 어머니가 어린 고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지켜보면서 ‘천사’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서경자 원장은 열사가 명문학교인 서중과 제일고에 다닐 때부터 눈여겨보았다.

열사는 제대 후 처음에는 광주 무등산 밑인 산수동 5거리의 광일종합목장 사장님을 뵈고 이력서를 드리고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님은 이력서를 본 후 사무 일을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잡부로 일하겠다고 고집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것은 열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미래에 새울 협동촌의 농·목장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농장 잡부로 지게질도 배우고 사료 분쇄기와 사료 섞는 일을 시작했다. 농장 잡부 일은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지독한 악취를 마시며 퇴비를 걷어내는 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된 중노동이었다. 그는 젊었지만 농장 일에 서툴러 오래 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1973년, 열사는 광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 그동안 <목포 모자원>과 <영신원>에서 함께 살아온 고아 형제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서 세상을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살면서 배워야겠다는 심정이었다. 먼저 한국일보·경향신문 명동보급소에 배달원으로 들어갔다. 신문 배달원을 선택한 것은 잠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총무 하라는 걸 뿌리치고 배달원으로 일했다.

담당구역은 견지동, 인사동, 화신백화점, 옥류장 부근이었다. 신문 배달원을 하면서 보니 거의 모든 신문보급소의 입구에 총무, 배달원 모집(숙식제공)을 붙여놓

고 배달원이나 총무를 모집하여 견습 총무에게 200원의 점심 비용을 주고 확장, 수금, 강투정리(신문을 강제로 넣어 강제로 신문대를 받아내는 수법)를 시켜 혹사시키고 있었다. 신문배달원은 거의 중고교 학생이었다. 그들은 새벽 4시에 나와 신문을 배달하고 오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 하교하면 견습 총무들이 데리고 다니며 신문을 확장하는 등의 일을 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실적이 좋은 총무만 정식총무로 채용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열한 짓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휴일에 고생하는 배달원들을 모아 낙원아파트 지하시장에서 쌀, 고추, 된장, 김치를 사서 팔당담이나 덕소 등으로 야유회를 갔다. 술집에서 술 한말사고 식당에서 2,000원을 맡겨 술단지를 빌려 산골짜기 개울물 옆에서 밥해서 먹이고 또 막걸리도 몽땅 마시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열을 올린다 모두 윗도리를 벗겨 겨울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등물을 시켰다. 그러면 모두 웃다가 올라가 하면서 그동안 쌓인 설움과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사는 소위 명동 깡패 출신이라는 수석총무에게 배달원들에게 정당한 작업과 그에 걸 맞는 보수를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수석총무가 갑자기 그의 목을 두 손으로 조이며 머리로 얼굴을 두 번이나 들이받아 코피가 터져 벽에 핏자국이 낭자하였다. 그는 같이 싸우려다가 중국의 한신 장군을 생각하고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비리를 제거하리라 마음먹고 보급소를 나와 버렸다.

열사는 그 곳에서 마음에 맞는 후배 유재영, 박지영을 사귀었다. 그들과 함께 손수레를 사서 낙원아파트 2층 제일은행 입구에서 청과물 장사와 신문팔이를 겸해서 시작했다. 용산시장 청과물 공판장에서 귤, 사과, 배 등 과일을 떼어다 손수레에 진열해놓고 셋이 교대하면서 팔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일간스포츠 신문을 31빌딩 앞에서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게 팔았다. 파고다(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옛 항일독립투사였었던 노인들이 정치시국을 논의하고 있어 귀담아 들으며 신문을 팔았고 비 오면 신문뭉치를 상점에 맡기고 비닐우산을 개당 50원에 받아 100원에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전화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독서실에서 자면서 손수레 행상을 하는 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아무 것도 남기지 못했다. 3명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헤쳐가야 했다. 군대에 갔던 동생 종철이가 제대를 하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서울로 올라왔다.

1973년, 동생의 나이 26세 때였다. 동생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직장을 알아봤

다. 종로 2가 악기사에 종업원 모집 공고가 붙어있어 같이 들어가 주인과 면담하니 ‘기타를 칠 줄 아느냐?’ 하자 종철이가 능숙한 솜씨로 기타를 쳤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며칠 동안 기다렸으나 이력서가 봉투에 담겨 그대로 반송되어왔다. 전라도 출신이어 거부당한 것이었다.

취직이 되지 않자 종철이가 자기도 신문팔이하겠다고 하여 둘은 함께 신문팔이를 했다. 종로1가 종각다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청계천 6가까지 다방과 남대문,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을 돌아다니며 팔았다. 당시 평화시장은 의류를 직접 만들어 소매를 하는 곳이었는데 주위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둘은 손수레를 한 대 더 사서 청과물 장사도 같이 했다. 동대문시장 앞 시계골목에서 장사를 하는데 경찰들이 거리질서 확립한다고 손수레 장사나 보따리 장사를 못하게 단속하였다. 그런데 유독 시계골목의 시계장사는 단속하지 않았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들은 매달 돈을 모아 파출소에 바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동대문 시장에서는 샌드위치를 굽고 커피를 끓여 새벽부터 팔았다. 이때부터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여 종로구 인사동 독서실 학생을 대상으로 밥집을 하는 집에서 숙식하며 주인 할머니의 권유로 100만원을 모으는 계도 들었다. 그러면서 틈틈이 공부도 했다. 어느 날은 독서실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달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집중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즉시 계단을 내려와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을 마셨다. 허기가 가시고 몸이 뜨거워지며 정신이 맑아져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종로독서실에서 일고 동창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에 다니며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 박서혁을 만났다. 박서혁도 두 동생이 건축용 돌을 캐는 석산에서 중노동하며 형의 학비를 조달해주고 있다며 고생하는 그를 위로하였다.

7년 동안 여동생으로 사귀고

김영철이 아내인 김순자를 처음 만난 것은 열사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1970년 가을이었다. 휴가를 나온 그는 먼저 광주의 어머니와 형님께 인사드리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순천 안록산(제중)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언니라 불려서 그도 이모라 불렀던 순천에 있는 아내의 친 고모 댁에 놀러갔다. 이모님은 “순자야 오빠 왔다. 안방으로 모셔라.”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김순자는 안방에서 쉬고 있는 그를 보고 호감을 느꼈는지 가까이 오더니만 “저 여기 고모님 가게에서 경리를 보고 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일곱 딸 중 맏딸인데요.

오빠도 없고 남자동생도 없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되어주시겠어요?”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깜찍하고 예뻐 보여 “나도 누이동생도 없고 삼형제 뿐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다. 오빠가 돼줄게.” 했더니 그녀는 기뻐하며 “오빠, 무슨 김 씨(金氏)예요?”라고 다시 물었다. 그는 “김영(金寧) 김 씨(金氏)란다.” 하니 “에이, 나와 같이 광산(光山) 김 씨(金氏)면 좋을 건데.”하며 서운해 했다. 그렇게 둘이 오빠 동생으로 의남매를 맺었다. 처음 둘이 만났을 때 그는 23살이었고 김순자는 17살로서 여섯 살 차이가 났다.

그 후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에 있을 때 그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1976년 봄, 그가 그녀와 종로독서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친구 박서혁과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누구냐고 물어 의남매 맺은 누이동생이라고 말했더니 모두 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여동생이 있으면서 결혼하여 맞벌이 하면서 같이 살지 혼자서 그 고생을 하냐고 했다. 그는 너무 어려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해 버렸다.

1975년 어느 날, 그는 ‘내 나이 벌써 29세인데 사회의 밑바닥 생활에 대해 이제 알 만큼 안 것 같은데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 라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다들 권하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니 누이동생 삼아 7년 동안이나 만나왔던 그녀가 생각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녀는 자살해 버릴 것만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도 돌이켜보니 그동안 그녀가 자신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서울에서 외과병원과 기원, 신문사 보급소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가 찾아가면 “오빠 지금 오십니까!” 하고 깽뚝이 존대어를 썼다. 그는 “순자야, 오빠에게 그렇게까지 존댓말을 쓸 필요 없다. ‘오빠 지금 오세요?’ 라고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찾아가 갈 때마다 예쁘게 화장을 해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는 바로 그녀에게 찾아가 “우리 7년간 오빠, 누이동생 했던 것을 연애생활로 간주하고 이제 결혼하자”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크게 둥그렇게 떠서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튿날 그의 속소에 편지가 한 장 날아들었다. 그녀가 보낸 편지로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이루었다는 내용이였다. 다음날 그가 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하고 있노라니 누가 등에서 그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가 뒤돌아보니 그녀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싶어 그녀를 꼭 껴안고 뽀뽀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순자야, 네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으러 가자.” 하고 친구 박서혁의 양복을 빌려 입고 전남 승주군 별량면 무풍리 무선부락으로 같이 내려갔다. 그녀의 부모님을 뵙고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승낙을 해주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같이 한방에서 자라고 하였다. 그는 깜짝 놀라며, “우리 둘 다 숫총각 숫처녀인데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침하다니요?” 하니까, “괜찮다”며 같이 자라고 하여 둘은 방에 들어가 잤다. 그날 밤, 그들은 둘 다 첫 경험을 한 것이다. 그녀가 처녀성을 잃었다고 훌쩍 훌쩍 울자 그는 깜짝 놀라 두 뺨을 가볍게 두들기며 남녀사이의 성교는 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기쁨의 실질적 표현이며 자손을 영원히 이어나갈 거룩한 성교(聖交)라 하며 달랬다.

갑작스러운 결혼

그는 오누이처럼 사귀어 오던 김순자와 순천에서 결혼하였다. 결혼을 계기로 3년여의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승주군 별량면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는 우선 건축 일이나 염전 일을 다니면서 생활을 꾸려갔다. 서울에서 들었던 100만원 짜리 계가 깨져버려 겨우 7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그 돈으로 그녀에게 결혼기념으로 줄 국한문 혼용 성경전서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결혼비용을 썼다. 청첩장도 만들지 않았다. 신협지도자교육 수료식 날인 2월 28일 오후 2시에 새로 크게 지은 순천 세광교회에서 결혼식을 전격적으로 치러버렸다. 당시 아내 김순자는 임신한 상태였다.

그들은 순천만 바다를 끼고 있는 처가 마을 옆 죽전부락에 삶의 터전을 잡았다. 농토가 없었기에 남의 집 농사일도 하고 집짓는 일, 기와 얹는 일, 장인어른과 함

게 염전 일, 고막 치는 일도 하였다. 염전 일을 하다 너무 목이 말라 장인께서 막 걸리 두되를 사오라 해 두 병을 사오다 징검다리에서 발을 헛디더 넘어져 오른쪽 손목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여섯 바늘을 꿰매기도 했다. 그 외에도 보리 베기, 모내기, 탈곡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모아놓은 재산도 하나 없이 덜컥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 더부살이하면서 농사일이나 막일을 해가는 처지는 그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그도 그였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하여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출산을 준비해야 할 아내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한번은 아내가 책상에 앉아 그에게, “못나게도 이런 시골에 나를 데려와 이런 고생을 시켜요!” 하며 대들기도 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서너 번 세차게 때려주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공책에 ‘오빠, 오빠, 오빠’ 하고 세 번 써놓고 훌쩍 훌쩍 울고 있어 전에 다정했던 오빠가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는가 싶어 그는, ‘사랑합니다.’를 세 번 하자며 같이 세 번 ‘사랑합니다.’ 라고 화답을 하여 화해한 적도 있었다.

그는 교인들과 처가댁에서 곡식을 가져다주어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도저히 농토도 없는 상태에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그곳 생활을 청산하고 도로 공사 현장으로 일하러 나갔다. 아내를 추스르고 동생 김종철과 함께 순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로 향했다. 도착한 이튿날부터 도수로공사 전선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공사 감독과 십장보다 수입이 많았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그를 신입하여 야간 경비까지 맡겼다. 그도 한 폰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선뜻 응했다.

1976년 음력 8월 10일,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그는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만 같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궁리하다가 인도 시성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 생각나 김동명(金東明)이라 지었다. 음력 8월 13일 그 동안 일했던 품삯을 받아 쥐고 아내가 있는 무선부락으로 갔다. 버스에 내려 장터에서 만난 장모께서 난산이라며 먼저 가보라 해 무선부락 입구에 들어서니 이웃집 지인이 ‘좋은 일이 있다’고 알려줬다. 방에 들어서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옆에 누고 누워있었다. 그때

아내 얼굴이 그렇게 청순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난산이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진통 끝에 낳았다고 하여 품삯으로 받은 돈을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며 위로해 주었다. 잠시 후 상이 차려지자 아내는 미역국에 밥을 엄청나게 많이 말아 먹었다. 그동안 아내가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모습을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3. 광천동 주민운동

협동조합 운동에 눈을 뜨고

그가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신용협동조합지도자 교육이었다. 신용협동조합운동은 1949년 독일에서 고리채 추방과 농민의 자립을 위한 저축운동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는 1960년 부산과 서울에서 시작하여 1972년 정부에서 정식으로 신협법이 제정되면서 1970년 중반 이후 전국 각지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광주·전남의 협동조합운동은 <전남협동개발단>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었다. <전남협동개발단>은 단장에 조아라 광주YWCA회장, 부단장에 광주 <영신원> 서경자 원장, 그 외에 조명제, 정구선, 장두석 등 지역 개발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한 단체였다. 김영철을 전남협동개발단과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부단장인 서경자 <영신원> 원장이었다. 김영철 가족과 서경자 원장은 각별한 사이였다. 그의

가족이 목포에서 광주로 처음 왔을 때 <인성모자원> 원장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 주었던 분이 바로 서경자 원장이었다. 그는 서경자 원장을 이모라고 불렀으며 서경자 원장도 그를 친조카보다 더 아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김영철의 심성을 눈여겨보며 그가 능력을 발휘할 일터를 찾고 있었다. 서경자 원장은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김영철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서경자 원장의 권유로 1976년 1월 7일부터 24일까지 2주일에 걸친 제 51차 신용협동조합지도자교육에 참여하였다. 신협지도자 교육은 공동체운동 이념 외에도 회의 진행법, 토론법, 능력개발 훈련, 여가선용 놀이, 신협부기 등 실무 지침까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 때 강연 내용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열심히 학습하였다. 그의 공책에는 첫 강의부터 제목과 시간, 강사와 주요 내용이 메모 형태로 정리되었다. 그 공책은 부인 김순자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오다 5.18기념재단에 기증하였다. 아래는 그 공책에 적힌 내용 중 제목만 뽑아 보았다.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 교육 프로그램>

신용협동조합의 개요, 신용 협동조합론, 신용조합의 조직 절차(/1/9 13시 30분 이형문 강사), 신용협동조합의 이해, 신협 운영원칙(1/13 09시 박재봉 목사님), 부기란(1/15 09시 이선호 강사), 토론회 지도 방법(/1/14 13시 20분 박용덕 강사), 한국역사와 전남인의 의식구조, 신용협동조합 부기(1/15 09시 임종길 강사), 신용협동조합법(1/15일 13시 30분 박용덕 강사), 사회 운동인(지도자)의 자아인식(1월15일 14시 30분 박종삼 박사.), 새마을 운동(1월 16일 14시 40분 이영호(도청 새마을 과장)), 외국의 신용협동조합 운동(1월 19일 09시 박성호 강사), 협동개발단, 지역사회 개발론(1월 21일 송보경(연구원 교육 조사부장)), 연말 결산과 배당 절차(1월 21일 15시 40분), 부기(1월 22일 13시 40분 임종길 강사), 감사 실시 요령(1월 22일 16시 20분 이형민 강사), 지도자론(1월 23일 09시 15분 박성호 강사), 경제학 특강(이광식 강사(조대 법정대 교수)), 신협의 전남 현황(1월 24일 이형민 강사), 협동기능 강화 방안(1월 25일 10시 20분), 협동조합의 사상, 원리와 실제(4/27 송보경 강사)

1976년 2월, 순천중앙교회에서 주최하고 협동교육연구원 주관, 전남협동개발원 후원, 신용협동조합 전남지구 평의회로 제52차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가 개최됐다. 그는 동생 김종철과 오누이로 사귀던 아내를 이끌고 내려가 아내의 고향 마을 청년들과 함께 강습회에 참여했다. 신협지도자교육 수료식이 끝나는 날인 2월 28일, 오후 2시에 그는 7년 동안 여동생으로 삼아왔던 누이 김순자와 순천세광교회에서 강습회 참가자들의 축복 속에서 전격적으로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 후 그는 마산교회 청년회장이 되었다. 그는 청년회 활동으로 교회 앞마당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였다. 마산교회 청년회장이 된 그는 별량면 전체 교회 청년회를 총괄하는 청년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그는 음악부장을 맡아 별량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가를 작사하고 동생 김종철이 작곡하여 청년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

별량 기독교 청년 연합회가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우리 젊은이 곱게 피어
가시덤불 험곡을 우리 뭉쳐 헤쳐 나가세
주님 승리 나팔소리 우리 귀에 들려오네
들어라 울려 퍼지는 주님 승리 나팔소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루자 주의 꽃동산
이루자 복지의 별량 생동하자 별량 청년연합회

아름다운 주의 강산에 우리 청년 함께 뭉쳐
가시덤불 험한 계곡을 우리 먼저 헤쳐 나가세
주님 승리 나팔소리 들려오지 아니한가
들어라 울려 퍼지는 주님 승리 나팔소리
들어라 울려 퍼지는 별량 청년 성난 포효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이루자 주의 꽃동산
이루자 복지의 별량 나가자 기독교 청년 연합회

아름다운 주의 강산에 우리 청년 함께 뭉쳐
가시덤불 험한 계곡을

그가 마산교회 청년회장과 별량기독교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별량 초등학교에서 별량 사회개발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전남 협동개발단 조아라 단장과 서경자 부 단장, 이형민 총무와 교섭하여 별량면의 교회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켰다.

1977년 1월, 그는 승주 별량의 침산신협 창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순천중앙교회 신협 지도자 교육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순천의 교육은 그의 동생인 김종철까지 포함하여 약 7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강사로는 박이섭 원장, 송보경, 박성호, 박용덕 등이 참여하였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전남협동개발단> 간사가 되어

1977년 3월, 순천 신협지도자 강습회 추진과정 등에서 그의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을 받아 그는 <전남협동개발단> 간사로 임명되었다. <협동개발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그는 아내와 동명이를 데리고 광주 학동의 영신영아원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는 낮이면 <협동개발단> 활동을 하고 아내는 영신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을 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당시 <전남협동개발단>은 빈민지역인 광천동 시민아파트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지역개발 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광천동은 광주의 서북쪽 지역으로 저소득층들이 모여 사는 외곽 변방이었다. 그 곳은 광주천과 극락천의 퇴적물이 쌓여서 이루어진 자연제방 지형에 홍수방지를 위한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본격적인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그 곳을 광주천에 제방을 새로 축조했다고 해서 '새 방천'이나 '신 방천'으로 부르다가 광천동이라고 불렀다. 광주천을 따라 쌓아놓은 제방 근처에 6.25피난민이나 도시빈민들이 사는 판자촌이 게딱지처럼 붙어있었다. 1965년 7월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광천동에 세워지자 내방동, 화정동, 농성동 일대에 부품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면서

광주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 그러자 광천동이 주거지가 되어 저녁이면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6.25 직후 광주시에서 주거문제 개선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는데, 당시 입주조건이 20년 상환에 월 4천원이었다. 아파트의 규모는 지상 3층의 10평형이었고, 총 175호였다. 구조는 1층에 방 2개와 부엌을 넣고, 2층과 3층에는 방 1개와 부엌 1개의 연립주택 형식이었다. 화장실과 세탁실은 세대 당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층 입구에 공동으로 있었다. 게다가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라 채래식이었다. 지역주민들 생활환경은 최악이었다.

그는 먼저 광천시민아파트 관리장을 만나 아파트가 지어진 배경에 관한 사연을 들었다. 6.25동란 직후 북한 피난민과 부랑 가족들이 이곳에 천막과 판자집을 만들어 상무대 군부대에서 누룽지를 싸게 사서 끓여먹었고 학동의 천주교회에서 마련한 보리싹 식당에서 국수를 사서 연명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 광주시 건설과 주택계에서 이 아파트를 지어주었는데 공동변소도 수세식이 아니고 그 외 여러 부분에서 처음 약속과는 달라 주민들이 거의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아 완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광주시 지원도 끊기고 입주민 스스로 내부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경제적 형편은 너무 영세하여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고 한다. 게다가 입주민들이 주로 무직이거나 공사현장의 일용직이거나 중소기업체의 저임금노동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서 사소한 이해관계로 충돌하게 되면 아량을 베풀 여유도 가지지 못하여 자주 다투기도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가 처음 그곳을 찾아갔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방 군데군데가 쓰레기장이었고, 아파트 복도는 암굴처럼 어두웠고, 내부 벽은 매우 더러웠으며, 각 층 입구에 화장실과 세탁장을 공동으로 갖추어서 세면과 빨래, 혹은 쌀을 씻는 것도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어서 들어가면 역한 냄새와 메탄가스로 눈이 따가웠다. 놀이터가 없어 어린이들은 부서진 리어카 위에서 난폭하게 놀고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지분한 빈민촌이었다. 북한 피난민과 실직자가 대부분인데다 알콜 중독자도 많았다.

광천동 주민운동을 시작하고

1977년 10월, 그는 광천동 시민아파트가 지역개발운동으로 활동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가 꿈꿔왔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는 주민들과 직접 생활하기 위해 그동안 살던 학동의 <영신원>에서 시민아파트 A동 216호로 이사를 하였다. 전세금 10만원은 <전남협동개발단> 부단장이자 서경자 <영신원> 원장이 마련해주었다.

그는 가장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정별 기초조사를 시작하였다. 지역 주민 정정만과 함께 175가구의 각 호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학력별, 직업별, 수입, 지출, 빛, 종교를 기재하고 심층 분석하여 기초조사표를 만들어 종합개발사업 계획안을 만들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학력이 낮고 문맹자가 많았다.

기초조사표를 토대로 활동계획을 짜서 추진했다. 가장 먼저 자신과 활동을 같이 할 조직으로 청년회 조직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문판매 할 때 보급소에 다녔던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근교의 유원지에 가서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가슴을 맞대며 지냈던 때를 생각했다. 그는 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예전에 있었지만 유명무실해진 '유진청년회'를 부활시켜 총무를 자청해서 맡았다.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아파트의 주민들 중 박명구, 서동주, 박용규, 정정만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만났다.

다음에는 어린이 주말학교를 개설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부모의 가장 관심 대상은 자녀들이었다. 그는 매주 토, 일요일에 어린이 주말학교를 개설하였다. 주말이면 어린이들을 모아 아파트 옥상이나 무등경기장 실내수영장, 때로는 효광여중 운동장에서 각종 놀이로 함께 즐겁게 놀면서 능력개발 훈련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아침 청소를 하였다. 그는 어린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워 새벽 5시에 어린이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불러내어 운동장과 아파트 주변을 청소했다. 원래 아파트 앞 가게의 평상에서 새벽부터 주민들 중에서 알콜 중독인 아버지들이 막 걸리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자기 자식들이 마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마당에서 술을 먹고 있자니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는 아파트 앞마당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 그렇지만 술을 끊은 것은 아니었다. 술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였다.

변화가 시작되자 주변 환경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영신원>의 지원을 받아 묘목을 가져와 정원을 조성하였다. 삭막했던 아파트의 환경이 변화되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심신도 변화시켰다. 주민들 스스로 서로서로 나무를 가져와 심었다. 어린이 주말학교를 개최하여 미술대회를 여는 등 어린이 정서 교육에 많이 치중하자 부모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주민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동안 혼자 했던 활동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했다. 먼저 주민들에게 회의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참여가 저조했다. 그러나 참여자가 적을지라도 열성적으로 토의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첫 번째 사업은 화장실 세척이었다. 공동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메탄가스가 가득차서 변기에 앉으면 얼굴 피부가 쓰리도록 툭 쏘았다. 그는 화장실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염산을 사서 화장실 벽을 닦아내고 삼과 칼로 요석을 벗겨냈다. 그동안 메탄가스 고통을 참고 지냈던 주민들은 공동작업으로 몰라보게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고 서로 술을 사며 잔치를 벌였다.

그 후 그는 A동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집이 2층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활동이 많아져 1층으로 옮기려던 참에 1층 114호가 비었다. 그는 즉시 114호실로 옮겼다.

다음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가 조사를 해보니 그동안 시민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신협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

다. 그 신탁은 광주YMCA신탁이 지원한 <광천삼화신용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이 지지부진하고 실무자가 중간에 출자금을 써버려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었다. 그는 새로 신탁을 만들기보다 그 조합을 인수하여 운영 체제를 바꾸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광천삼화신용협동조합>의 장부 등 각종 서류를 인수하였다.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어린이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그가 매일 아침 아파트 앞 운동장에서 청소하면서 어린이들이 모아 온 빈병, 신문 등의 폐품을 돈으로 환산하여 각각 노란 출자금 통장을 발급해 주었다. 그동안 신탁 출자금 때문에 불신이 많았던 주민들은 “애야, 그 통장 어디서 났니?”, “빈병으로 저금하니 이 통장을 발급해 주었어요.”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삼시간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A동 2층에 살던 주민 문영춘은 당시 조합원에 가입하여 꾸준히 저축하여 1979년에 저축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78년, 광천동 11통 주민 총회에서 그는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그는 다음 과제로 아파트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했다. 그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을 하다 보니 해답이 저절로 도출되었다. 돈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나서서 우중충한 내부 복도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자고 결정했다. 벽에 페인트 칠을하기로 하고 집집마다 일정 금액을 거출했다. 돈이 거출되자 청년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페인트를 사서 직접 칠을 했다. 또한 아파트를 ‘200만 원 이하로는 팔지 않기 운동’을 벌였다. 그때 40만원밖에 안되었던 아파트 값이 350만 원, 400만 원으로 경총 뛰었다. 결과적으로 주민 총소득이 2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그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놓았다고 욕을 흠뻑 얻어먹었다. 그러나 그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심정으로 아파트 개선 작업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집집마다 청년회원들이 직접 분전기를 달아 누전을 방지시켰다. 그동안 너무 가난해 부엌 아궁이에 나무를 불지피 벽을 그을렸던 것을 연탄아궁이로 바꾸도록 했다. 심지어 그 좁은 집 부엌

에서 닭이나 염소나, 돼지를 키웠는데 그때부터 짐승을 못 기르게 했다. 신협이 자선이 불어나자 아파트 입구 술집을 월세로 얻어 내보내고 다른 가게로 바꾸기도 했다.

* ----- 주민잔치 사진 -----

그 다음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장마철에 물바다가 되는 아파트 앞마당을 어떻게 물이 잘 빠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아파트 앞 지하수로가 너무 작아 하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게다가 아파트 앞마당 앞에 있는 어묵공장에서 배출되는 생선찌꺼기가 좁은 하수구를 막았다. 다시 주민총회가 열렸다. 좁은 배수관을 넓은 배수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큰 배수관으로 바꾸려면 공사 규모가 커져서 돈이 많이 들 것이 뻔했다. 주민들이 돈을 거출하여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 같으면 어렵도 없는 일이었지만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돈이 걷히기 시작했다. 재정이 마련되자 하수관 교체공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묵공장 이전도 추진되었지만 어묵공장 운영자도 영세한 기업인이므로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몇 년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1979년 3월에는 아파트 제값받기 운동과 지하수로 확장공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유진청년회 주최로 주민잔치를 개최했다. 주민들 모두 막걸리와 떡을 먹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불을 켜놓고 들불야학 강학들과 전남대 탈출반이 추는 봉산탈춤을 구경하면서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박용준과의 재회

1978년 7월, 김영철의 광천동시민아파트 지역개발운동 외에는 뚜렷한 활동이 없고, 재정이 취약하여 운영이 힘들었던 <전남협동개발단>이 해체되었다. <전남협동개발단>이 해체되어 김영철이 추진하고 있던 광천동시민아파트 지역개발운

동도 공식적으로는 중지되었다. 이제 그는 광천동지역개발운동에서 손을 떼어도 상관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역개발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역개발운동 운동은 그가 평생 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공동체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전남협동개발단>이 해체되자 그는 광주YWCA신용협동조합 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전남협동개발단>이 해체되자 간사인 김영철을 광주YWCA신협에 취직시켜준 것이다. 당시 광주YWCA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남사회개발단> 부단장인 서경자 <영신원> 원장이었다.

열사는 광주YWCA신협에서 예전 <영신원>에서 함께 살았던 박용준을 만났다. 박용준은 1956년에 태어나 <영신원>에서 자라다 1964년 <무등고아원>으로 옮겨 살다가 성인이 되어 자립하였다. 당시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서경자 원장이었다. 어릴 때부터 박용준을 키우며 지켜보아왔던 서경자 원장은 박용준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1973년 11월 13일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 교도직으로 추천하여 입사시켰다. 그때부터 박용준은 낮에는 신협에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방송통신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쳤다.

김영철은 1956년부터 1964년까지 <인성모자원>과 <영신원>에서 박용준과 함께 살았다. 1978년 그가 광주 YWCA신용협동조합 책임자로 첫 출근할 때 박용준을 14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당시 박용준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방도 얻지 않고 신협 사무실의 소파나 책상 위에서 잠을 자고 연탄난로에 라면을 끓여먹으며 화장실 수도꼭지의 물로 세면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김영철은 그렇게 생활하는 박용준을 만나자 리어커를 빌려 박용준이의 짐을 모두 실어와 광천동 아파트 작은방에 거주하게 하고 동생으로 삼아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올렸다. 부인 김순자는 당시 박용준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남편이 신협에 나간 지 한달도 못되어서 리어카에 짐을 싣고 박용준을 데리고 왔다. 추운 겨울에 책상에 잠자고 라면 끓여먹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데리고 왔다.”

들불야학과의 만남

들불야학은 1978년 5월부터 창립을 준비하여 그해 7월, 광주공업단지를 옆에 끼고 있는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서 35명의 노동 청소년들과 강학이라 불리는 8명의 교사가 입학식을 가지면서 출범하였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씩 진행되었다. 학제는 한 학년을 6개월로 정하여 1년 6개월, 3학기를 마치면 졸업을 하였다. 그러나 들불야학은 일반적인 대학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는 야학이 아니고 노동운동가 배출을 목표로 하는 노동야학이었다.

들불야학 설립은 서울에서 야학 교사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전복길(서울대), 최기혁(외국어대), 김영철(서울대) 등 광주출신 대학생들이 처음 제안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당시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시국관련 시위 사건에 관련되어 정학, 혹은 제적을 당한 후 군대 영장을 받고 고향인 광주에 내려와 있던 참이었다. 그들은 광주에도 노동야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남대학교에서 이념서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박기순, 신영일, 임낙평 등 운동권 학생들에게 제안하여 함께 들불야학을 창설하였다.

1978년 창설된 들불야학은 강학(교사)을 전남대 이념서클에서 골고루 선발하였다. 들불야학에서 강학기간동안 노동현장체험을 한 후 다시 학내로 돌아가 투철한 학생운동가로 활동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들불야학은 기존 검정고시 야학처럼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집한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야학을 졸업한 후에는 '노동운동 소모임'을 꾸려서 본격적인 노동운동 학습과정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들불야학은 야학에 교사로 참여한 대학생이 노동현장체험을 통하여 학생운동가가 되고 야학에 학생으로 참여한 노동자는 노동운동가가 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1978년 7월, 어느 날 김영철은 광천동 여기저기에 야간학생을 모집한다는 벽보를 발견하였다. 그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가 기획한 종합 개발 계획서에도 야간중학교 건립이 있었다. 그는 여력이 없어 당분간 야간중학교 설립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기회가 생긴 것이라 여겼다. 그 곳이 바로 들불야학이었다. 마침 고교 동창인 김상윤의 소개로 들불야학의 강학(교사)들을 만나고 입학식에 참석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리고 강학들과 친해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그는 특별 강학으로 참여하여 시사 과목과 레크레이션을 맡아 수업을 하였다.

1978년 11월 서울에서 내려와 공장에 다니던 윤상원이 야학 강학으로 합류를 하면서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다. 그해 12월부터 시작되었던 광주공단 노동자실태조사를 통해서 박관현과의 인연이 맺어졌다. 박관현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김영철을 만나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다. 그 후 강학으로 참여하다가 80년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전남대 학생 운동권의 추천으로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는 출중한 웅변과 투철한 리더십으로 지역대학생협의회를 주도하였다. 그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의 민주화대성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5월항쟁의 든든한 밑받침을 형성하였다.

김영철이 들불야학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자서전에 기록하였다.

“나는 특별강학이 되어 능력개발 훈련과 회의 진행, 토론법을 가르치고 세계사의 흐름을 가르쳤다. 박용준은 테너가수 뺨 칠 정도로 명곡을 잘 불렀고 글씨를 잘 썼으며 등사 가르방 글씨도 잘 쓰고 도장도 잘 폈다. 또한 매우 정의로웠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전의 박관현 군은 군사독재에 항거하듯이 노란 삼베옷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으며 심신 건강을 위해 상무관에서 검도를 했다. 영어담당이었는데 수업 참관을 해보니 알파벳을 서대석 강학과 함께 춤을 추면서 가르쳤고 성교육도 재미있게 시켜 제일 인기가 있었다. 우리 옆방에서 강학들과 아파트 청년회원들이 정치시국을 논하며 막걸리를 마시곤 하였는데 박관현 강학은 각설이 타령을 제일 잘했었고 술 욕심이 나 다음으로 많았으며, 윤상원 강학은 ‘장안에 사는 안도란 놈이...’를 잘했다. 박효선 강학은 ‘외로운 저녁 홀로 일어나 창문을 여니 구름 사이로 푸른빛을 보이는 내 하나 밖에 없는 등불을 외로운 나의 벼를 삼으니 축복받게 하소서’ 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197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들불야학 박기순 강학이 연탄가스로 갑작

스럽게 사망한 사고가 났다. 모두들 황망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렀다.

“박화강 씨의 여동생 전남대 사범대학생인 박기순 강학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파트 들불야학 도서실에서 수강생인 근로청소년들과 밤을 새우고 이튿날 크리스마스에 수강생들과 리어카를 끌고 전대 뒷산으로 가 술방울 등 야학당 난로 땀감을 해오는 등 과로하여 연탄가스가 새는 줄도 모르고 자다가 질식사하여 전대병원 영안실에 모셨다. 나는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소주 4홉을 다 들이키고 쫓아가 보니 전홍준 형 어머니께서 “너무 아까운데 어찌까.” 하며 몸부림치고 계셨고, 온 들불야학 관계자들과 민주인사들이 모여 화투불을 밝히고 애도하며 나라 일을 토론하였다. 광천천주교회 교리실과 전남대 사범대학 앞에서 장례식을 갖고 박기순 강학은 망월동 공원묘지에 묻혔다.”

주민 사랑방이 된 114호

그 기간 동안 10평 남짓의 시민아파트 A동 114호는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들불야학 형제들의 사랑방, 유진청년회의 사랑방이었다. 오늘은 A동의 박명구와 정정만과 B동의 박용규와 C동의 서동주가 모여서 아파트 제값받기 운동을 평가하고 수고했다고 막걸리 파티가 벌어지면, 다음 날은 유진청년회원들이 모여서 아파트 벽 페인트 작업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회의를 벌였고, 그 다음 날은 들불야학 강학들이 체육대회는 어디서 열 것인가 회의를 하고 막걸리 잔치를 벌였다.

주민들 모임에서는 건축현장 노동일 다니는 B동의 박용규가 막걸리 두 잔에 벌써 취해서 ‘목포의 눈물’을 한곡 부르고 일어서면 자리가 끝났다. 유진청년회도 생두부에 막걸리 몇 잔 돌면 다들 동명이 엄마 눈치 보고 아파트 앞 선술집으로 2차를 갔다. 그러나 들불야학 강학들과 자리가 땀어지면 그날은 좀 길어졌다.

야학에서 수업이 끝나 윤상원, 박효선, 박관현, 박용준, 그리고 임낙평이나 신영일이 끼거나 해서 ‘우’하고 물려들면 그날 밤은 ‘동명이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들어올 때 아예 막걸리 열댓병과 생두부 몇 모를 사들고 왔다. 모두 막걸리 상에 빙 둘러 앉아 한참 떠들다가 술이 몇 순배 돌아 흥이 붙으면 먼저 상원이 “서울 장안에 안도란 놈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판소리를 읊고, 용준이

가 벨칸토 창법으로 ‘선구자’를 부르고, 관현이가 걸걸한 목소리로 ‘김삿갓 죽장 쓰고…’를 부르고, 연극하는 효선이가 ‘외로운 저녁 홀로 일어나…’로 시작하는 노래를 낭랑하게 부르면, 네 살 먹은 동명이라도 끼어 엇그제 아파트 주민잔치에서 한판 벌였던 봉산탈춤의 ‘쿵 더쿵, 덩기덕 얼쑤’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다. 그러면 이제는 ‘동명이 엄마’ 차례로 넘어갔다. 그녀가 손사래를 치며 사양해도 필요 없었다. 윤상원과 박관현이 “형수님, 노래 안들으면 우리는 새벽까지 안 일어나볼랍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면 그녀도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처녀 적에 배웠던 ‘청실홍실’을 불렀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서야 자리가 끝났다.

신협 이사장이 되어

1980 3월, 광천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이 불어나자 시민 아파트 앞에 있는 가게를 500만원 전세금을 내고 이전하였다. 신용협동조합 광주 실무연구회원들과 광천동 일대에 안내문을 뿌려 조합원과 자산이 급격히 불어났다.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반장, 새마을 지도자, 광주YWCA신협 및 광천신협, 들 불야학 일들을 보느라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광천시민아파트 종합개발 사업으로 광주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신협이 날로 커지자 유덕동에 농장과 목장, 효광여중과 광주천 사이의 넓은 밭에 협동촌 종합복지회관, 광천시장을 지하로 한 백화점 등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영세한 광천시민아파트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했다. 광천신용협동조합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5.18광주항쟁이 발생하여 모든 계획이 중단되어 버렸다.

*----- 지도 추가 -----

4. 5월 항쟁

5월 항쟁 참여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확대와 공수부대의 광주 투입으로 시민학생에 대한 학살 만행이 자행되었다.

18일, 그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시내로 나가 태평극장 앞 시위대에 합류하여 법원과 농장다리까지 진출하였다. 이윽고 도청 방면에서 공수대원들이 투입되자 위험을 느껴 귀가를 하였다.

19일은 신협에 정상출근을 하였다. 오전 10시 경, 공수대원들이 신협으로 들어와 직원인 박용준의 소지품을 검사한 후 2층 양서조합 직원 황일봉을 끌어내려 구타하려고 했다. 마침 이 광경을 옆 건물에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무등고 시학원 학원생들이 보게 되었다. 학원생들이 창밖으로 “야, 그러지 마라!” 고 큰 소리로 제지했다. 공수대원들은 학원 건물 맨 윗층 강의실에서부터 학원생들을 후려쳐 1층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셔터를 80센티 정도 올려놓고 기어 나오게 하여 또 다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쓰러진 학원생들을 트럭에 싣고 갔다.

(사 진)

이 광경을 창밖으로 보고 YWCA 직원들은 울분을 누르며 오열을 했다. 박용준 군이 “개새끼들, 총만 있으면 모두 쫓아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공수대원들은 계속해서 금남로의 다방이나 가게를 뒤지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을 끌어내어 구타를 하였다. 그는 공수대원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서 치를 떨어야 했다.

20일 화요일, 금남로 1가에서 청년들을 구타하는 것을 말리는 광주YWCA 이사인 아주머니를 공수대원이 때리려하자 그는 재빨리 이사님을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황혼 무렵 시민들과 전투경찰대 사이에 곳곳에서 투석전이 벌어졌다. 무등경기장에서 택시기사들이 도청의 계엄군을 밀어버리자며 택시 수백 대와 시내버스 등이 도청을 향해 진군했다. 전투경찰대원들이 물러서지 못하도록 공수대원들이 뒤에서 곤봉을 휘두르며 막고 있었다. 광주MBC방송국이 화염에 휩싸였다. 그는 투석전을 벌이고 있는 중앙교회 앞에 있을 때였다. 갑자기 왼쪽 어깨의 등 쪽 불쑥 튀어나온 뼈마디가 아파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묻어나왔다. 전투경찰대원의 돌에 맞은 것이다. 고통이 심했다. 그는 시위대원들과 함께 방림동 독서실에서 날을 샀다.

21일, 신협에 출근했을 때였다. 조아라 회장께서 시내 상황에 대해 묻는 전화 걸려왔다. 그는 “위험하니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마침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양림교회 이성학 장로께서 전화기를 뺏으며 “조회장, 나오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두 분은 나중에 모두 수습대책위원으로 참여하여 고초를 겪으셨다. 전날 돌에 맞은 어깨 등 뒤 뼈가 몹시 아파 녹두서점으로 가 친구 김상윤의 부인으로부터 삼천 원을 받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치료받았다. 오후 1시에 계엄군이 금남로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하고 시민들이 무장을 하여 대항하자 오후 6시 경에 도청에서 모두 철수하여 광주시내는 해방구가 되었다.

22일, ‘시민 학생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들불야학 강학과 학생들은 공수대원의 잔학행위와 극악한 살인행위를 알리는 ‘투사회보’를 제작하여 시내에 배포하였다. 그는 YWCA 간사 정유화, 안희옥, 이행자와 대인시장에 가 검정 천을 사가지고 녹두서점에서 검은 리본 3~4천여 매를 만들어 시민들 가슴에 달아주었다.

남은 천은 전남도청 옥상 태극기 위에 걸었다.

23일 12시 반경, 열사는 녹두서점에서 박효선, 김태종 등 문화패와 박용준을 비롯한 들불 야학 강학·학생들과 함께 프랑카드와 대자보를 제작하였다. 그날부터 극단 '광대'와 '송백회', '들불야학'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도청 앞 분수대를 강단으로 만들어 쫓기대회를 개최했다. 그날 쫓기대회에서 열사는 분수대 연단에 올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노동자 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말미에 '군사정권 타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삶을 위해 총궐기합시다.'고 외쳤다.

24일, 비가 오는데도 쫓기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쫓기대회가 끝난 후 청년학생들은 모여라는 광고를 듣고 모인 젊은 사람들에게 광주YWCA 무진관에서 무기조작법을 가르쳤다. 그는 정상용, 윤상원, 이양현, 정해직, 윤기현, 박효선, 김태종 등과 태평극장 부근 보성기업에서 날을 새우며 대책을 논의했다.

25일, 도청의 시민학생수습위원회가 시민학생투쟁위원회로 조직이 재편되었다. 투항과 수습을 전제로 한 온건적 지도부가 투쟁을 전제로 한 투쟁적 지도부로 조직이 재편된 것이다. 이는 김종배, 정상용, 윤상원, 김영철, 이양현, 정해직 등이 기동타격대를 장악하고 있던 박남선의 지원을 받아 취한 조치였다. 새로 조직된 시민학생투쟁위원회에서 김영철은 기획실장을 맡았다.

26일, 윤상원이 대변인으로 내외신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엄군이 물러나지 않은 한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저녁에는 들불야학 팀의 윤상원 강학과 박용준과 야학생 몇 명은 끝까지 싸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의 만찬을 가졌다.

항쟁 동안 광주시민들로부터 김밥과 빵이 공급되었고 지역주민 부인회에서 마스크와 수건을 보내왔다. 담배와 현금도 보내왔다. 담배는 수습위원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현금은 사망자의 관과 그 위를 덮는 태극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천주교 레지오 남녀 단원들이 도청 취사실에서 밥을 지었다.

항쟁 동안 그는 몇 번이나 귀가해 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그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청 2층에서 YWCA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 홍남순, 이기홍 변호사, 김

성용 신부, 조비오 신부 외에도 여러분들이 사태수습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분들의 의젓함을 보고 도청에 남아있기로 결심했다.

5월 27일, 최후 항전

27일 새벽, 중화기로 무장한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도청으로 진입하였다. 새벽 4시, 상황실에 있던 여학생의 “광주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은 모두 나와서 이를 저지해 주십시오.”라는 구슬픈 가두방송이 들려왔다. 시민군과 투쟁위원들은 총과 탄환을 보급 받고 도청과 시내 일원에 배치되었다.

그는 들불야학의 동지이자 투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던 윤상원과 기획위원을 맡고 있던 이양현과 함께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창밖을 향해 경계를 섰다. 갑자기 뒤 창문 쪽에서 드르륵 하며 M16 연발 소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윤상원이 ‘아이쿠’ 하며 오른쪽 아랫배를 움켜잡았다. 총탄이 등에서 배로 관통한 것이다. 그는 윤상원의 왼쪽 팔을, 이양현은 오른쪽 팔을 부축했다. 상원은 그에게 “형님, 틀린 것 같소” 했다. 갑자기 사과탄 몇 개가 터지더니만 앞의 커튼에 불이 붙었다. 둘은 계속 굽어대는 총소리와 사과탄의 불길에 못 이겨 상원을 눕히고 옆 나무로 만든 미닫이문에 숨었다.

계엄군 중사가 문 뒤에 숨어있는 그들을 보고 M16 소총을 쏘아 댔다. 다행히도 모두 총알 파편에 스치는 상처만 입었을 뿐 총알은 모두 피해갔다. 그 곳에서 둘은 체포되었다. 계엄군은 민원실 2층에서 잡힌 사람들에게 총기를 빼앗고 건물 옆에 서 있는 나무를 타고 내려오게 했다. 그가 나무를 타고 1층에 내려와 보니 도청 현관 오른쪽에 동료 시민군 10여명이 등 뒤에 양손을 포승줄로 묶인 채로 엎드려있었다. 그도 공수대원에게 뒷목을 발로 채여 앞으로 쓰러져 왼쪽 윗입술이 찢겼다. 포승에 묶여 도청 문으로 가니 외신기자가 시민군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TV카메라로 촬영하자 그는 피 흘리는 얼굴을 찍으라고 얼굴을 들이 내밀었다. 그 모습을 본 계엄군이 그의 뒷목을 M16소총 개머리판으로 후려했다. 도청 문을

나서니 분수대와 수협 건물 사이 금남로를 계엄군들이 행진하면서 도청을 함락했다는 승리의 군가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상무대 영창이었다. 도청과 시내 곳곳에서 싸우던 동지들이 속속 연행되어 왔다. 그는 그곳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죽고 말았다는 박용준의 소식도 듣게 되었다. 상무대 영창에서 모두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흠씬 맞았다.

28일 새벽 4시, 그는 형제와도 같은 박용준과 윤상원의 죽음과 수사당국의 고문을 생각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왼손 동맥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화장실 콘크리트 모서리 벽에 이마를 세 번 부딪쳤다.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와 군화발로 온몸을 짓이기고 밖으로 끌어내어 긴 곡괭이자루로 온몸을 찍고 특히 왼쪽 등과 왼 팔다리를 무자비하게 난타하였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 국군통합병원으로 실려 갔다. 군의관들이 상처를 꿰매지 않고 반창고로 붙였다. 그는 병실로 옮겨져 침대에 눕는데 양어깨와 등이 몹시 아파 드러누울 수가 없었다.

부인의 고통

27일, 도청이 함락되자 부인 김순자는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도청에 가서 계엄군에게 죽은 사람들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곳에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도청과 상무관을 배회하다가 도청 벽에 붙은 사망자 명단에서 ‘김영철’이 찍어있어 깜짝 놀랐으나 나이가 27세인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놓았다. 그녀는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있다가 6월 3일 국군통합병원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고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게 되었다.

상무대 영창에서 자살기도 사건이 나자 그는 간첩으로 매도되었다. 박용준이 죽은 다음 날인 28일, 형사들이 박용준이 거주하던 방에 들이닥쳐 책장에서 ‘등소평’, ‘8억인 과의 대화’ 등 수십 권의 책을 압수해갔다. 그 책들은 모두 서점에서 판매가 허가된 책이었다. 김영철의 자살사건 이후 또 다시 시민아파트 김영철의 집과 윤상원이 세 들어 살던 집, 들불야학 교실로 쓰던 방을 덮쳐 야학 교재

와 책들을 가져갔다. 그 후 형사들이 김영철과 박용준, 윤상원이 간첩이라고 소문을 퍼트렸다. 그러자 그가 이사장인 광천신용협동조합에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출자금들을 환불해가는 소동이 일어났다. 부인 김순자는 그 사건을 수습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김영철을 잘 아는 조합원들이 나서서 변호해주기도 했다.

5월 27일 도청에서 박용준과 윤상원이 죽고 남편은 생사도 모르고 있다가 상무대에 갇혀있던 당시, 그녀는 셋째인 막내딸, 은형이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둔 때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줄 알다가 잡혀서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은형이를 출산하려고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의사가 입에 산소 호흡기를 대자 ‘아빠는 자식도 못보고 죽는구나.’고 생각했다.

그녀가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산하자 아이가 너무 작았다. 아이 크기가 팔의 반도 되지 않는다고 해 소위 ‘반팔’만 하게 낳았다. 의사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양육해야 한다고 했으나 돈이 없어 그냥 퇴원시켰다.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먹고살기 위하여 아파트 앞에 가게를 얻어 청과물 장사를 시작하였다. 가게 한쪽에 광천천주교 수녀들이 마련해준 화란 빵 기계로 밤늦게까지 빵을 구워 팔았다. 은형이를 품에 안고 겨울에 찬 우유를 젖병으로 먹여 키우는데 한번은 너무 피곤해 우유를 먹이다가 졸음이 와 젖병을 자주 떨어뜨려 우유병 젖을 몇 개나 깨뜨리기도 했다. 운수좋은 날에는 무, 배추를 공판장에서 떼어와 10만원 어치나 팔았던 적도 있었다.

고문 수사와 재판

시민군들이 잡혀 상무대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계엄군들은 천막을 여러 채 짓고 갖가지 고문을 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 물을 코에 부어넣는 물고문과 대형 주전자에 가득 찬 찬물을 강제로 다 마시게 하는 고문, 수동식 전화기의 전기줄로 전기를 통하게 하여 고통을 주는 전기고문, 심지어는 무더운 날씨의 커다란 나무 옆에서 벌거벗게 하고 밑의 커다란 개미집을 건드려 개미들이 온몸을 타

고 올라와 기어 다니게 하는 재미고문도 했다.

그에게도 대형 주전자의 가득 찬 물을 다 먹이려다 말고 예비 검속된 친구 김상윤의 아내가 정면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의자에 꿰어앉히더니만 경봉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차게 발바닥을 내리치는 고문을 했다. 경봉으로 발바닥을 때리면 극심한 고통과 충격으로 의자 밑에 굴러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의자에 꿰어앉혀 또 발바닥을 거세게 후려쳐 충격으로 다시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렇게 반복하여 매를 때렸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것을 본 김상윤의 아내가 오열하였다.

수사관들은 그가 YWCA신협 직원이고 들불야학의 특별 강학이고, 김상윤의 친구이고,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과 들불야학 강학 등 전남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내란 주범으로 몰았다. 그러다 나중에 그가 광천동 11통 새마을지도자로서 빈민복지사업 활동을 정리해놓은 사진자료를 보고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그는 군법회의 1심에서 12년 선고를 받았다. 2심에서는 7년형을 선고 받고 최후진술에서 “5.18광주의거는 명백한 정당방위 행위이다. (중략)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 광주시민 만세!”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대법원 판결에서 3년으로 감형되었다.

간헐 지 2개월이 지난 80년 8월경부터 김영철의 말투나 행동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료들은 정신과의 정밀진단을 요구하였지만 계엄당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정신이상 증세는 더욱 심해졌으나 정상적인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감옥 안에서 머리의 고통이 극심하여 동료 수감자들이 머리 지압을 자주 해주었다. 그러다가 온몸, 특히 헌병들에게 두들겨 맞은 왼팔다리가 쭈시고 아파 병사 9방으로 옮겨졌다. 면회를 다니며 남편의 고통을 들은 아내는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여기저기에서 돈을 구하여 뇌 신경 손상 치료약을 사서 계속 넣어주었다.

5. 하늘의 부름

뇌수종 진단을 받고

1981년 12월 25일 새벽, 성탄절 특사로 형 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출감하였다. 부인은 집에 온 그가 정신이상 증세가 일어나자 요한병원 정신신경과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광주의 병원에는 뇌질환 정밀 진단 의료기가 없어 전주예수병원에서 뇌 컴퓨터 촬영을 한 결과 우측머리 뇌수종으로 밝혀졌다. 전남대병원에서 뇌수종 수술을 받고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다.

1982년 10월, 광주교도소 수감 중이었던 박관현은 들불야학 동료 강학 신영일과 교도소 처우개선 문제로 단식을 하다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신영일은 함께 단식하던 박관현이 죽자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전남대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있었다. 김영철이 전대 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신영일을 만났다. 교도관 둘이 신영일을 교대로 지켰다. 그는 신영일이 가끔씩 창문을 부여잡고 “관현이 형! 관현이 형!”하고 외치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차도가 없어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집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심하여 부인과 자녀들의 고통이 심했다. 아내가 한약을 사서 먹이며 극진한 간호를 했으나 병은 낫지 않았다. 결국 1984년에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는 병원에서 매일 일기장에 아내 면회 온지 며칠, 지인들 면회 온지 며칠, 이렇게 써가며 생활했다. 병원에서 식사를 충분히 공급해주었지만 배가 고파 꿀꺽질을 씹어 먹고, 버린 음식찌꺼기를 짬밥 통에서 한주먹 주어먹는 비정상 행동도 나타났다.

1984년부터 1998년 영면하기까지 16여 년 동안 국립나주정신병원과 몇 군데의 정신병원을 전전하였다.

소천

1998년 1월, 나주정신병원에서 그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전갈이 왔다. 16여년 치료 도중 생긴 여러 합병증과 왼쪽 신체마비 현상으로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생긴 신체외상 등으로 그는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불치병 감염 여부 등의 검진을 위해 3개월 동안 종합 진료를 받았다. 송백회 회원 등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 취한 조치였다. 간병 체제가

잘 되어 있다는 영광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회복되기 힘든 상태였다.

1998년 7월 21일, 영광의 병원에 입원한 지 4개월, 간식을 먹던 도중 기도가 막혀 호흡이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조선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는 회생 불가능한 판정을 내렸다. 가족의 상의 끝에 8월 5일,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인 동명이, 두 딸 선형과 은형이 있는 광주 신안동 자택으로 옮겨왔다. 그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의식은 열흘쯤 더 남아 있었다.

8월 16일 오후 3시 45분, 그의 영혼은 고단한 육신을 떠났다. 그는 70년대 한국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온전히 체험하고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 광천동시민아파트 주민공동체 실현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꿈은 물론 건강까지 12.12정변을 일으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부독재정권에게 빼앗겨버렸다. 정치적 격변기에 태어나 청년이 되기까지 호강 한 번 해 보지 못한 채 부림만 당하다 2년여의 감옥생활, 16여년의 정신병원 수용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때 그의 나이 51세였다.

남겨진 가족

김영철 열사는 3형제 중 둘째다. 맏형인 김인철은 일찍이 장교로 군대에 들어가 직업군인으로 생활했다. 동생이 5월항쟁 관련자라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진급 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 상황에 처하였지만 체대 후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3살 터울의 김종철은 김영철이 5월항쟁으로 수감되기 전까지 서울의 밑바닥 생활과 신협지도자교육도 같이 다니며 열사와 함께 살아온 형제이자 동료이기도 했다. 신협운동을 함께 하여 광주백운신협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그는 직장에 다니며 틈틈이 신학대에 다녀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열고 목회를 하다 몇 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아내 김순자는 남편의 2년간 감옥살이와 16년간의 병원생활을 수발하며 3남매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하였다. 그 동안 수고했던 그녀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

까. 그녀에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남편이 꿈에도 이루려고 했던,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인 광천동시민아파트 지역개발운동 기간인 1977년 10월부터 1980년 5월까지 2년 6개월 남짓일 것이다.

열사의 자녀들은 큰 아들 동명과 둘째 딸 선형, 막내딸 은형으로 셋이다. 세 자녀 모두 건강하게 자라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다. 동명이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선형이는 아들만 둘을 두었고, 은형이는 아직 자녀가 없다.

현재 가장 큰 걱정은 부인인 김순자 여사의 건강이다. 2008년 11월, 그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이도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도 과거 아빠 병원수발 때문에 학교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직장다운 직장을 다니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근심이 깊다.

김영철 자서전

이 글은 고인의 자서전으로, 1948년에 태어나 유년기의 4.19 목격담과 학창시절부터 생활고 때문에 고단한 청년기, 짧았던 약 2년간의 지방직 공무원 생활, 군 제대 후 서울에

서 4년 동안 신문배달과 청과물 장사를 하며 살던 과정,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이야기, 1977년 광주 광천동으로 이사하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광주민중항쟁 기간과 도청 내에서 겪은 상황, 수감 중 상황 등이 생생하게 기술되었다.

나는 성태극원단기(聖太極元檀紀) 4281(1948)년 음력 7월 14일(伯仲, 百衆) 전날 해질녘 황혼 무렵에 성태극 대한민국 전남 순천시 금곡동 76번지에서 부친 김녕김씨(金寧金氏) 김경묵, 모친 백은혜 사이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전북 전주시에서 사시다가 순천으로 이사하셔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가져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어머니를 낳으시자 주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며 이름을 백은혜로 지으셨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각각 외국인 선교사들께서 설립하신 안록산병원(현재의 순천 도립병원)의 의사, 수간호원이셨다.

3살 때 남동생 김종철을 낳으셨다. 외할머니께서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나는 소고기를 어머니의 살로 알았다. 또한 내 이름을 영원히 지혜롭다는 김영철(金永哲)로 지었다.

아버지께서는 남녀 모두 호연지기의 기상이 있어야 하며 인적(人的), 물질이경상(物質理經常)의 자력(自力)있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려면 바카스 신(神), 이태백처럼 술 담배를 즐겨해야한다 하셨다.

아버지의 애주, 애연 때문에 순천 중앙교회에 다니시는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주 다투셨다.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 가셨다. 그때 찬송에 ‘아 마시지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 받기는 금주(禁酒)안에 있느니라.’ 라는 게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술을 즐겨 외국인 선교사가 지은 찬송이라 하셨다. 성경 원저에 ‘독주를 마시고 기뻐 노래하시며 춤추라’ 하셨는데 실로 어처구니없는 찬송이다.

아버지께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셔서 지계를 메고 나무를 한 짐 해 오셔 앞마당에 넣어놓으셨는데 나는 빨간 멧감을 많이 따먹었다.

6살, 1.4후퇴(1951년)때 목포모자원으로 이사하였다. 전쟁의 잔재 쓰레기더미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가 지금도 생생하다. 어머니께서는 나의 손목을 잡고 미국인 선교사가 트럼본을 불며 선교하시는 공터로 데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거지들

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여주셨다. 식사시간에는 꼭 어머니께서 앞에 나오셔서 감사기도를 유창하게 하셨다. 외국인 선교사에게 배웠던 한·영·중·일어 4개 국어로 ‘나는 기뻐요’를 원아에게 가르쳐주시고 여러 가지 유희와 노래를 가르쳐주셨다. 친구와 유달산의 오포산으로 놀러가 친구가 뒤에서 밀어 거꾸로 바위로 떨어져 왼쪽머리가 박 터져 많은 피를 흘렸다. 4288(1955)년 3월 목포 중앙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어머니께서 형겅으로 재봉틀로 만들어주신 가방을 메고 다녔다.

6월 구 광주시청에서 사직공원 사이에 있는 불로동의 인성모자원으로 이사하였고 광주 서석국민학교로 전학하였다. 4293(1960)년 6학년 초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한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31사단 주위 산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이 있었다. 명문교인 광주서중학교에 입시 준비하기 위하여 광주서중, 광주제일고등학교에 가 광주학생독립운동탑을 보았고 비문에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를 보고 성경전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와 상통함을 받았다.

4293(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 대결로 선거가 임박했다. 남향병원 벽에 선거벽보가 붙었는데 누가 이기봉 부통령 후보 사진 선거벽보에 바보라고 써놀아 자유당원이 그 위에 다시 벽보를 붙였다. 갑자기 조병옥 박사께서 황사하셔 일반 대가들 사이에 ‘가려다 떠나려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자유당에 꽃이 피고 민주당에 비가 오네’라는 유행가가 널리 불려졌다. 3.15부정 선거가 행해진 것이다. 내가 다니는 광주 서석초등학교 옆의 광주공고와 앞의 광주여자고등학교가 술렁거렸다. 친구 이준성과 1학년 때부터 달나라 별나라 ‘진또리’ 놀이하던 사직공원으로 가보았다. 많은 시민들과 고교, 대학생들이 이승만대통령의 독재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우리들을 가까이 와서 들으라며 대학생들이 말해 가까이 가서 들었다. 이승만대통령보다 밑의 아부하는 여당 측과 정치 강패들의 소행이라고 하며 부산 임시수도 당시의 사사오입 선거와 부정선거 등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전국적인 4.19의거가 개시되었다. 담임선생님께서 집에서만 있으라며 모든 학

생들을 일찍 귀가시키셨다. 나는 이준성 친구와 같이 전라남도청 앞으로 가 시위대의 뒤에 따라 다니며 구경했다. 한 대학생이 도청 입구 옥상에 올라가 ‘전라남도 지사 XXX는 도민에게 사죄하고 물러가라’고 외쳐댔다. 금남로 1가 도로에서 광주경찰서를 향하여 시위대들이 돌을 던지곤 했다. 갑자기 소방서 차가 밀어닥치더니만 물을 뿜어대었고 광주공고생 수 명이 금남로 우측 도로로 들어가 소방서 차를 빼앗아 역 공습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영신원 간호원 재직 중 영아, 어린 고아가 병들어 아프면 날이 새도록 한숨 주무시지 않고 간호하셨고 그 무더운 여름날 애를 안고 지정병원에 쫓아다니시며 극진히 보살피셨다. 생활난이 극심해 동생 종철이는 새벽으로 신문 배달을 시작하였고 나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중노동(건축 노동)을 하였다. 인철 형님은 학군간부후보생 시험 준비를 하셨다.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수업과목인 유도를 열심히 닦았고 강당에서 태권도도 수련했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급우들과 함께 선수생활은 못했지만 열심히 야구와 축구연습을 계속했다. 고교 2학년 체전 때 영화에서 본 ‘달타냥과 삼총사’를 생각하고 전남여자고등학교 강당 펜싱경기장으로 가 예쁜 여고생이 새하얀 펜싱 도복을 입고 프러레 경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채, 이상호 후배에게 펜싱을 배워야겠다고 말하고 귀가하여 어머니께 여쭙니 옛날 서양 무술이어서 전쟁 놀음이긴 하지만 멋진 운동경기이니 해보라며 5,000원을 주셔서 경기용 프러레 펜싱 칼과 운동화를 사고 총장로 입구 의상실에서 도복을 맞춘 후 금성여객 옆 태권도장을 겸한 펜싱도장(광주천 광주체육관)에 등록하여 프러레, 에페, 사브르를 수련했다. 성태극신원기(聖太極神元紀) 4299(1966)년 가을 광주일고 동창 친우 전성철의 형 전홍준 형이 반공법으로 당시 전남여고 옆 교도소에서 수감소에 생활하다 출소하자 친우 이상국과 함께 가 맞이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광주서중 2학년 때 소련에 ‘콤비나트’라는 수출공업단지가 있어 공산 사회주의 국가끼리 교역한다고 배웠다. COMBI란 친구란 뜻이며 Combination은 협동(協同), 연합, 조합(組合)이다.

광주일고 3학년 여름방학 다른 학우들은 대학 입시준비 학업을 하는데 입학금과 학비를 조달할 능력 없는 우리 가정생활을 파악한 나는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건축 중노동으로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김인철 형님은 육군간부후보생으로서 훈련 중이었다.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학생 이상채, 박학모 등의 제의로 우리는 쌀과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 남해안 피서 겸 순방에 나섰다. 고흥, 녹동을 거쳐 도선을 타고 소록도 해수욕장에서 3박 4일 동안 피서 생활하고 이름 모르는 섬으로 향하였다. 그 섬은 걸 부분만 민가 촌락이 있었고 중앙 부분은 황량한 공터였었다. 나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3,000여개의 섬이 있다고 들어 어렸을 때 만화에서 본 과수원과 목장, 농장이 있는 협동촌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결코 좁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극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한 에스키모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합하고 대한민국 영토로 하면 안 될까 생각하고 있다.

집에서 교과서를 모두 도난당한 나는 옆 교실의 학우들에게 빌려 수업하긴 했어도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옛글 고문만은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좋았다.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또 노동의 삿으로 동생 종철이와 광주 제일극장에서 상영하는 외국영화는 거의 빠짐없이 보았다. ‘스파르타쿠스’는 두 번 보았는데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파르타쿠스(커크 더글라스)가 적어 억지로 시킨 결투에서 토니 커티스를 칼로 찔러 죽이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내 사랑 안녕, 안녕, 안녕’하고, 안녕이라는 말을 세 번하고 뒤돌아보며 떠났었다. 후편 ‘스파르타쿠스의 아들’에서 복수를 하다 마지막에 잡혀 십자가형으로 적군이 처하려고 하자, 수많은 민중이 모여들자 결국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못하고 영화는 끝났었다.

영화 ‘벤허’에 우리와 다름없는 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아들, 딸 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매고 가는 모습과, 채찍질 당

하는 모습과 벤허가 물을 먹여주는 장면이 나온다. 십자가에 매달려 온 몸의 피와 물을 흘려서 비가 와, 작은 산골짜기 물이 빗물에 섞여 흐르는 장면과 성태극 부모신 하나님께서 번개와 뇌성 치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이 죽을 때 벤허의 모친과 누이동생의 문동병을 주 하나님께서 완치시켜주신다. 깊이 생각해보면 원수란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미운 것이 없다. 다투었다가도 남녀를 불문하고 막걸리, 소주 한잔 나누면 정다워지고,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만나면 반갑고 좋은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 부터의 속담이 있다.

광주제일고 나의 3학년 1반 복도에서 생각에 잠겨있을 때 멀리서 기적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아, 나도 이젠 학창시절도 끝장이구나. 언제 생활난이 풀려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와 행정대학원에 진학하여 철학박사 정치학 박사가 되고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어 또 종교계에서 들은 정치적 예수가 되어 남북한 평화통일을 이루고 남이장군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여 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을는지... 우선 생활난 해결이 중요하니까 건축 중노동 일하면서 5급 행정직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생활을 해야지 마음먹었다.

4300(1967)년 3월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학2동에서 방림동으로 이사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고아들에 대한 지나친 희생봉사로 약간의 정신질환이 생기고 몸이 허약해지셔서 영신원 간호원직을 그만두시고 방림동에 조그마한 상점을 전세로 얻어 나와 함께 새벽 4시에 양동 채소류 공판장에 나가 무, 배추를 사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 소매를 하였다.

나와 동생 종철이는 조선대학교 부속공업전문학교와 본관 수리공사 또 부속병원의 건축 중노동 노가다를 하였다. 조선대 본관 수리공사 하는데 모래등짐을 하고 맨 윗층까지 지고 올라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으나 내려올 때는 양다리가 풀리곤 했다. 저녁에는 이상국 친구의 동생 이상호 군과 함께 광주공원 근처의 광주체육관에서 등록하여 권투를 열심히 수련했다. 내가 샌드백을 박력 있게 두들겨 치면 모두 놀래곤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 새벽 조깅은 하였다.

조선대학교 앞 서석동으로 이사하였다. 나는 부속여중고의 노가다를 계속하였

고 어머니께서도 벽돌 깨는 작업을 하셔서 생활을 겨우 영위해나갔다. 종철 형님이 소위로 임관되고 상무대 교관이 되어 밤새워 이튿날 강의 공부를 하셨다.

이즈음 조대 앞의 민가를 조대에서 매입한다고 하자 주민들은 반대를 했으나 민가 옆에 쓰레기 더미를 싸고 부속고등학생들이 민가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을 강제로 헐다가 떨어져 한 학생이 죽었다(?)고 들었다.

국가 5급 행정직과 지방 5급 행정직 시험에 합격했으나 국가직은 면접시험 때 군 미필에 대한 대답관계로 불합격하고 지방직만 합격하였다.

나중에 월남전에서 전사한 김길동 군의 형과 노가다 노동자와 함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해태(김) 화입공장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갔다.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의 아들 완도수산고교생 박학모를 만나 그 집에서 숙식하며 일하였다. 같이 수채화 그림도 그리곤 하였는데 역시 소문대로 완도 아가씨는 남자처럼 거세었다.

어머니로부터 승주군 발령 전화가 와 즉시 귀가하여 승주군청으로 갔다. 별량 면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친 이숙은 아니지만 이승옥 이숙께서 힘 좀 썼더라면 군청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섭섭해 하셨으나 나는 맨 밑바닥 기초행정부터 배우는 게 훨씬 낫다고 위로하며 별량 면사무소로 가 산업계 수도작(미곡), 잠업 등을 맡았다.

4300(1967)년 8월 10일이었다. 숙소를 별량면 장터 경향신문 별량지국장 이을 열 씨 덕에 정하고 숙식을 했으나 한 푼이라도 더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갓다드리기 위해 면사무소 숙직실로 옮겨 급사 정병천, 이하노 군과 함께 자취생활을 계속하였다.

담당 리는 운천 송학리였다. 담당 리 출장 나가 송학리 송정부락의 내 또래 남녀 청년들과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과 소주를 마시며 유행가를 같이 불러댔다. 나는 이들에게 'All for the love of the girl'을 가르치며 모든 남녀는 한사람만을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해주었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Un kiss me guide...'를 가르치며 남녀 간의 아가페(신의 인간에 대한 지순한 사랑과 인간 남녀 간의 지순한 사랑) 사랑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내 숙소로 담당 부락 처녀들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운천리 신천부락 양동옥 군의 여동생은 퇴근 무렵 면사무소 앞에서 기다려 같이 그 집으로 가 잠자고 나면 그 처녀가 새벽에 동동주를 한 뒷박 갖다 주어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곤 했다. 얼큰하고 기분 좋은 심신으로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급사 정병천 군은 동료 직원 송양에게 둘이 다 슷총각 슷처녀이니 잘해보라고 했으나 그냥 둘이 웃어버리고 말았다.

중 2때부터 영화 ‘가스등’의 잉그리트 버그만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상반신을 인물화로 그려온 나는 웬만한 처녀는 마음에 들지 않아 연애도 한번 못해보았다.

지금의 광주직할시 서구청인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기반행정 연수를 갔다.

바둑을 둘 줄 아는 연수생끼리 기우회를 만들어 바둑대회를 하여 내가 1등을 했다.

기초행정 연수 수료 때 해프닝이 일어났다. 분명히 우리 연수생이 잘 알고 있는 성적이 가장 우수한 연수생이 따로 있었는데 전라남도청 직원이 수석을 했다. 연수생인 한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였다. ‘권력 배경이 없는 행정고시 합격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연수원에 발령이 나고 그 여파로 돈푼이나 쥐어주고 권력 배경 있는 연수생에게 수석이 간다.’고.

수료 후 돌아와 근무하는데 추곡수매가 있었다. 농민들이 수매가가 너무 낮고 등급을 농협에서 잘 주지 않는다고 수매를 꺼려해 상부의 지시로 우리 면직원에게 돈을 몇 십 만원 주어 수매하게 했다. 별량면 농협 직원들이 먼저 중량을 재고 등급을 매기는데 상부직원의 지시대로 등급을 매겼다. 그리하여 나는 3만여 원의 억지 손해를 보았다. 담당리 별로 성적이 나쁘면 인사 조치한다는 강력한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미리 준 돈으로 우리 면직원들이 사전 수매한 것이다.

장터에 남영회집이라는 창녀 술집이 있었는데 상관 박종범 산업계장이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갔다. 나는 즉시 나와 도망쳐버렸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계장이 숙직했을 때 면사무소 건물이 불타버려 호적부까지 모두 건지지 못해 많은 애를 먹었다고 했다. 불교의 인과응보 원리를 새삼 실감했다.

농협 직원들은 수당이 많은데 수당금액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 직원들은 통통 살찌있었고 면장, 부면장을 제외한 우리 면 직원들은 빼빼 말라 있었다. 그런데 유독 창고를 맡은 직원은 횡령을 분명히 해 통통 살찌있었다. 나는 지금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덕정리의 전 면장을 지낸 사람과 그 동네의 주민들 추진으로 운천저수지를 쌓게 되었다. 그 건 때문에 내가 담당하는 운천리와 송정리 장터 부락의 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게 한다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어쩔 수 없이 한 무덤을 파 이장하는데 빼만 남아있고 육체는 썩어있었다. 물어보니 오래된 조상이라 했다.

해당 주민들 - 어린이까지 - 이 ‘노령의 큰 산줄기 타고 내려라’ 라는 ‘전남의 노래’를 부르며 별량면사무소 건물 주위를 횡불을 들고 돌며 시위하였다. 군 입대 영장이 나와 입대하느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는지는 모르겠다.

4302(1969)년 머리를 미리 뺨뺨 깎고 퇴직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버리고 한 푼 없이 광주 3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이어서 훈련 마치고 몸무게를 재보니 형편없었다.

4303(1970)년 국방부 본부에서 온 해군 소령이 열댓 명을 호명해가 나는 아이큐 테스트를 받고 국방부 본부 영문 타자병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일병 봉급과 함께 수당은 상당히 많이 받았다. 김포 예하대에서 복무하게 되어 애기봉에 올라 북한 땅을 보게 되었다. 오른쪽 산에 대남방송 대형 스피커가 있었고 왼쪽에는 수십 채의 기와집과 협동농장이 있어 한복을 입은 주민들이 밭을 일구고 있었다. 사유 공유재산을 인정하는 협동촌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보지 못해 못내 안타까웠다.

여름휴가를 얻게 되었으나 장질부사인가 괴질이 전국을 휩쓸어 휴가가 취소되어 매우 섭섭했다. 가을 첫 휴가 명령을 받아 어머님과 형님께 인사드리고 순천 매곡동 이승옥 이숙(친 이숙은 아니고 지금 아내의 친고모 덕이며 순천 옛 안록산병원에서 같이 간호원으로 근무하며 어머니를 언니라 불렀던 김정애 이모)덕으로 갔다.

“순자야 오빠 왔다. 안방으로 모셔라.” 하시며 반가이 맞아주셨다. 김순자(현재

의 아내)는 안방에서 쉬고 있는 나를 보고 호감을 느꼈는지 가까이 오더니만 “저
여기 고모집에서 경리를 보고 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일곱 딸
중 맏딸인데요 오빠도 없고 남자동생도 없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되어주시겠어요?”해, 나는 깜짝하고 예뻐 보여 “나도 누나도 누이동생도 없고 삼
형제뿐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다. 오빠가 돼줄게.” 했더니 환호작약하
며 “오빠, 무슨 김씨여요?” 해 나는 “김녕김씨(金寧金氏)란다.” 하니 “에이, 나와
같이 광산 김씨면 좋을 건데.”하며 서운해 했다.

사금융을 취급하며 순천 농전 교수들의 모임처이기도 한 집이다. 대청에 축음
기가 있어 그때 유행한 은희의 ‘꽃반지 끼고’를 배우려고 음반을 끼우고 서너 번
들어도 못 부르니까 “에이, 오빠는. 나는 두세 번 듣고도 배워버렸는데 오빠는
서너 번 듣고도 못 배워요?” 하며 핀잔을 주자 나는 어리벙벙해 할 말을 잃고 깜
짝하고 똑똑한 애구나 싶었다.

순천농업전문학교 교수들이 와 바둑을 두며 “순자야 너는 언제 시집갈래?” 하
자 “에이 나는 시집 안 가고 아빠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해 “시집 안 간다는
애가 빨리만 가더라.” 해 얼굴이 새빨개지며 “나는 안가요. 칠공주 뿐이고 맏딸
인데요.”라고 순자는 응수했다.

맨 처음 둘이 상봉했을 때 나는 23살이었고 김순자는 17살로서 여섯 살 차이
다.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간 순자는 내게 “오빠 우리 세광교회의 손세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श्य요.”해 “그
래 가서 인사드리자.”며 같이 걸어가는데 나의 오른쪽 편에서 기뻐서 토끼마냥
뛰어가는 김순자가 펅 귀엽기만 하였다. 세광교회는 그때 연탄공장 한구석 마루
방에 있는 개척교회였다. 손세진 목사님도 주 하나님의 뜻으로 인연 맺어진 우리
오빠 누이동생 사이를 축복해주셨다. 귀가하여 미용실 위 옥상에서 한밤중에 별
을 가리키며 주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이튿날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귀가하여 김인철 형이 육군 중위여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나는 동생 종철이와 함께 조선대 부속 의대병원 건축의 철
근 노가다 일을 하였다.

귀대하여 김포 수참교회에 다니며 주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얘기해 주었으나 모두 비웃어 잠정기간은 일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수참교회 교인 중 많은 북한 피난민이 있어 초대받아 한 신자의 가정에서 북한에서는 이런 만두 떡국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고 써어주어 맛있게 먹었다. 정말 일미였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밤잠을 자지 않고 내무반에서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을 만들어 외출 외박 시 미용학원 등 각 학원과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팔았다. 의누이동생 김순자에게도 보내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빠짐없이 다 보냈다. 상당한 돈을 벌어서 우리 내무반에서 저녁에 난로불에 라면을 많이 끓이고 막걸리를 사와 늦도록 노래를 불러댔다.

12월 22일 조선대학교 졸업하신 공군 정청대위의 부탁으로 식당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 십자가를 벽에 붙이기 위해 커다란 켄트지에 그리는데 어찌나 춤던지 파레트의 물감 물이 얼어붙어버리고 손이 곱아, 소주를 탄 듯이 독한 김포막걸리 3되와 짬뽕을 시켜 계눈에 마파람 감추듯이 먹고 마셔버리자 추위를 이길 수 있어 대 식당을 멋지게 장식하여 크리스마스이브에 부대장과 장교, 하사관들이 날 새도록 연회를 하였고 우리 사병들은 내무반에서 노래자랑을 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던 최무룡의 ‘꿈은 사라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 고향 남쪽바다’ 등 명곡과 랩댄스를 추면서 ‘하바나 길라’를 부르고 팝송과 내가 아는 가요를 날 새도록 불러대 내무반원을 즐겁게 했다. 지금 경상남도 합천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문교부로 승진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 별명 ‘찌꺼’ 김재묘 군과 어찌나 많이 막걸리를 많이 퍼마셨던지 막걸리 대장들이라고 우리를 평했다.

우리 김포 국방부 예하부대가 대구로 옮기게 되었다. 외출 외박 나가면 화원유원지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날을 지새웠고 중앙공원, 달성공원, 동촌유원지 수성 못에서 명곡을 틀어놓고 앞을 해야 할 일을 정리 계획했다.

새벽 일찍 경주 토함산을 올랐으나 동해 일출을 못 보았고 사진에 담기지 않았다. 석굴암의 실상과 다름없는 신기의 조각을 보고 감탄했으며 돌아올 때 피리를 불며 앉아서 구걸하는 걸인의 그릇에 백 원짜리 주화 몇 닢을 넣어주고 시비 앞

에서 동료와 사진을 찍어 사진을 보내달라는 의누이동생 김순자에게 보내주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이 사진을 보고 지금의 장인어른과 지금 아내의 친고모 김정애님은 우리 둘이 결혼할거라 했다며 나의 말사위라고 하셨다고 들었다.

경주 불국사에 가보았다. 석가탑의 수려함과 다보탑의 정교 화려함을 눈으로 살폈고 석가탑은 백제의 도공이 가서 조각하여 만들어 그 도공이 귀향하지 않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탑의 못에 달이 비칠 때까지 기다리다 못해 빠져죽었다고 배웠는데 그 탑 앞의 못은 없었다. 안압지와 첨성대 등을 보았고, 옛 궁궐터는 정리하고 있었다. 옛 백제는 왕인박사 등 일본에 많은 문화를 심어주었는데 왜 유적이 빈곤하고 하며 그 무엇인가에 원망이 갔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놀았던 전라남도청 앞의 탑이 몇 있고 옛 기와집이 있어 백제 옛터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었는데 웬걸 지금은 상무관과 전투경찰대 터가 되어버리고 일부 옛 기와집만 남아있어 한스러웠다. 이제 곧 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백제 유적과 곧 올 남북한 통일 후의 고구려 유적을 발견해 내겠지만.

외박 증을 받아 사진기를 매고 관동8경과 단양8경 유람에 나섰다. 맨 먼저 포항 해수욕장에 가 귀여운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고 영일군 보경사를 거쳐 서너 곳의 아름다운 폭포를 사진에 담았다. 양양 낙산사에 가 여인숙에서 일박하는데 어찌나 파도가 바윗돌 언덕을 때리던지 그 파도 부서지는 소리에 한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동해 일출의 장관을 사진에 담으며 대자연신의 위용에 넋을 잃었었다. 경포대에서 일출을 보았는데 연못의 달은 보았으나 애인이 없어 아름다운 여인의 눈과 술잔의 달은 보지 못했다. 사임당 신씨의 유적을 보고 단양8경의 도담삼봉을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영생복락을 뜻함)을 거쳐 나는 귀대하였다. 그러나 이 귀한 사진 앨범은 훗날 종로독서실에서 분실했는데 누군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4305(1972)년 11월 30일 제대하여 육군본부에 신고하고 향토사단인 광주 31사단에서 예비군복을 입고 귀가하였다. 어머님과 형님께 인사드리고 서경자 영신원장 이모님께 인사드리니 많은 돈을 벌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매사에

신중을 기하라 하셨다.

나는 광주 산수동 5거리 광일종합목장에 가 진재량 사장께 얘기 드리니 광주제 일고 김종대 교장선생님과 친구라며 사무 일을 보라 하셨다.

그러나 나는 때가 되면 협동촌 농·목장 일을 생각하고 잡부로 일하겠다고 고집하여 허락을 받았다. 지게질도 배우고 사료 분쇄기와 사료 섞는 일,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지독한 악취를 마시며 퇴비를 걷어내는 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된 중노동이었다.

진재량 사장님께서서는 조선대 부중 음악교사로서 부인과 부업으로 닭을 길러 부업소득이 월급을 상회하자 퇴직하고 이 목장을 마련했으며 비아와 무등산 중턱에도 목장을 가지고 계신다며 어미닭이 알을 품는 듯 하는 그런 정성이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셨다. 일이 너무 고되어 감기 몸살을 앓아 사모님께서 약을 사주셔서 하루를 드러누워 있었다.

어머님 말씀대로 맨 밑바닥에서의 빈민생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 한국일보 경향신문 명동보급소에 배달원으로 들어갔다. 우선 잠자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총무 하라는 걸 뿌리치고 배달원으로 일했다. 담당구역은 견지동, 인사동, 화신백화점, 옥류장 부근이었다.

군 복무 시 인천에 '엘로우하우스'라는 공창가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군 외박시 잠 잘 곳이 없어 동료가 창녀집에 가면 500원이면 잠만 잘 수 있다고 서울역 앞 양동(지금은 죽림동으로 바뀌었다)으로 데려가 잠만 자려는데 어린 처녀가 들어와 같이 자자고 강권했으나 우리들은 잠 잘 곳이 없어 왔다고 거절하고 나는 그 어린 창녀에게 팝송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느냐 물으니 고향은 전라도인데 일자리가 없고 생활이 너무 궁핍해 보따리 들고 무작정 상경하였는데 서울역전에서 강패들과 펌프에게 잡혀가 윤간을 당하고 팔려왔으며 집으로 갈려고 해도 펌프 조직과 억지 계와 옷가지와 억지로 사게 한 살림살이 때문에 귀가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내가 듣기로는 창녀들이 밑은 허락하되 장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날을 학수고대하며 입술과 유방은 주지 않는다던데 정말이냐고 물었

더니 정말이라고 토로했다. 대구에 있을 때 파악한 것이지만 대구시에도 자갈마당이라는 창녀촌이 있다고 들었었다. 전국 각 역전에 거의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내가 신문배달하면서 파악해보니 옥류장 큰 술집의 아가씨들도 술을 팔고 저녁에 남자와 같이 나가 밤새 몸을 팔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청하는 것을 매일 보았고 종로 2, 3가의 술집아가씨와 봉급을 적게 주는 다방 레지들도 생활 영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판다는 것이었다.

5.18광주의거 전에 본 책 '8억인과의 대화'에서는 중국에 일체 창녀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내가 정치가가 되면 창녀촌을 모두 합리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선조와 부모의 교육과 자기 계발적인 수양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카톨릭의 신부, 수사, 수녀와 비구승, 비구니의 독신 생활에 대한 수양을 파악하게 되었다. 모든 남녀는 절대 순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새 시대이니 종교계의 독신자는 좋은 반려자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종교생활을 하며 본영훈육신으로서의 영생복락생활을 하며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해보니 거의 모든 신문보급소의 입구에 총무, 배달원 모집(숙식제공)을 붙여놓고 계속 모집만 하여 견습 총무에게 200원의 점심 비용을 주고 확장, 수금, 강투정리(신문을 강제로 넣어 강제로 신문대를 받아내는 수법)를 시켜 배달원을 흑사(노동력 착취-신문배달원은 거의 중고교 학생이었는데 새벽 4시부터 배달하고 하교한 후 견습총무들이 데리고 다니며 위와 같은 일을 같이하고 실적이 좋은 총무만 정식총무로 채용하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요일에 배달원들을 모아 낙원아파트 지하시장에서 쌀, 고추, 된장, 김치를 사가지고 팔당댐, 덕소 등으로 버스 타고 가 술집에서 술 한말 사고 2,000원을 맡겨 술단지를 빌려 산골짜기 개울물 옆에서 밥해먹고 막걸리 모두 몽땅 마시게 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열을 올리다 모두 윗도리를 벗게 하고 겨울 추위에 아랑곳 아니하고 등물을 하게 했다. 대자연에서 술 마시며 캠프파이어를 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것과 주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영생복락생활 하는 것 보다는 못하겠

지만.

나는 수석총무 오호석 - 명동 광패 출신 - 에게 정당한 보수와 정당한 작업을 요구하자 갑자기 나의 목을 두 손으로 죄이며 머리로 나의 얼굴을 두 번이나 들이받아 코피가 터져 벽에 핏자국이 남자하였다. 나는 같이 싸우려다가 중국의 한신 장군을 생각하고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비리를 제거하리라 마음 먹고 보급소를 나와 버렸다. 중국의 한신 장군은 적군에 붙잡혀 적군 장수의 양다리 사이를 기어가라해 굴욕을 참고 앞으로의 때를 기다렸던 지덕체의 소유자였다.

일세를 풍미하는 대 문호가 되겠다고 홍익대를 졸업하고 이 곳에서 신문배달을 하고 있는 유재영 군이 종로독서실로 가면 침실이 있고 학습도 할 수 있어 좋다면 옮기자며 같이 옮겼다.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나는 유재영, 박지영 군과 함께 리어커를 한 대 사 낙원아파트 2층 제일은행 입구에서 청과물 장사를 하면서 신문팔이를 시작했다.

용산시장 청과물 공판장에서 굴, 사과, 배를 떼어다 리어커에 진열해놓고 셋이 교대하면서 팔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일보의 일간스포츠를 31빌딩 앞에서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각 회사의 직원들에게 팔았다. 파고다(탑골)공원을 내 터로 잡고 옛 항일독립투사였었던 노인네들이 많이 와 정치시국을 논의하고 있어 귀담아 들으며 동아,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팔았고 비 오면 신문뭉치를 상점에 맡기고 비닐우산을 개당 50원에 받아 100원에 팔았다.

4306(1973)년 26세 때였다. 동생 종철이가 제대하자 나같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적당한 직장을 찾았다. 종로2가 한 악기사에 종업원 모집 공고가 붙어있어 같이 들어가 주인과 대담하니 동생에게 기타를 칠 줄 아느냐 해 종철이가 어느 정도 능숙한 솜씨로 기타를 쳤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라 해 기다리니 이력서가 봉투에 담겨 그대로 반송되어왔다. 전라도 출신이어 거부당한 것이다.

종철이가 고생하더라도 같이 신문팔이하고 싶다 해 같이 종로1가 종각다실에서 부터 시작하여 청계천6, 6가 까지 각 다방을 드나들며 또 남대문,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에서 팔았다. 평화시장은 의류를 직접 만들어 소매를 하는 곳이었는데

주위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청계천5, 6가 근처에 지금의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650번지 광천시민아파트같은 빈민아파트가 서너 채 있었다. 모두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해야 할 아파트였었다.

종로독서실에 광주 서중 일고 동창생 박서혁 군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에 다니며 외무고시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동생이 석산에서 중노동하며 형의 학비를 조달해주고 있었다. 나의 뜻을 잘 이해해준 박 군은 파고다공원에 와서 나의 신문을 팔아주며 옛 항일독립투사의 무용담을 같이 귀담아 들곤 하였다.

이야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분이 구수한 이야기를 하고 모자를 벗어 한바퀴 돌면 청중이 동전을 넣어주곤 하였다. 한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머잖아 우리나라에 무진장한 석유가 나와 우리나라 삼해(三海)에 외국 유조선이 가득 메워질 거라 하였다.

주 하나님의 성경 계시임을 간파한 나는 즉시 경동교회에 나가 “주 하나님 나의 때가 되면 내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확립과 남북한, 중화민국, 독일의 완전 평화통일과 세계 완전평화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리어커를 한 대 더 사 동생 종철이와 함께 청과물 장사를 했다. 동대문시장 앞 시계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길거리에서 리어카 장사나 보따리 장사를 못하게 단속하는데 유독 시계 골목의 시계장사는 단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달 돈을 모아 파출소에 바친다고 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동생 종철이랑 샌드위치를 굽고 커피를 끓여 새벽부터 팔기도 했다. 이때부터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여 종로구 인사동 독서실 학생을 대상으로 밥집을 하는 집에서 숙식하며 주인 할머니의 권유로 100만원 계에 들었다. 종로독서실에서 영어 학습할 때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달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학습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즉시 계단을 내려와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을 들었다. 허기가 가시고 몸이 뜨거워지며 정신이 맑아져 영어 학습 할 수가 있었다.

4309(1976)년 초봄, 의동생 김순자와 종로독서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친구 박서

혁 군이, 또 리어카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누구냐고 물어 삼은 의누이동생이라고 말했더니 모두 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여동생이 있으면서 결혼하여 맞벌이 하면서 같이 살지 혼자서 이 고생을 하냐고 해, 나는 너무 어려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해 버렸다.

그동안 우리 둘은 손을 마주잡고 비원, 경회루, 경복궁, 덕수궁, 어린이 대공원을 같이 걸었다. 어린이 대공원의 한 전시장에서 벽에 그려진 은혜를 갚은 개미를 보고 그 내용과 뜻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었더니 김순자는 “오빠는 모르는 것이 없네요.” 하였다.

남산에 올라 긴 의자에 앉아 생각을 하였다. 내 나이 벌써 29세인데 밑바닥 생활에 대해 무엇을 더 배울까 곰곰이 생각했다. 주위에서 권하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누이동생 김순자가 생각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7년 동안 처음 만났을 때 은혜의 ‘꽃반지 끼고’의 노래가사처럼 손잡고 같이 유명 처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정말이지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김순자가 꼭 자살해버릴 것만 같았다. 7년 동안 연애 비슷하게 함께 했는데.

명동 코리아극장에서 ‘러브 스토리’ 영화를 보고 원저자 에릭 시걸의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고 말 할 필요도 없는 것, 사랑이란 결코 용서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그래 AGAPE사랑(신의 인간에 대한 지순한 사랑, 인간 상호간의 지순한 정신적 사랑)과 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말해주었고,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십자가를 사 목에 걸어주고, ‘토마스 하디’의 순결한 처녀 ‘테스’도 건네주며 언제까지나 절대 순결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년 동안 오빠, 누이동생 하며 지내온 것을 연애로 생각하자. 그리고 결혼하여 어렸을 때 만화에서 본, 과일이 풍성하게 열린 농장과 온갖 짐승이 뛰노는 목장, 무진장한 식량 자원이 있는 바다 근처에 사랑의 협동촌을 건설하자고 계획했다.

이즈음 수년간을 김순자는 나를 이성의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중에야 파악했다. 김순자는 김종도 외과병원에서 또 기원에서, 동아일보 보급소에서 경리

를 보아왔었다. 한때는 내가 찾아가면 “오빠 지금 오십니까!” 하고 깍듯이 존대어를 써, 나는 “순자야 오빠에게 그렇게까지 존댓말을 쓸 필요 없다. ‘오빠 지금 오세요?’ 그래.” 했다. 찾아가갈 때마다 어쩔 때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내게 잘 보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한 것 같았다. 즉시 찾아가 “우리 7년간 오빠, 누이동생 했던 것을 연애생활로 간주하고 결혼하자.” 말했더니 멍청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튿날 나의 숙소에 당장 편지가 날아들었다. 한숨도 잠을 못 이루었다는 내용이었다.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하고 있노라니 누가 내 등에서 어깨를 껴안아 뒤돌아보니 김순자였다.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싶어 꼭 껴안아주고 뽀뽀해주었다.

얼마 전 나는 영아원 영신원장 서경자 이모의 성화로 제51차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를 이수했다. 상향식 민주방식 협동조합의 진수임을 깨달은 나는 회의진행법, 토론법, 능력개발 등 많은 것을 배웠다.

“순자야, 네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으러 가자.” 하고 친구 박서혁 군이 빌려준 양복을 입고 전남 승주군 별량면 무풍리 무선부락으로 같이 내려갔다. 김순자의 부모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승낙하셨다. 그리고 저녁 무렵 같이 한방에서 자라고 하셔 나는 깜짝 놀라며, “우리 둘 다 슷총각 슷처녀인데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침하다니요?” 하니까, “괜찮다”며 같이 자라고 하셔 같이 들어가 누웠다.

우리 둘 다 첫 경험을 한 것이다. 순자가 처녀성을 잃었다고 훌쩍 훌쩍 울어 나는 깜짝 놀라 두 뺨을 가볍게 때리며 남녀사이의 성교는 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기쁨의 실질적 표현이며 자손을 영원히 이어나갈 거룩한 성교(聖交)라 해 겨우 달랬다. 이 첫 경험이 동방의 등불 김동명을 잉태할 줄이야. 이튿날 상경한 우리 둘은 각자의 직업전선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4309(1976)년 2월 순천중앙교회에서 주최, 협동교육연구원 주관, 전남협동개발원 후원, 신용협동조합 전남지구 평의회로 제52차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가 개최됐다. 나는 동생 김종철과 김순자를 이끌고 내려가 김순자 고향 무선부락 청년들과 함께 강습회를 이수하게 했다.

서울에서 100만 원 짜리 계가 깨져버려 겨우 7만원을 받은 나는 결혼기념으로

국한문 혼용 성경전서를 사고 나머지로 청첩장도 돌리지 않고 수료식 날 2월 28일 오후 2시에 새로 크게 지은 순천 세광교회에서 손세진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전격적으로 치러버렸다. 김순자는 김동명을 잉태한 몸이었었다.

순천만 바다를 끼고 있는 처가 마을 옆 죽전부락에 삶의 터전을 잡았다. 머슴살이 비슷하게 농사일도 하고 집짓는 일, 기와 엮는 일, 장인어른과 염전 일, 고막 치는 일도 하였다. 염전 일을 하다 너무 목이 말라 장인께서 막걸리 두되를 사오라 해 두 병을 사오다 징검다리에서 발을 헛디뎈 개울에서 넘어져 오른손목에 상처를 입어 남양의원에서 여섯 바늘을 꿰맸다. 그 흉터가 영생극락 불사조가 되었다.

보리베기, 모내기, 탈곡, 닥치는 대로 일을 해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한번은 아내가 책상에 앉아, “못나게도 이런 시골에 나를 데려와 이런 고생을 시켜요?” 하며 대들자 나는 아내의 손을 서너 번 세차게 때려주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산리 거차부락에 가보았다. 작은 항구가 있었는데 주위의 밑바닥 뺄 흙을 준설해버리면 순천만의 커다란 항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이곳에 협동촌을 만들어야지 마음먹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공책에 ‘오빠, 오빠, 오빠’ 하고 세 번 써놓고 훌쩍 훌쩍 울고 있어 전에 다정했던 오빠가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는가 싶어 안됐다고 여기며, ‘사랑합니다.’를 세 번 하자며 같이 세 번 ‘사랑합니다.’ 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준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 나는 제일 좋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갈퀴나무 하러 산에 갔다. 나무갈퀴로 낙엽을 긁어모으는데 경험이 없는 나는 돌과 흙만을 모아 소쿠리 망태에 집어넣는데 어렸을 때부터 해보았다며 아내는 잘 긁어모아 망태에 담아 역시 경험이 재산이구나 싶었다.

마산교회 청년회장이 되어 교회 앞마당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교인들은 우리 청년연합회를 결성하여 나는 음악부장을 맡아 별량 기독교청년회 연합회가를 동생 김종철의 기타 작곡으로 만들어내고 재미있게 오락 진행을 하였다.

교인들과 처가댁에서 곡식을 가져다주어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도저히 농토도 없는 우리는 생활할 수 없어 우선 이곳 생활을 청산하고 미래를 기약하며 동네

어르신, 청년들과 경주 도수 2건설공사에 나섰다.

사랑하는 아내를 추스르고 동생 김종철과 우리는 순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로 향하였다. 이튿날부터 도수로공사 전선작업에 들어갔다. 우리 청년들은 경상도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 때 배운 노래를 부르며 일하여 공사 감독과 십장들의 수입이 많도록 했다. 우리를 신임한 그네들은 나에게 야간 경비까지 시켰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하여 선뜻 응했다. 세멘돌이하며 경상도 노인이 힘겹게 물을 퍼 올리는 게 안타까워 그분 일까지 도왔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냇가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무신론자라고 해 신, 하나님의 실재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밤에 야간 경비를 같이 건물 안에서 서면서 성경전서와 성서 핸드북을 대조해가며 열심히 학습했다.

4309(1976)년 음력 8월 10일 꼭 아들을 낳을 것만 같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궁리하였다. 인도 시성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 생각나 김동명(金東明)이라 지었다. 음력 8월 13일 그 동안의 샅을 받아 쥐고 무선부락으로 갔다. 별량면 장터에서 장모께서 난산이라며 먼저 가보라 해 무선부락 입구에 들어서니 김재우가 얼른 가보라며 좋은 일이 있다 하였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아 옆에 누워있었다. 얼굴이 얼마나 청순하고 거룩하게까지 보였다. 난산이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진통 끝에 낳았다 해 일한 샅을 손에 꼭 쥐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미역국에 어찌나 많이 밥을 말아 먹던지...

전남 협동개발단 단장 조아라, 부단장 서경자, 총무 이형민 님과 교섭하여 별량 초등학교에서 별량 사회개발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별량면에 많은 교회 청년들을 참여케 하였다.

4310(1977)년 3월 전남협동개발단 간사로 발령되어 광주로 이사하게 되었다. 서경자 부단장의 권유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650번지 광천시민아파트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공공 변소도 수세식이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빈민촌이었다. 북한 피난민이 대부분인 이들은 알콜 중독자가 너무 많았다. 어린이들은 놀이터가 없어 부서진 리어카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광주YMCA 지도하에 이루어진 광천 삼화신용협동조합은 침체되어 있었다. 나는 일할 가치가 있는 곳임

을 확인하고 서경자 부단장께서 전세금 10만원을 주어 A동 216호에 입주하였다.

그냥 보수 없이 직만 맡고 있는 관리장을 만나 아파트의 내력을 들었다. 6.25동란 직후 북한 피난민과 부랑 가족들이 이곳에 천막과 판자집을 만들어 상무대에서 누룽지를 싸게 사와 끓여먹었고 학동의 천주교회에서 마련한 보리싹 식당에서 국수를 사와 연명해가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고씨라는 국회의원이 지나가다 이곳의 형편을 보고 상부에 보고하여, 광주시 건설과 주택계에서 이 아파트를 지어주었는데 처음 계약과는 달리 공동변소도 비수세식이고 하여 주민들이 거의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거대한 건물을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주지 않고 있어, 환경이 너무 악조건이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결핍된 생활을 해오고 있어 주민들이 이해성이 없고 자주 다투는다고 했다.

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정별 기초조사표를 광주YMCA 이형민 농촌 부 간사에게 받아 광천 동사무소에 가 직원으로부터 양해를 얻어 아파트 주민등록표를 모두 이기 하였다. 정정만 군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며 학력별, 직업별, 수입, 지출, 빚, 종교를 기재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학력이 너무 낮고 무식층이었다. 물적 조직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인적 조직을 하기로 하였다.

청년회를 부활시켜 내가 총무를 맡았다. 부모의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 계발교육을 위해 청년회 청소년부 주최로 매주 토, 일요일에 어린이 주말학교를 개최하여 옥상, 냇가, 들, 효광역중 운동장에서 능력개발훈련, 유희, 춤, 어린이용 건전가요를 동생 김종철의 기타반주로 계속 이어나갔다. 주민들의 관심이 우리 가족에게 쏠리기 시작하였다.

주민들과 내가 사온 염산으로 화장실을 닦아내고 삽과 칼로 요석을 벗겨냈다. 몰라보게 깨끗해진 화장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주민들은 서로 술을 사며 잔치를 벌였다. 곧 A동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A동 114호실로 옮긴 나는 광천신용협동조합의 장부 등 각종서류를 인수하여 폐품출자(빈병, 신문 등)를 어린이들로 받아 노란 출자금 통장을 발급해 주었다. 신탁 때문에 말썽이 많아 불신했던 주민들은 “애야, 그 통장 어디서 났니?” “빈병으로 저금하니 이 통장을 발급해 주었어요.” 해, 주민들이 삼시간에 많이 가입

했다.

나는 어린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워 새벽 5시에 타종한 후 어린이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불러내어 청년회원들과 함께 운동장과 아파트 주변을 청소해 나갔다. 영신원 등에서 나무를 가져와 정원 조성도 하였다. 주위 환경의 변화는 즉시 인간의 심신을 변화시킨다. 서로서로 나무를 가져와 심었다. 계속 어린이 주말학교를 개최하여 미술대회를 여는 등 어린이 정서 교육에 많이 치중하였다. 어린이의 급격한 변화는 부모 등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광천동 11통 주민 총회에서 아파트 B동의 임귀순 여사와 함께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된 나는 일부 주민들에게 언질을 주어 아파트 제값받기 토론을 벌이게 했다. 내부 복도 벽 도장(페인트 칠)사업을 결의하고 집집마다 일정 금액을 거출하여 청년회 청년들의 자원봉사로 직접 수성페인트를 사와 페인트칠을 했다.

아파트 A동 옥상에서 밤에 전등을 켜고 토론한 결과 200만 원 이하는 ‘아파트 팔지 않기 운동’을 벌였다. 40만원밖에 안되었던 아파트 값이 350만 원, 400만 원으로 꺾충 뛰었다. 주민 총소득 2억 3천만 원이었다. 전세, 월세로 작은방 살이를 하는 주민들로부터 세 값을 올려놓았다고 나는 욕을 흠씬 얻어먹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나는 아파트 개선 작업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집집마다 청년회원들이 직접 분전기를 달아 누전을 방지시켰고 여러 가지 난문제를 해결했다. 너무 가난해 부엌 아궁이에 나무를 불 지펴 벽을 그을렸던 것을 연탄아궁이로 바꾸도록 해 모두 개선했고 아파트 내에서 짐승을 못 기르게 했다. 신협이 자산이 불어나 아파트 입구 술집을 월세로 얻어 모두 개선시키고 의동생 박용준 군과 함께 간판을 멋지게 만들어 부착하였다.

광주의거 때 죽은 고아 박용준 군은 영아원인 영신원에서 자라다 무등고아원에서 거주해오다 고교를 졸업하고 광주 YWCA신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광주 YWCA신용협동조합 직원 책임자로 발령되었다. 박용준 군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곤 하여 내가 리어커를 빌려 용준이의 짐을 모두 실어와 우리의 작은방에 거주하게 하고 동생으로 삼아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하게 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어찌나 좋아하던지….

이 무렵 광주서중일고 동창 친구인 김상윤 군이 보자 한다며 윤상원, 박기순, 김영철, 신영일, 고희숙 및 관현(거의 전남대 학생이다)이 말해 이들과 함께 광천 천주교회 교리실 한 부분을 교실로 삼아 들불야학 제1기생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가르치며 배운다는 강학(講學)이라 했다. 나의 종합개발계획에도 야간 중학교 계획이 수립되어있어 같이 야학을 하기로 했다. 나는 인근 주민대표로서 격려사를 다음과 같이 했다.

“여러분의 들불야학의 새싹이 불쑥 땅에서 고개를 내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상하가 없는 똑같이 중요한 민중입니다.

우리는 3년 후의 빛내마을인 광천동과 5년 후의 빛고을 광주시와 10년 후의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을 내다봅니다.

나도 여러분 근로자들과 같이 신문팔이, 우산팔이, 리어커 청과물 장사 등 솔한 고생을 하며 민중들의 삶의 형태를 보아왔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치 확립과 평화적 자주통일과 세계 완전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수렴하여 배우고 보편타당한 합리적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복지세계사회 건설에 총 매진합시다.”

나는 특별강학이 되어 능력개발 훈련과 회의 진행, 토론법을 가르치고 세계사의 흐름을 가르쳤다.

전남대학생 강학들이 광천실험 방에 모여 나의 종합개발계획 통계 자료를 보고 광천공업단지 실태조사를 하였다. 박용준 군은 테너가수 뽕 칠 정도로 명곡을 잘 불렀고 글씨를 잘 썼으며 등사 가르방 글씨도 잘 쓰고 도장도 잘 찼다. 또한 매우 정의로웠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전의 박관현 군은 군사독재에 항거하듯이 노란 삼베 옷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으며 심신 건강을 위해 상무관에서 검도를 했다. 영어담당이었는데 수업 참관을 해보니 알파벳을 서대석 강학과 함께 춤을 추면서 가르쳤고 성교육도 재미있게 시켜 제일 인기가 있었다. 우리 옆방에서 강학들과 아파트 청년회원들이 정치시국을 논하며 막걸리를 마시곤 하였는데 박관현

강학은 각설이 타령을 제일 잘했었고 술 욕심이 나 다음으로 많았으며, 윤상원 강학은 ‘장안에 사는 안도란 놈이...’를 잘했다. 박효선 강학은 ‘외로운 저녁 홀로 일어나 창문을 여니 구름 사이로 푸른빛을 보이는 내 하나 밖에 없는 등불을 외로운 나의 벗을 삼으니 축복받게 하소서’ 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박화강 씨의 여동생 전남대 사범대학생인 박기순 강학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파트 들불야학 도서실에서 수강생인 근로청소년들과 밤을 새우고 이튿날 크리스마스에 수강생들과 리어카를 끌고 전대 뒷산으로 가 솔방울 등 야학당 난로 딸감을 해오는 등 과로하여 연탄가스가 새는 줄도 모르고 자다가 질식사하여 전대병원 영안실에 모셨다.

나는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소주 4홉을 다 들이키고 쫓아가 보니 전홍준 형 어머니께서 “너무 아까운데 어쩌까.” 하며 몸부림치고 계셨고, 온 들불야학 관계자들과 민주인사들이 모여 화톳불을 밝히고 애도하며 나라 일을 토론하였다. 광천천주교회 교리실과 전남대 사범대학 앞에서 장례식을 갖고 박기순 강학은 망월동 공원묘지에 묻혔다.

광천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이 불어나자 현재의 사무실(당시, 시민아파트 앞 가게)로 500만원 전세금을 내고 이전하였다. 신용협동조합 광주 실무연구회원들과 광천동 일대에 안내문을 뿌려 급격히 조합원과 자산이 불어났다.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반장 일, 새마을 지도자 일, 광주YWCA 신탁 및 광천신탁 일, 들불야학 일 본다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광천시민아파트 종합개발 사업으로 광주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광천동 시장을 계획하고 우편물 취급소를 계획, 또 효광역종과 광주천 사이에 있는 널따란 밭에 종합복지회관 협동촌을 계획했다. 광천시민아파트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했다. 광천신용협동조합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5.18광주이거가 발생하여 모든 계획이 중단되어 버렸다.

4312(1979)년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 데모가 일어나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씨에 의해 피살되고 12.12 군부 내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4월 14일 전두환 장군이 보안사령관 직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보부장에 취임 - 이는 법률에 위

배된 것임 - 하였고 광범한 학원가 데모와 노동쟁의가 시작되었다.

5월 초순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장군의 퇴진, 강제적 입영군사훈련의 폐지를 요구하며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가두데모가 시작되었다. 5월 15일, 5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서울 중심가에서 데모하고 5월 16일 광주에서 3만 5천명의 학생과 시민이 평화적인 햇불성회 행진 시위가 있었다.

5월 18일 일요일 광천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청년들과 회의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확대 선포, 김대중 선생과 재야인사 구속 방송이 나와 나는 즉시 일어나며 “나 시내 상황을 보고 올 테니까 계속 방송 듣고 있어.” 하고 태평극장 쪽으로 뛰어갔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도청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물론 맨 앞에는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며 군중은 도청을 거쳐 법원 앞으로 행진하였다. 전투경찰 대원들을 태운, 창문에 철망을 친 버스가 다가오자 군중들은 이 버스를 에워싸고 버스를 뒤집어 앞으려했다. 나와 친구 김상윤의 동생 김상집은 이를 말렸다.

군중들은 전투경찰대원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도청 가는 쪽 노동청 앞 아스팔트 길에 앉게 했다. 이때 갑자기 도청 쪽에서 군용트럭이 다가오더니만 공수대원들이 등에 M16소총을 가로 매고 뛰어내려 곤봉 등으로 시민들을 마구 후렷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청년을 가로막더니만 등줄기와 온몸을 마구 후렷다. 데모 대원들을 사정없이 후렷쳐 나는 골목길로 해서 귀가해버렸다.

5월 19일 월요일, 나는 직장인 광주YWCA 신협에 정상 출근하였다. 나가서 살펴보니 공수대원들이 다방에서 버스에서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을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긴 곤봉으로 후렷치더니만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 나의 아래 직원 박용준 군이 대학생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자 박용준 군은 여유 있게 비웃으며 순순히 응하자 학생이 아님을 밝힌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양서조합에서 근무하던 황일봉 군을 끌어내어 광주YWCA 현관에서 후렷치려 했다.

옆 건물에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무등고시 학원생들이 이를 보고 “야, 그런 짓하지 마라” 하며 야유를 보냈다. 나와 황일봉 군의 여동생 황수진 직원은 황군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인 것처럼 의자에 앉혔다. 공수대원들은 야유하는

무등고시학원 맨 위층으로 올라 이들을 후려쳐 밑으로 내려오게 해, 셔터를 80센티 정도만 올려놓고 이들을 기어 나오게 해 온몸을 마구 후려쳤다. (5.18광주민중항쟁증언록에 그 사진이 있음) 이를 창밖으로 보고 광주YWCA 전 직원들은 울분을 누르며 오열을 했다. 박용준 군이 “개새끼들, M16 소총만 있으면 모두 싸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나도 이에 동감했다.

광주시민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도청 앞 분수대 주위와 금남로 일대가 수만 명의 인파로 뒤덮이고 많은 청년들이 피살되어 분수대 주위 정원에 시체가 든 관 10개 이상이 놓여졌다. 나는 서울의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 임종길 군에게 광주의 상황을 전화로 알려주니까 조심하라 했다.

5월 20일 화요일, 10만 이상의 광주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 일대와 곳곳에서 데모를 했다. 금남로 1가에서 한 공수대원이 청년들을 구타하는 짓을 말리는 광주YWCA 이사인 아주머니의 등줄기를 때리려하자 나는 얼른 이사님을 모시고 사무실로 데려와 버렸다. 황혼 무렵 시민들과 전투경찰대 사이에 곳곳에서 투석전이 벌어졌다. 무등경기장에서 택시기사들이 도청의 계엄군을 밀어버리자며 택시 수백 대와 시내버스 등이 도청을 향해 진군했다. 전투경찰대원들이 물러서지 못하도록 공수대원들이 이들 뒤에서 긴 곤봉을 휘두르며 막고 있었다. 사태에 대하여 사실 보도하지 않는 광주MBC방송국이 화염에 휩싸였다.

나는 투석전을 벌이고 있는 중앙교회 앞으로 갔다. 갑자기 왼쪽 어깨의 등 쪽 불쑥 튀어나온 뼈마디가 아파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묻어나왔다. 전투경찰대원의 돌에 맞은 것이다. 고통이 심했다. 시위대들을 따라 백운동으로 갔다. 공포인지 정말 시위대들을 향해 쏘는지 총소리가 계속 났다. 시위대들은 한 주유소에서 병에 휘발유를 담아, 구시청과 도청 사이에서 전투경찰은 시위대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아대고 돌을 던지고 있었고, 시위대들은 이에 맞서 화염병을 던져댔다.

나는 몽둥이를 든 남녀 고교생과 방림동 독서실에서 날 새도록 얘기하고 5월 21일 수요일 출근하여 조아라 광주YWCA 회장님께 전화하여 “위험하니 나오지 마십시오.” 하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양림교회 이성학 장로께서 전화기를 뺏으며 “조회장, 나오시오.”하셨다.

30여만 명이 데모하고 시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 어제 돌에 맞은 어깨 등 뒤 뼈가 몹시 아파 녹두서점(후의 한얼서점)으로 가 친구 김상윤의 부인으로 부터 삼천 원을 받아 앞의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치료받았다.

광주시가 공수대원과 정부군에 의해 밀폐 당하자 시민들이 수많은 군용차량을 빼앗고, 광주의 젊은이들을 다 죽이려한다며 어쩔 도리 없는 정당방위 행위라며 경찰관서와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를 획득하여 무장하자 군인들이 광주시내에서 철수하였다. 밤 12시경에 시민데모대들이 도청을 장악하고 무기를 든 채 경비하고 있었다. 전남대학교 전총학생회장 정동년과 김상윤이 구속되었다.

5월 22일 목요일 전남대학생들과 조선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송기숙, 명노근 교수 지도 아래 ‘시민 학생수습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 들불야학 팀(본인 김영철, 윤상원, 박효선, 임낙평, 신영일, 서대석 등)은 보성기업사의 정상용, 이양현(당시 계림신협 이사였다)과 도청으로 들어가 시민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에 김종배, 외무부위원장에 정상용, 내무부위원장에 허규정, 상황실장 박남선, 기획실장XXX, 나는 이를 후에 기획실장을 맡으라해 맡았으나 이름 모르는 XXX기획실장이 계속 활동하였다.

나중에 기획실장 김영철, 상황실장 산하에 기동타격대장 윤석루, 부기동타격대장 이재호(이재호 군은 황금동에서 수상한 사람이라고 기동타격대원들에게 잡혀와 윤석루 군이 취재하여 중앙대학을 졸업한 청년임을 밝혀내고 부기동타격대장을 권유해 쾌히 승낙하여 맡았었다.), 기획실 요원 이양현과 수 명, 대변인은 들불야학 일반사회 담당 윤상원(윤개원) 강학이 맡았다. 상무관에 안치된 시체관의 관리와 시체 확인 차 온 시민들과의 상담역으로 민원실장에 정해직이가 맡아 도청에서 긴급수습회의를 개최했다.

계엄사에,

1. 사망자 전원 광주시민장으로 치러 달라.
2. 구속자 석방하라.
3. 무기 휴대자 전원 무기를 회수 반납하겠으니 책임을 묻지 마라.

하고 결의하여 통보했으나 무조건 무기를 반납하고 귀가하라는 통보가 왔다.

무기를 회수하려고 우리는 광주YMCA, YWCA에 가 노력했으나 무기를 휴대한 시민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며 “우리 광주시 젊은이들을 모두 죽이려하는데 무기를 반납해? 누가 뭐래도 정당방위이니 또한 사망자 전원 광주시민장으로 치러 주고 구속자 석방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테니 그리 알고 당신네들 불일이나 보시오.” 해 어쩔 수 없이 도청으로 되돌아갔다.

들불야학 팀은 공수대원의 잔학행위와 극악한 살인행위를 윤상원 강학이 초안하고 박용준 군이 등사하여 시민에게 고지하면서 나누어 주었다. 대자보도 박용준 군이 매직으로 써 벽에 곳곳이 붙여 그때의 상황을 시민에게 알렸다. 광주경찰서 앞에 ‘우리 시민의 재산이니 보호 합시다’ 라고도 써 붙였다.

5월 20일(23일부터) 전후하여 대학생, 시민들과 우리 들불야학팀은 매일 도청 앞 분수대를 강단으로 만들고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목사, 신부들 사이에 군부독재타도의 명제 하에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 대립이 있었으나 한 승려는 연단에 올라 군부독재타도하자는 강경한 어조로 울분을 토로했다.

이때 도청 2층에 있던 한 목사가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한탄하였다.

군부와의 싸움에서 시민 측이 승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이 미국에 있으니 미국에서 우리정부에 통고해 원만한 해결을 해줄 줄 알았다.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는 뉴스보도를 들은 나는 북한을 견제하면서 광주항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정부가 보낸 것으로 굳게 믿고 나는 연단에 올라 “나는 이곳 빛고을 광주시에서 평등을 상징하는 무등산의 정기로 30여 년 간을 빈민 잘살기운동을 전개하며 살아온 김영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 북한을 견제하고 광주학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산항에 항공모함을 진주시켰습니다. 고려 때처럼 무반정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군사정권 타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삶을 위해 총궐기합시다.”고 외쳤다. 시민들이 무장하기 전의 한 궐기대회에서였었다. 연단을 내려온 나는 몇몇 대학생들에게서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러 항공모함을 보냈지 광주시민들을

구하려고 보낸 줄 아시오?” 하는 편지를 받았다.

며칠 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자 나는 광주YWCA 간사 정유화, 안희옥, 이행자와 대인시장에 가 검정 천을 많이 사와 김상윤 군의 녹두서점 방에서 모두 함께 조장을 만들어 들불야학생들을 동원하여 3~4천 여 장을 시민들 가슴에 달아주었고 남은 큰 검정 천을 전남도청 옥상 태극기 위에 걸었다. 나 혼자 광주시민장을 치룬 것이다.

나는 나중 도청 함락 후 상무대에서 시민들에게 조장을 달아준 것도 죄라고, 또한 김상윤 군의 아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의자에 앉혀 곤봉으로 내 발바닥을 거세게 내리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양 발이 아파 고통스럽다.

5월 23일 금요일, 김재규와 4명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서울 종로 2가 파고다 공원에서 신문팔이 하며 들은 풍문이다. 장기독재 집권 때문에 계속 전국적인 데모가 그치지 않자 육영수 영부인에게서 박정희 대통령께 사실을 건의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영부인에게 재떨이를 던졌다는 것이다. 또 일부 대기업 사장의 채홍사 역할로 혼외 여자관계가 많고 육영수 영부인의 사망에도 말하지 못할 의문점이 많다고 했다. 육영수 영부인이 쓰러지자 티비가 갑자기 상영 중지되었다고 하며... 육영수 영부인에게서 사망하자 전국의 공화당원 청년들이 왼쪽 새끼손가락을 단지하여 붓대를 매고 있는 것을 파고다공원에서 보았다. 그 잘린 손가락들을 일본에 보냈다. 육영수 영부인의 중앙청에서의 장례식에 참여했다. 이후 전국은 조용하였다. 의문점이 없겠는가?

5월 24일 토요일, 비가 오는데도 데모를 많은 시민들이 모여 하였다. 광주YWCA 무진관에서 한 예비군 중대장이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학생들을 모아 무기조작법을 가르쳤다. 본인, 정상용, 윤상원, 이양현, 정해직 등과 한 기독교농민회원이라는 청년과 비를 맞으며 태평극장 부근 보성기업사에서 날을 새우며 대책수립 논의를 했다. 우리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 ‘계엄군에게 드리는 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하여 ‘경상도민에게 드리는 글’ 등을 만들어 보내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나는 무전기를 다룰 줄 알아 HAM(국제 아마추어 무선사)을 통해 미국에 원만

한 사태 해결 요구를 하자고 얘기했으나 정해직 민원실장이 계림동 근처에 있는 것 같으나 잘 모르겠다고 해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이튿날 5월 25일 일요일 도청 앞 광장에서 3만 시민이 모여 우리 수습위원회의 3개항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자고 쫓기대회를 했다. 5월 26일 월요일, 쫓기대회에서 단상에 한 시민이 올라가 미국정부의 계엄군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호소했다.

광주사태(의거) 당시 윤상원 대변인은 많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계엄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군부독재가 종식되지 않는 한 대한국민들의 가슴에는 한이 응어리져 계속 소요가 일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계속 광주시민들로부터 김밥과 빵이 공급되었고 월산동 한 아파트 주민 부인회에서는 마스크를 만들고 타월을 보내왔다. 담배와 현금이 시민과 교회에서 답지해와 담배는 수습위원회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현금도 사망자의 관과 그 위를 덮는 태극기 등을 사오도록 정해직 민원실장과 민원실 요원에게 모두 주고 도청 사무실 캐비닛에 넣어두었다. 이 돈은 나중에 황 수사관이 압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천주교회 측의 레지오 남녀 단원들이 계속 도청에 머무르면서 밥을 만들어 공급해주었다. 이들은 27일 도청 함락 시까지 도청 내에 남아 봉사활동을 하였다.

도청 2층에서는 광주YWCA 회장 조아라, 총무 이애신, 홍남순, 이기홍 변호사, 김성용 외 몇몇 신부, 몇몇 목사님들께서 의자에 든든히 앉아서 사태수습을 계속 논의하고 계셔 나는 몇 번이나 귀가해 버릴까 생각하다 이분들의 의젓함을 보고 원만한 사태수습이 될 때까지 도청에 남아있기로 결심하였다. 이때까지 기동타격대원들은 송정리 쪽을 비롯한 외곽지대에서 계엄군과 대치하여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들불야학 팀의 윤상원 강학과 몇몇 강학, 박용준 군과 야학생 몇 명은 야학당에서 끝까지 싸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의 만찬을 가졌다고 나중에 들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영어강학은 시민들이 무기를 휴대하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계엄군이 박관현을 죽일 것이라는 소문에 야학 관계자들의 권유로 피신하였다. 박관현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의 녀 박관현’이라는 책자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5월 22일 시민들이 무기를 휴대하자 우리 시민학생수습위원회도 박남선 상황실장이 무기고에서 카빈총과 실탄을 나누어주어 모두 카빈총을 휴대하였다. 박남선 상황실장은 계엄군이 버리고 간 M16 소총을 들고 양쪽 허리에 권총을 차고 지휘하였으며 어떤 기동타격대원은 수류탄을 소지하였었다.

26일 월요일 저녁 시민학생수습위원회 지도부에서 무기 수거 결의가 있어 무기 수거에 나섰다. 광주YMCA와 YWCA(당시 대인동)에 가 “지도부에서 무기 수거 결정을 내렸다”며 무기를 수거하자고 권유했으나 기동타격대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우리는 계엄군들이 우리의 요구사항 3개항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총부리를 들이대 어쩔 수 없이 도청 2층 지도부에 가 가보니 윤상원 대변인이 지도부 인사들에게 항변하며 우리의 정당성에 대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4.19혁명 때 군부에서 일어나 성공시키게 한 것을 기억하고 양심적인 군부에서 일어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두환 일당을 밀어낼 줄 알았었고 전 국민이 일어나 군부독재의 종지부를 찍게 해줄 줄 알았었다. 그러나 각 방송국에서는 사실보도를 하지 않았다.

나는 계엄 공수대원들에게 맞아 죽은 수많은 시체를 목격하였고 시체들을 트럭에 싣고 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대학교 뒷산에 매장해버렸다는 시민들의 말을 들었다.

나중 국군통합병원에서 이마의 치료를 받을 때 머리의 두개골이 부서져 하얀 골이 보이는 두 시민을 보았고 광주농업고등학생은 공수대원이 수없이 때려눕혀 일어나려면 앞머리를 워커 발 뒤쪽으로 내리찍고 또 일어나려면 또 내리찍고 하였다며 앞머리의 뼈가 벗겨져 흰 골이 드러나 보였다. 이 학생은 치료받으면서 정신이상 증세가 발작하여 청년들과 자주 싸우곤 하였다. 또 음부 바로 위를 총에 맞은 한 청년은 논둑에서 앉아있는데 앞 산위에서 군인이 총을 쏘아 맞았다며 그 군인이 시험용으로 발포한 것 같았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는 양동시장 옆길에서 4살쯤 된 어린아이가 데모 대원들에게 배워 전두환이 물러가라고 노래하듯이 말하자 공수대원이 워커발로 밟아버렸다고 우리 5.18의거 부상 입원자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5월 27일 03시 무렵, 도청 등 광주에 진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계엄군이 진주하고 있다는 기동타격대원들의 보고를 들은 김종배 위원장은 행정 전화기를 들고 중앙청 상황실에 “진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계엄군들이 진주하고 있으니 즉시 중지시켜주십시오. 만약에 진주해 들어오면 우리 모두 화약고에 있는 폭약을 터트려 자폭하고 말겠습니다.”고 전화했으나 묵묵부답. 그러나 온건파들과의 내통으로 폭약고의 폭약 뇌관을 상무대 군인들이 몰래 숨어들어와 모두 완전 분해시켜놓았다고 들었다.

04시 가두방송하고 다니던 한 여학생의 “광주시민 여러분 진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계엄군들이 지금 진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은 모두 나와서 이를 저지해 주십시오.”라는 구슬픈 가두방송이 들려왔다.

도청 후문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국군통합병원에서 들은 얘기지만 도청 지하실에서 피곤해 자고 있는데 계엄군이 M16 소총으로 연발로 거꾸로 들고 양다리를 썬 대 버렸다고 하며 총탄이 다리를 관통한 양다리를 보여줬다. 그 청년은 도청 후문 쪽에서 마취약을 뿌린 것 같다고 했다. 갑자기 졸음이 와 드러누워 잤다고 하면서.

정문 쪽에서 계속 총소리와 폭음이 들려와 윤상원, 이양현 군과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도청 현관 입구 쪽에서 계엄군들이 “나와, 나와” 하며 M16 소총을 쏘아대며 사과탄을 던지고 있었다. 그쪽에 김종배 위원장과 박남선 상황실장이 있었고 2층 회의실에는 본인, 윤상원, 이양현, 윤석루, 이재호와 기동타격대원들이 있었다.

윤상원 군이 나에게 “형님 빠져 나갑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도청은 포위되어있어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갑자기 뒤 창문 쪽에서 드르륵 하며 M16 연발 소총소리가 들려오더니만 윤상원 군이 아이쿠 하며 오른쪽 아랫배를 움켜잡았다. 등에서 배로 관통한 것이다. 나는 윤상원 군의 왼쪽 팔을, 이양현 군은 오른쪽 팔을 부축했다. 윤상원 군은 나에게 “형님, 틀린 것 같소” 했다.

갑자기 사과탄 몇 개가 터지더니만 우리 앞의 커텐에 불이 붙었다. 나중에 생각한 것이지만 이 불붙은 커텐이 떨어져 윤상원 군을 덮쳤고 화상을 입은 윤상원

군 옆에 기름깡통을 가져다 놓고 모 수사관이 분신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 둘은 계속 굽어대는 총소리와 사과탄의 불길에 못 이겨 윤상원 군을 눕히고 옆 나무로 만든 미닫이문에 가, 나는 잡히면 죽거나 모진 고문을 받을 것을 간파하고 자살하고자 미닫이 문 앞에 엎드려 카빈총을 목 옆에 대었다. 이양현 군은 왼쪽 내 뒤에서 있었다.

나중 보안대(지금의 안전기획부) 황 수사관의 현장검증으로 파악한 것이지만 윤상원 군을 쏘 죽인 계엄군 중사가 저쪽 창문에서 내가 엎드려있는 것을 보고 미닫이문에 와 나의 머리 80~90센티 앞에서 M16 소총을 나의 머리를 향해 쏘아댄 것이라 뜨거운 것이 7발 나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쏙쏙 하면서 화약 냄새가 7번 내 코를 찔렀다. 분명히 하나, 둘 세었지만 꼭 7발이었다. 이 7발이 나의 양다리 사타구니 사이 콘크리트 바닥에 맞아 그 파편이 나의 양다리를 맞혔고 (지금도 그 흉터가 있다.) 이양현 군의 오른손등과 오른 앞 어깨도 맞았다.

갑자기 이양현 군이 “형님, 항복합시다.” 했다. 그러나 나는 잡히면 모든 게 명약관화한지라 죽음을 각오하고 입을 다물었다.

“항복, 항복.”하며 이양현 군이 외쳤다.

계엄군 중사가 “총 내려, 나와.” 해 둘은 문을 열고 나갔다.

올려다보니 이름표는 보이지 않았고 갈매기 2개, 분명히 중사였었다.

“너 한발도 맞지 않았어?” 하면서 어안이 병병해 했다. 나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려고 7발 쏜 것이었다.

“너, 두발 썼지?” 했다.

나는 영문을 몰라 가만히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의 카빈 소총도 연발로 장전되어있어 그 계엄군의 총소리에 놀라 자살하고자 방아쇠에 검지손가락을 끼운 것이 저절로 당겨져 두발이 연속하여 나간 것이다. 윤상원 군이 생각나 그 쪽으로 가려했으나 “꼼짝 말고 꿇어앉아 있어.” 해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계엄군은 M16 소총으로 상무관 쪽을 향하여 정조준하며 한발을 쏘았다. 누가 내뺄까 싶었다. 그 계엄군 중사가 왼쪽 손에 M16 소총을 들고 오른손 하나로 우리에게 빼앗은 카빈총으로 화약고 계단 쪽을 쏘아대며 “모두 나와.” 외쳤다.

이제 상황이 끝난 것을 안 우리는 그냥 나오라고 소리쳤다. 화약고 윗 계단에 있던 윤석루 기동타격대장과 대원들이 모두 총을 내밀며 나왔다. 모두 베란다 같은 복도에 꿇어앉혔다. 이양현 군이 나에게 “형님, 20년만 삼시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월간조선에 내가 계엄군을 향하여 한발 쏘고 앉고 한발 쏘고 앉고 하였고 이양현 군은 한 클립 실탄을 계엄군을 향해 모두 쏘았으나 한발도 맞지 않았다고 인쇄되어 있으나 내가 분명히 보았으니 사실 무근이다.

그 계엄군 중사는 부하를 불러 포승줄로 우리를 묶으려다 말고 나무를 타고 내려오게 했다. 도청 현관 오른쪽에 10여명이 등 뒤에 양손을 포승줄로 묶인 채로 엎드려있었다. 다른 계엄군이 우리의 뒷목을 발로 차 나는 앞으로 쓰러져 왼쪽 윗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붙잡힌 시민군은 현관 오른쪽에 엎드리게 하고 육군 상사가 우리의 등을 밟으며 매직으로 직업을 물으며 선동, 극렬 난동자, 총기휴대자라고 썼다. 내 등 뒤 옷에도 뭐라 썼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다.

계엄군들의 인도 하에 도청 문으로 가니 노란머리 외신기자가 티비 카메라로 우리를 촬영하고 있었다. 나는 나가면서 피 흘리는 나의 얼굴을 찍으라고 얼굴을 들이 내미니 한 계엄군이 나의 뒷목을 M16 개머리로 후렷했다.

도청 문을 나서니 분수대와 수산업협동조합 사이 금남로를 계엄군들이 행진하면서 도청을 함락했다는 승리의 군가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광주시민들의 데모는 분명히 질서 있고 평화적이었다. 전투경찰 대원들이 최루탄을 쏘아 달 필요가 없었는데 쏘아댔다. 이에 시민 학생들이 투석으로 맞섰다. 최루탄만 쏘아대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데모를 계속하였을 것이고 군부독재자는 마땅히 순수한 민간인들에게 정부이양을 했어야 옳았다.

5월 27일 화요일 7시경, 군용버스에 우리를 태워 상무대에 도착하여 운동장에 앉혔다. 온건파들이 언제부터인가 계엄사와 내통하여 이곳에 와 있어 얼굴은 옷으로 가리고 우리 수습위원회의 강경파를 지목해 계엄군들에게 알려 그들은 보안사로 끌려가, 박남선 상황실장은 계엄군 M16 소총으로 쏘서 앞니가 빠졌고 죽도록 맞았다. 나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다. 긴 곡괭이 자

루로 엉덩이를 모두 흠씬 맞았다. 나는 상무대 영창 5소대로 끌려 들어가 모두 함께 앉았다.

박춘배 헌병 중사 영창장과 헌병들이 “너희들은 상부에서 죽어버려도 괜찮다.”고 했다며 직업, 학력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분류하면서 호명을 해,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불러내어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게 하여 양손바닥을 긴 곡괭이 자루로 힘차게 내리쳐 양팔이 아래 철창에 맞게 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아까,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을 내놓아 강경파 수습위원들을 찾아내어 계엄군들에게 고자질한 한 학생 XXX가 헌병에게 가더니만 껌소리로 뉘인가 말했다. 나는 즉시 나가 “내가 기획실장이요” 했더니 그 헌병은 내일 아침에 나오라며 들어가라 했다. 한 시민이 보안사에 끌려간 시민들은 지금 죽도록 맞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군복무 시절 아카시아 긴 몽둥이로 피교육병 주제에 행정병 병장이 주는 막걸리 한잔을 받아 마셨다는 죄로 죽도록 맞고 이튿날 상급자에게도 죽도록 맞아 온몸이 퍼렇게 오랫동안 멍이 들어 고생했던 일을 기억하고, 또 민주인사들로부터 갖가지 고문에 대한 말을 기억하고 차라리 자살해 버릴 것을 각오했다.

자살이 가장 큰 죄이며,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만 생각났어도 자살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헌병들이 어떻게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오직 죽기만을 각오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물론 예수만이 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 구세주이시며 모든 인간들이 모두 똑같이 중요한 성태극신 부모 창조 구세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날이 새도록 주 하나님께 분단 3개국 평화통일과 세계 완전평화 성취 기도를 했다. 성태극원기 4313(1980)년 5월 28일 수요일 새벽 4시 반경, 몸이 저절로 들려지며 “하나 둘 셋 넷... 열”하는 주 하나님의 명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열 번 만에 화장실 맞은 편 세면대의 콘크리트 벽 모서리에 이마를 힘 있는 대로 째었다.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와 군화발로 온몸을 짓이기더니만 밖으로 끌어내어 긴 곡

팬이자루로 온몸을 찌고 특히 왼쪽 등과 왼 팔다리를 무자비하게 난타하였다. 난극심한 고통에 못 이겨 혀를 깨물었다. 한참 후 박춘배 중사 헌병장과 함께, 손을 뒤로하여 손발을 함께 포승줄로 묶더니만 헌병 짚차에 실어 국군통합병원으로 실려 갔다.

간호원에게 포승줄 풀어주지 말라고 하며 헌병들은 가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가버리자 간호원이 포승줄을 풀어주어 고통이 덜하였다. 아무 정신없이 멍하니 혼수상태였다.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워져 웬일인가 싶었는데 간호원이 동맥에 링겔 바늘을 꼽았고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몸이 뜨거워지게 하신 것이다.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군의관들이 새로운 치료방법이라며 세 상처를 꿰매지 않고 반창고로 붙였다. 병실로 옮겨져 침대에 눕는데 양어깨와 등이 몹시 아파드러누울 수가 없었다. 사병이 와 나를 눕혀주었다.

교도소 석방 후에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이 자살기도 사건으로 나는 고정간첩으로 매도되어 내가 이사장(무보수 명예)직을 맡았던 광천신용협동조합에 탈퇴 조합원이 발생하고 출자금들을 환불해가고 하여 위기상태에 처하자 아내는 이의 안전수습에 전전긍긍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했다. 우리 옆방의 박용준군 방에서 판매 허가된 ‘등소평’, ‘8억인 과의 대화’책을 꺼내와 주민들에게 고정간첩이라고 소문을 수사관들이 퍼트렸다고 했다.

아내는 도청이 함락되자 나를 찾기 위해 도청과 상무관을 배회했으나 기다리라고 해 기다리며 한 사망자 명단 벽보에서 ‘김영철(27세)’가 씌어있어 깜짝 놀랐으나 27세인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놓았다 했다. 내가 국군통합병원에서 6월 3일 편지할 때까지 죽은 줄 알고 한 끼의 밥도 먹지 않고 차녀 김은형을 병원에서 출산하는데 입에 산소호흡기를 들이대어 ‘아빠는 자식들도 못보고 죽는구나.’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 차녀 김은형을 반팔만 하게 낳아 의사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양육해야 한다고 했으나 돈이 없어 그냥 퇴원시켜 청과물 장사를 하면서, 광천천주교 수녀들이 마련해준 화란빵 기계로 밤늦게까지 빵을 구워 팔면서, 은형을 품에 안고 겨울에 찬 우유를 젖병으로 먹여 키우는데 한번은 너무 피곤해

우유를 먹다가 졸음이 와 젖병을 자주 떨어뜨려 우유병 젖을 몇 개나 깨뜨렸다고 말해주었다. 무, 배추를 공판장에서 떼어와 어떤 때는 하루에 10만원 어치나 팔았다고 교도소 수감 중에 편지가 오기도 했다.

4313(1980)년 5월 29일 목요일 아침 전남대학교 명노근 교수의 부인되시는 기독교병원 간호감독 안성례 사모님이 오셔서 나와 이양현 군 등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 웃으시면서 죽지 않아 다행이라는 표정이셨다.

홍남순 변호사의 정관진 사무장이 상무대 영창에서 이송되어 왔다. 자세히 보니 양쪽 엉덩이 밑이 많이 패어져있었다. 정관진 사무장은 한 헌병이 광주YWCA 조아라 회장님께 험한 언사를 해 “어르신에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하자 그 헌병이 끌고 가 긴 곡괭이 자루로 사정없이 엉덩이 밑을 때려 살이 많이 패였다고 했다. 이후 사무장은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보안대 황 수사관이 와 진술서를 쓰라 해 내가 했던 대로 다 썼다.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정동년 씨는 수사관들이 억지로 범행 내용을 때려 맞춰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갈아 배를 가르려는 자살기도를 했다며 “이송해라” 우리 다 같이 얘기하는데 한 간호원이 신문을 갖다 주어 보니, ‘김대중 선생이 김상현 씨를 통하여 내란을 일으키라 했다’며 정동년 씨에게 500만원을 주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정동년 씨가 어처구니 없어하며 픽 웃었다. 이튿날 창문에서 내려다보니 정동년 씨 부인 이명자 씨가 면회실인가 와 있어 이를 본 정동년 씨는 신문내용이 거짓이라는 신호를 손짓으로 보냈다.

면회는 시켜주지 않고 먹을 것만 들어왔다. 두 간호원으로 부터 나의 상태를 전달받은 아내는 그 두 간호원을 통하여 보신탕과 수박을 보내와 환자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다. 천주교회의 장 신부가 보내 소고기 육회가 들어오고 다른 환자들도 고깃국이 들어와 모두 나누어 먹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헌병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던 상무대 영창에서 거짓으로 아프다고 속여 약을 받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정신이상 등으로 이곳으로 이송되어 온 청년들도 많았다. 들어보니 국군통합병원은 식사도 좋고 대우도 좋다 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광천신용협동조합 김원우 직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걸 누가 고발해 들어왔다며 상무대 영창에서의 비참함 때문에 정신이상인 것처럼 행동해 이곳으로 이송되어 왔다며 정신과에 입원되어 있었다.

나중에 나는 앞이마의 치료도 덜 받고 도로 상무대 영창으로 이송되어 기획실 요원 이양현 군과 함께 우리 담당인 보안대 상사 황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하지도 않은 내용을 써 억지 지장을 누르게 했다.

식사가 너댓 손갈밖에 안 되는 양이 나와 우리들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박춘배 헌병 하사가 들어오더니만 누가 주동자냐며 군화발로 모두를 막 걸어쳤다. 수감자들은 목욕도 안 시켜주어 각종 피부병에 걸려 국군통합병원에서 의사가 와 피부약을 나누어주어 발랐고 나는 치료도 덜 받고 이곳으로 와 이마의 상처가 곪아 주사를 맞고 약을 발라주곤 했다.

우리들을 폭도라며 부채꼴 영창 마룻바닥에 꿰어앉히고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 꼴로 들고 있게 해 나는 긴 곡괭이자루로 맞은 온몸이 쑤시고 아파 나이 든 분들이 변두리에 앉아 계셔 그쪽으로 가 앉아있었다. 박춘배 헌병장이 변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연병장으로 끌어내더니만 꿰어앉게 해놓고 군화발로 양 다리를 마구 밟아댔다. 한번은 나이 어린 한 청년이 환경개선을 요구하자 박헌병장은 그 청년을 쇠창살에 수갑으로 채우고 경봉으로 온몸을 갈겨댔다. 잠시면 몰라도 계속 매질했다. 우리들은 오염하며 이에 항의하자 우리들을 마구 매질했다. 곧 재 단식투쟁에 임하였다.

천막집을 짓더니만 기동타격대원들을 갖가지 고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목격하지 못해 확실히는 모르지만 타격대원의 말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물로 코에 부어넣었으며 대형 주전자의 가득 찬 찬물을 강제로 다 마시게 했으며 수동식 전화기의 두 전깃줄로 전기고문을 당했고 어떤 청년은 무더운 날씨의 커다란 나무 옆에서 벌거벗게 하고 밑의 커다란 개미집을 건드려 개미들이 온몸을 타고 올라와 기어 다녔고 고통스러운 개미 고문을 당했다고 했다.

김상집 군은 경봉으로 손바닥을 세차게 서너 번 맞았으며 나에게도 대형 주전자의 가득 찬 물을 다 먹이려다 말고 광주사태(의거)전 사전 구속된 친구 김상윤

군의 아내가 정면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의자에 꿰어앉히더니만 경봉으로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세차게 발바닥을 내리쳐 극심한 고통과 충격으로 의자 밑에 굴러 떨어져 내려앉자 다시 의자에 꿰어앉혀 또 발바닥을 거세게 후려쳐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김상윤 군의 아내가 오열하고 있었다.

인권단체인 광주YWCA 직원이며 들불야학의 특별 강학이고, 김상윤 군의 친구이고, 데모를 주도했던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군 등 전남대학생 몇몇이 우리 작은방에서 묵으며 식사를 같이 한 것을 밝혀낸 수사관들은 나를 내란 주범으로 몰다가 나중에 내가 광천동 11동 새마을지도자로서 빈민복지사업 활동을 정리해놓은 사진자료를 보고 마음을 돌렸다.

우리 5.18 광주의거 참여자를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몰기 위한 군법회의 재판소가 준공되어 준공식을 갖기 위한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들려왔다. 짐승만도 못한 추잡한 짓을 저지르는 것들... 우리들은 광주교도소로 옮겨 수감되어 군용 버스로 오가며 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보안대 황 수사관은 나와 이양현 군에게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줄 아느냐고 했다. 그도 박정희처럼 눈물을 흘리며 군복을 벗었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수사를 하면서 천막집에서 기동타격대원들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 물을 붓는가하면 개미고문, 물고문, 큰 주전자의 찬물을 억지로 다 마시게 하고 수동식 전화기로 전기고문을 하는 등 갖가지 고문을 다했다.

나는 친구 김상윤의 아내 정현애 씨가 보는 앞에서 의자에 꿰어앉혀놓고 경봉으로 발바닥을 거세게 때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또 때려 굴러 떨어지고 하는 고문을 당했다. 자기네들이 김대중 선생을 매장시키고 우리들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억지 지장을 찍게 하였다. 나중에 군 검사들은 사병을 동원하여 바닥에 앉혀놓고 몽둥이를 양 다리 사이에 넣어 밟으며 고문하여 억지 지장을 또 찍게 했다.

군법회의 1심에서 12년 선고, 2심에서 7년 선고, 최종 대법원에서 3년으로 감형되었다. 나는 5.18 광주의거가 명백한 정당방위 행위이며 군법회의 2심에서 7

년형을 선고 받고 최후진술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시민 광주시민 만세.” 하고 외치며 만세를 불렀다. 김대중 선생은 사형 구형한 군 검사들이 심문하고 관선 변호인들이 “잘못했지, 다시는 안하겠지.”하는 따위의 엉터리 변호를 하였다.

5.18광주의거 직전 나의 직장인 광주YWCA신협 참사 시절, 아래 직원 박용준 군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350만 원 정도의 장부 차질이 생겨 박 군에게 완전무결하게 처리해놓으라 지시하여 박 군이 “그러마.” 했으나 5.18이 일어나버려 계엄군으로부터 정조준 사격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여 망월동 묘지에 묻혀, 나는 교도소 출감 후 거래처에 알아봤으나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 부활해오면 밝혀질 것이고 해결할 것이다.

김대중 선생을 매장하기 위하여 광주사태(의거)를 내란으로 몰고 김대중 선생은 내란음모, 우리 시민학생수습위원회원과 정동년, 김상운 등도 내란 주요임무 중 사죄로 몰아, 김대중 선생을 사형 선고하고 시민학생수습위원장 김종배 군과 상황실장 박남선 군을 사형 선고하고 - 군사재판 1심에서 - 나는 12년을 선고 받고 2심에서 김종배, 박남선 군은 무기징역으로 감형, 나는 7년으로 감형되었다.

4사 8방에 수감된 박남선 군의 주창으로 목념을 울리고 애국가를 불렀다. 한 교도관이 와 애국가 제창을 막자 4사 1방에 계시며 농민회가 등을 가르치던 서경원 농민회장이 호통을 쳐 꾸짖었다. 우리는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교도관들이 들어와 밧줄로 우리의 등줄기를 후려치며 몇 사람을 끌고 가 2층에서 밧줄로 닭 날개 묶듯이 두 팔을 묶어 심한 고통의 소리가 났다. 그 내용을 나중에 듣고 우리는 식기로 철문을 치며 발로 걷어찼다. 1, 2층 각 방에서 요란스럽게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드높았고 “교도소장 사과하라”는 구호가 계속 터졌다.

대법원 판결에서 3년으로 감형되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편지가 와 읽어보니, ‘여보 정말 보고 싶고 밥상에 오르는 반찬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눈물이 핑 돌았으나 다른 수감자의 고난을 생각하고 꼭 참았다.

머리의 고통이 극심하여 박철 군 등 어린 청년들이 머리 지압을 자주 해주었고 아내는 갖가지 장사를 하면서 뇌신경 손상 치료약을 계속 넣어주었다.

운동을 나갔는데 사형장 앞에서 왼쪽 신발이 벗겨졌다. 바닥에 타일이 깔려있

어 자세히 보니 영문이 씌어져있어 미군정 시 미군부대였었던 것 같았다.

온몸, 특히 헌병들에게 두들겨 맞은 왼팔다리가 쭈시고 아파 병사 9방으로 옮겨졌다.

앞의 여러 방은 나병환자 수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찌빵을 많이 구매하여 나누어 먹게 했다.

4316(1983)년 12월 25일 새벽 성탄절 특사로 형 집행정지 출감하여 반갑게 아내와 세 자녀, 친구들, 나를 도와준 분들을 만났다.

정신이상 증세가 일어나 성요한병원 정신신경과에 입원하였고, 전주예수병원에서 뇌 컴퓨터 촬영을 한 결과 우측머리 뇌수종으로 밝혀져 전대병원에서 뇌수종 수술을 받고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다.

신영일 들불야학 강학이 광주교도소 수감 중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 정신과 병동으로 입원했다. 두 교도관이 교대하며 신영일 군을 지켰다. 창문틀을 잡고 “관현이 형, 관현이 형”하고 외쳐댔다. 박관현 영어강학이 단식투쟁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침대 옆에 누워 간호를 하였으며 강신석 목사님께서 자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으며 신영일 군 부친께서 자주 오셔서 ‘뉴스위크’지를 보여주셨다. 미국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김대중 선생께서 기자의 질문에 ‘Korea has to Democracy - 대한민국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출마 의사를 묻자 ‘먼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퇴원하고 통근 치료를 받았다. 좌반신 불수여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했으나 돈이 없어, 들불야학의 리어커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청과물 공판장에 가 청과물을 받아와 아내는 상점에서 나는 리어커에서 장사를 했다. 웬일인지 장사가 잘되지 않고 청과물이 썩어 - 주 하나님이 사랑의 연단이었다. - 600만원이나 빚을 졌다.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금식기도원에 광천교회, 남선교회에서 비용을 주어 아내와 함께 2주일 동안을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 기도했으나 주 하나님께서

는 정금(精金)을 낳기 위한 사랑의 연단이라며 낮게 해주시지 않고 계속 왼쪽 어깨와 왼팔다리에 고통을 주셨다.

귀가하여 정신이상 증세가 극심하여 아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부민약국에서 한약을 사 데려주고 극진한 간호를 받았으나 나의 영혼 육신간의 병은 낫지 않고 나중에는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일단 입원하면 6개월 이상은 치료받아야 한다 해 매일 일기장에 아내 면회 온지 며칠, 임낙평 강학 면회 온지 며칠, 이렇게 써가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배가 고파 꿀꺽질을 씹어 먹고, 버린 음식찌꺼기를 짬밥 통에서 한주먹 주어먹었다. 정신병 환자의 모진 황포도 당했다. 6개월 여 후 퇴원하여 매월 초 진단 받으러 가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다.

강신석 목사님과 광주YWCA 성인클럽회의 보살핌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조분이라는 처녀가 아내에게 한서우유 배달을 인계해주어 자전거로 배달하며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가정생활이었다.

병 완치 간구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도 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나의 영광을 이유로 완치해주지 않으시고 계신다. 원망도 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을 안 나는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가를 부르며 온갖 고통을 참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내는 초능력을 발휘하여 지금의 ‘송도식당’을 마련하여 경영하고 있으나 겨우 살고 있는 형편이다.

일기 - 승주군 별량면사무소 공무원이 되어

※ 이 글은 고인이 20대 초반인 1967년부터 약 2년간 전남 승주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쓴 일기로서, 별량면 산업계에서 미곡과 잠업 관련 업무를 보면서 1969년 입대 전까지의 상황과 심경을 기록한 생활일기 글이다.

대아(大我) 제3호

난교(蘭交) 학모의 장(章)

※ 참고 - 우측에 박학모 씨 사진 게재됨

10월 2일

비가 나릴 때 찾아 갔더라.
나에게는 좀체로 찾아볼 수 없는
결단과 도력(道力)이 깃들었더라.
나의 단점을 결박(決迫)이 풀어줄 때
하나의 알찬 밤툼이 되겠더라.

x월 x일

상국 방에서 그냥 자버리다.
학모 방에서 동생이 밥상 들이는 모습이 비몽사몽간에 스치다.
어찌된 인연인지 이렇게 성격과 취미 등 모든 게
부합된 친구를 내려주셨는지.
새삼 하나님께 감사를 앎을 수 없다.

10월 19일 토

상국과 도청 도사(道廳 道舍)를 들린 후 기원에서 한 수 하다.
같이 동아에서 '처녀의 조건'을 감상하고 같이 자리에 들다.
학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그림을 보며, 나의 남긴 흔적을 보며
날 생각하고 있을까?

10월 20일 일

짐을 꾸릴 필요 없이 그냥 광주역으로 나가다.
온다던 지인(志仁) 누이가 나오잖아 그냥 떠나다.
제숙(弟叔 작은아버지)댁에 인사를 드리고 취침하다.
당(當舖), 기어이 몇 년 내로 부(副)란 글자는 정복해놓고 말테다.
수신제가 후에 친척을 찾아뵙는 일 따위는 생각기로 했다.

10월 21일 월

승주군청에 들러 별량 면(面)으로 발령받다.
군내에서 제일 크고 모든 면에 나온 곳이라고
외서 면은 다른 애가 적혀있다.
서운하기도 하다만.
곧 향광(向光)하다.
이달처럼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는 일생 처음일 것 같다.

10월 22일 화

장에서 학모 구두와 잠바를 구하다.
곧 학모에게 사신을 띄우다.

옥화, 희영이랑 같이 저녁을 들고 영어 21과를 가르치다.
곧 이사 해야겠다고.
헤어지지 않도록 당부해 놓다.
자주 어머니에게 들리고 내 이야기도 주고받고...
학모가 보고 싶다.
연인 사이가 이런지.

10월 23일 수

기차로 곧장 달려 면사무소에 들리다.
면장 부재중이다.
부면장 소개로 여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다.
돈, 돈이 모자란데...
내일 내 방에 면장 이하 각 직원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어울려야겠다.
금전 걱정은 집어치우고.
주인아저씨를 참 잘 만난 것 같다.

10월 24일 목

공휴일이라 많이 나오지 않았다.
서류를 훑어보니 한해(旱害)대책 사무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 생각에 물어보니
어떻게 골치 아프던지 내던지고 벌교 읍으로 꺼졌다고.
같이 시험 봤던 둘이 9월 8일자로 발령받고 이 면(面)에 와 있었다.

어머니, 삼촌에게 글월을 올리다.

모에게 달려가고 싶다.

갑갑 우울증이 나를 밀고 가로수를 따라 밟게 하다.

빗방울 한두 방울 머리에 달는다.

10월 25일 금

옆 선배의 지도를 받아 기안 작성, 결재 등을 체험.

수도 상황(水稻 狀況)과 수도면곡(水稻面穀) 상황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다.

김(金)과 숙직하다.

비가 철을 모르고 내려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

10월 26일 토

하속비가 상당할 것 같다.

식사만 여기서 하고 취침은 숙직실에서 해야 될 모양이다.

‘아편전쟁’ 전 5원을 월부로 받다.

오늘이나 모가 찾아 올 텐데….

몇 번이나 망설이다 재산증명 사건도 있고 해서,

내일 빨리 오기로 마음먹고 향순(向順)하여 제숙댁(弟淑宅)에서 자다.

10월 27일 일

폭신한 침대에서 뒹굴다 늦게야 자리를 일어서다.
인근이랑 단감을 따 수레에 담으며 나눠먹다.
왼편쪽에 난 석류가 아닌 게 아니라 홍보석(紅寶石)처럼 모냐고 번쩍거린다.
보증서 해 달라기가 참으로 미안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잘됐다기에 맘모스에서.
화면에 이끌려 눈물이 나오다.
모가 막 농번기를 맞고 내려와 내 방에 앉아있을까?
밥상은 차려 줬을까?
밥상의 차림새가 학모의 비위에 맞지 않을 텐데...
향별(尙別) 버스에 오르자마자 말쑥하고 청초한 아가씨가 내 눈과 마주치다.
뒤통리도 건방지게 치지 않고 마음에 쏙 드는데
내 비위에 거슬리는 행실은 없는지.
없을 리 없겠지.
같이 별량서 내리다.
골목을 꺾어들며 슬쩍 눈을 돌려 보고...
왜 이렇게 가슴이 공허해질까.
참...

10월 28일 월

학모로부터 편지를 받고 몇 번이고 내리 읽다.
오늘 부쳤으면 내일은 도착하겠군.
수도(水稻) 상황에 골머리를 앓다.
코스모스 씨를 역전(驛前)에 소요하며 따 봉투에 담다.
상당히 추워졌다.
외로워 그런지 담배와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는 모양.

인적 없는 길을 초승달을 따라 가로수를 뒤에 두고 걷다.

호젓은 하다만 외로움에 휘휘한 줄 모르겠다.

지금 완도에서 태안호를 타고 내게 오는 도중일까!

춡다.

통 잠이 오지 않는다.

뒤척뒤척 하다가 담배 하날 꼬나물다.

텅 빈 가슴에 우수가 찾아들다

- 29일 오전 3시

10월 29일 화

한 참 바쁘게 계산하고 있는데 ‘영철이’ 하고 부르기에 얼른 올려보니

내 붉은 잠바를 입은 학모다.

반갑기 이를 데 없다.

마음이 들썩거려 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말린 문어와 술을 하다.

석반(夕飯) 후 초승달을 따라 학모와 가로(街路)를 산책하다.

밤안개가 짙 내뻘은 가로를 따라 낙엽들, 포플러들이 줄지어 섰다.

초승달도 어제보담 휘영청 밝게 우리를 껴안아 주는 것 같다.

10월 30일 수

한 3~4일 쯤은 같이 껴안고 잘 수 있겠지 했는데

기어이 홀로 남겨두고 가지 않음 안 되게 되다.

꺼림칙해 사무실을 나와 보니 몰래 편지만 놓고 갈 준비를 하잖는가.

다 날 생각해서 하는 처사.

섭섭하지만 대의로 볼 땐 아무 것도 아닌 것.

이번 일요일엔 꼭 내려가서 같이 총 두 자루를 메고 사냥 나가야지.

추운데 오늘도 떨며 외롭게 뒹굴어야 하는구나.

그래도 어젠 같이 껴안고 자 훈훈했었는데.

지금은 여수 누나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날 생각하며 즐기고 있겠구나.

심심하다.

냉수나 들이키며 쓴 담배나 들이키며 ‘아편전쟁’이나 들이키자.

벗이여!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을 전망하라.

때를 기다리라.

대아(大我) 1968. 10. 30. 23:00~ 10.31 부지 시(不知 時)

몇 시나 됐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땡하다.

식은땀이 등에 즐비하다.

옆방 아저씨의 코고는 소리가 기차소리에 이어 유난히 크게 들린다.

괴이(怪異)하다.

‘아편전쟁’을 읽고 자리에 들어 학모와 내가 힘을 합해서 홍익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설계한 기억은 확실히 생시(生時)다.

막 잠으로 향할 땐가 웃인가 뭔가가 스치는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다.

아줌마는 아닐 텐데.

아니다. 연이어 아저씨 아줌마의 음성이 맞은쪽 편 방에서 들린다.

걸어놓은 옷이 벽을 스치며 떨어졌을 테지.

아니 이상하다.

그렇다면 방바닥에 닿을 때의 소리가 훨씬 클 텐데 조금도 내 귀에 닿지 않는

다.

어데서 개미, 바구미, 가위벌레 들이 기어오더니 뱀이나 들어온 게 아닌가했다.

그 쪽을 잠이 깃든 눈으로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다.

부엌 쪽의 창이 어두워지다.

갑자기 아줌마가 불을 켜기 때문

이 스치는 소리는 현실인지 꿈인지 통 구별되지 않는다.

대아(大我)에 대한 하늘의 계시일까?

나의 몸 주위 머리와 발끝, 상하로 둥근 칼날같이 바깥쪽으로 눈이 부실 정도의
광선 - 은빛 찬란하게 - 이 세차게 뽀고 있지 않는가.

옆에 누가 나를 마주보고 웃고 있었다.

틀림없이 학모다.

나도 같이 미소를 띠었다.

다음이 괴이하다.

아! 이건 꿈이다.

아!! 괴롭다. 일어나야겠다.

등이 땀에 후줄근하다.

내 방에 누가 들어왔다.(중학생 같다)

누군가? 하고 일어나 - 이것도 꿈이었다. - 불을 켜보려고 하니 웬일인가?

전구가 없다.

아마 아까 어떻게 떨어져버린 모양이다.

잠시 그 일을 잊다가 또 옆방 아저씨가 문을 확 열며 들어온다.

“누구요? 왜 함부로 남의 방에 들어 오요?”

하고 또 소켓을 찾으니 또 전구가 없다.

아! 이것이 꿈인 것 같으면서 깨자, 깨자, 눈을 겨우 뜨고 겨우 일어나 옆 벽
을 짚고, - 이 벽 짚는 소리가 안 나면은 꿈이고 나면 내가 깨어난, - 분명 깨어
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났다. (이것도 꿈이었다)

전구가 없다.

곧장 아저씨 방으로 들어가니 오(吳)주사와 웬 낯선 이가 이불을 걸치고 앉아 수군대고 있다. 내가 무슨 이야길 하니 반말로 야단이다.

참 기분 나빴다. (꿈인데, 이걸 분명히 꿈을 깨고 오(吳)에게 꿈 얘기를 했을 것이다. - 이것도 꿈)

그때 어떤 아줌마가 무슨 떡인가 곱감인가 무슨 먹을 것을 내놓았다.

아! 괴롭다. 열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다.

피로하다.

아! 잠이 깨야 할 텐데, 잠이!

이젠 정말로 눈이 한쪽이 떠졌다.

겨우 다른 쪽도 열려지고...

등이 축축하다.

웬 꿈일까!

그 가운데 없는 접시 같은 광채, 불을 켜고 양쪽 문을 잠그고 다시 작은 불을 켜고 이글을 옮기다.

지금 옆방에서 3인의 말소리가 들린다.

아직 새벽은 먼 것 같다.

학모가 여수에 있을 텐데 무슨 액운을 만나진 않았는지...

어머님이 병드시었을까?

필을 놓고 잠을 청해보자.

제발 오싹한 꿈은 없기를.

10월 31일 목

전담 미등록을 직접 찾아가 등록케 하도록 부면장의 지시를 받다.

산업계장하고 같이 가기로 하다.

학모한테 가서 좀 놀다 오려면 며칠은 근무하지 못할 텐데.

하늘엔 구름한 점 없다.

반달이다.

11월 1일 금

늦게야 일어나다.

출근시간이 9시인 까닭도 있지만 출장가기 때문이다.

그냥 산업계장만 가고 난 안에서 근무하라고, 낮잠 좀 자버리다.

가족계획 요원이 선경식이 누나란 걸 비로소 알다.

1968. 11. 2

임진왜란 때 사용했다는 국보(國寶) 진남관을 둘러 보다.

처음에 어느 유복한 자의 저택인 줄 알다.

부두 근처 남광 하숙에서 250으로 머물다.

웬 색시가 유혹하려 하다 무 대응에 그냥 들어간다.

요 3시간에 ‘아편전쟁’을 3편 읽어치우다.

지금까지 내 읽던 것 중 가장 내 피와 살이 될 만한 거다.

많은 독서- 물론 정독 - 의 필요성을 인식하다.

같이 사냥 나가기로 했는데 3~4시간 돌아다니다 자고 이튿날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지만 총무계장께 양해를 얻다.

집에, 옥(玉), 희(熙)에 서신 띄우다.

11월 3일 일

일찍 일어나 부두로 나가다.
대하는 품이 아무래도 선표(船表)를 사야 할 모양.
극장 앞서 조반(朝飯)하고 승선.
학모 집으로 곧장 달려가니 막 새 잡으러 나갔다.
날 기다리려고 준비하던 참인 모양.
탄알을 사가지고 돌이 곧 뒷산으로 갔으나 웬일인지 헛방.
겨우 한 마리밖에 못 잡다.
아침에 학모가 20마리.
내일은 아무래도 돌아가지 못하겠다.
모래 버스로 가야지.
마가린이 좀 남아 같이 석식하다.
태안 호 뱃놈들이랑 빵집서 신세.

11월 4일 월

새벽에 일어나 혼자 총을 메고 갔으나 통 쏘아보지 못하다.
기어이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가려던 참에 학모가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
두 마리 기분 좋게 떨어뜨리고 밥을 들다.
깍두기 김치에 보리밥.
이렇게 달수가 없다.
고구마도 캐 먹고.
비를 맞으며 정글 같은 곳을 쏘다니다.
비둘기 같은 건 맞아도 꿈쩍 않는다.
겨우 20마리 잡음.

‘대검객(大劍客)’을 학모랑.

한창 앞날을 이야기하다 작은 이불에 돌이 파묻다.

11월 5일 화

학모 학교 가는 길에 손을 잡고 헤어지다.

언제 다시 잡게 될는지.

학모가 손을 베면서 만든 ‘백조’ 호 그림을 들고 버스에 오르다.

예쁜 애를 가진 부인을 도우며 같이 탄 게 탈.

배에서 막 내리자 그녀가 검정 가방을 안 가져 왔다고.

미칠 지경인 모양.

강진서 내리다.

주소는 적어놨지만 내일부터 근무는 꼭 해야 할 처지고 그녀와 약속은 하고.

돈도 없고.

에라, 내가 남의 처지를 생각할 때냐 피해보지만 인정에 약한 농인지라 머리가 아프다.

3시간 기다려 그냥 별량 면.

캉캉해진 연후에 들어가니 아직 저녁은 앓고 부엌 수리하고 있다.

같이 저녁을 들다.

다음부터 학모에 대해 금전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겠다.

꼭 물질적으로 상대해준 느낌이 들어 안쓰럽다.

상 경제(商 經濟)에 관해 많이 알아야겠다.

‘아편전쟁’도 유익하다.

상 전략(商 戰略)에 언급한 소설을 구해 탐독해야지.

휘영청 밝은 둥근달 아래 대변을 보다.

11월 6일 수

늦게야 일어나다.

부면장께 변명은 삼가고 얘기 드리다.

이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겠다.

주의해야겠다.

방을 저쪽으로 옮기다.

해가 지는지 서쪽 문에 붉게 물이 들다.

오늘부터 나 홀로 고독을 짓씹어야 하는가.

허전키 짝이 없다.

방에 쌀아 논 고구마 하나 꺾아먹다.

석식 후 도보하다.

가로 옆 교회에서 종소리가 연달아 울리다.

학모에 서신을 띄우다.

11월 7일 목

어머니께서 손수 쓰신 서신을 받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솟는다.

이제부터라도 심신이 편하셔야 할 텐데.

11월 8일 금

세탁소에서 무슨 계 치렀다고 모든 직원을 초대한다.

이광대, 김용근, 김진중 씨랑 바둑을 두다.

갑자기 추워진다.

11월 9일 토

어제 빨아 널어놓은 옷이 덜 말라 방에 널다.

양말을 빨고 발을 씻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다.

갑자기 밀어닥친 한파!

벌써부터 눈이 내린다.

더더구나 여러 해 눈을 통 볼 수 없었던 지역이라는데.

산업계장이랑 눈보라를 스치며 송산리로 출장.

막걸리를 한 되 이상 마셨더니 머리가 팽팽 돌고 입술이 제대로 벌려지지 않아 말을 삼가다.

늦게야 돌아와 저녁을 하다.

추워서 그런지 오늘 상영한다는 ‘가슴 아프게’를 해주지 않는 모양.

기쁜 영화사 직원들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취했을 것 같다.

바깥바람이 차다.

얇은 이불 한 장에 담요 한 장.

떨며 야릇한 꿈을 꾸며 자다 일어나 전등을 켜고 일기를 쓴다.

‘백조’의 주위가 파랄다.

지금 어머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일어나셔서 인철, 종철의 아침을 준비하시리라.

나를 염두에 두시고.

68.10.10. 일. 오전 5시

11월 10일 일

제숙 댁(弟淑 宅)으로 가다.

만근(萬根)이 설계공부 지도하며 바둑도 두고 저녁은 호박죽 두 그릇으로 채우고 '새로운 소 주택'과 'Spoken American English'를 빌려오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겨우 켄트지 하나 구입하고

농협 창고에서 '가슴 아프게'를 감상.

11월 11일 월

이광휴와 바둑을 하면 꼭 이기는데 수가 더 약한 김(金)과는 꼭 진다.

너무 야심적이라 그런 모양이다.

소(小)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소(小)가 곧 대(大)로 통하니까.

11월 12일 화

오후엔 출장. 회의 후에.

장산엔 할아버지만 계시고 밭 갈러 나간 듯...

송정통장 댁에 들린 후 보리 파종 터에...

송내는 출타중이라고 그 숙부가.

'국제간첩(國際間諜)' 과 '강명화(姜明花)' 전에 본 것.

11월 14일 목

한국일보사 주최로 '이해랑 이동 극장단(移動 劇場團)'이 와 허튼 기분에 적잖게 서비스하다.

왠지 마음이 술렁댄다.

단원 중 꼬마아가씨 시중을 들다.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귀엽다.

11월 15일 금

세숫물도 떠다 바치고...

여하튼 헤픈 녀석이다.

그냥 버스에 몸을 싣고 하염없이 떠나버릴 그들.

유감없이 떠나버리고.

여하튼 무정하다.

11월 16일 토

처음으로 카빈총을 쥐어보다.

예비훈련을 받고 11명이 버스에 몸을 실어 별교로.

관향식당에서 기생의 대접을 받으며 생전 처음으로 호식을 하고 호식하고.

난생처음 기생과 악수를 하다.

모두 나의 주량에 놀란다.

다음 다른 곳에서 고성방가하다 택시로 돌아와 역전에서 막걸리하고 12시 다

돼서야 들어오다.

11월 17일 일

늦게 일어나다.

속이 쓰리진 않는다. 오히려 화색이 좋을 지경.

2시쯤 면장실에서 훈화(訓話).

박종옥 씨가 교회에 나갔다 오시다.

다음부터 같이 나가기로 하다.

과자를 많이 하다 숙직실에서 자다.

11월 18일 월

배드민턴을 처음으로 해보다.

처음엔 잘 안됐으나 차츰 잘 됐다.

봉급이 7~8,000 밖에 안 된다고.

모와 어머니의 서신을 받다.

우울하기 짝이 없다.

경제상 많은 타격을 받는 모양.

하숙비 치루고 파티비 치루면 조금도 남는 게 없을 텐데.

순천식당에서 저녁하고 야근하다.

숙직실에서 자다.

11월 19일 화

건담직파(乾番直播) 선정(選定) 면곡(面穀)에 수판을 대다.

이장 회의 후 막걸리 파티. 한 잔 슬쩍.

병표와 한잔하고 저녁을 들다.

집 생각에 수심이 가득하다.

야간학교 교사의 생각이 파고든다. 돈!

11월 20일 수

만족할 만하다.

10일까지 합해서 8,600정도니까.

하숙비 치루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달 치가 a 떼고 7,983원 밖에 안 된다.

9,000 이상은 해야 하는데.

자치회장의 전별금이니 불필요한 편.

11월 21일 목

병표랑 심심한 차에 면(面) 앞 철길에서 과자랑 감이랑 막 퍼 놓다.

잘됐다. 총무계장이 이젠 하숙 그만 하려다고 하더라고.

조금의 이익이었을 테니까.

11월 22일 금

이지열 지국장과 이야길 나누다.

아줌마가 너무 바쁘고 나 혼자 하숙하니 남는 게 없을 것이니

그냥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을 거라고.

변명하기에 바쁘다.

여하튼 매우 타산적인 인물이다.

살림은 잘 꾸려나가시겠지.

공기총 매수 여부에 값을 못 이룬다.

11월 23일 토

오후까지 밥을 거기서 먹고 짐을 옮기다.

회의가 있어 늦게야 병자랑 순천식당에서 저녁하다.

공기총을 월부로.

바쁘게 치우고 버스로 향순(向順).

병표 먼저 향광(向光)하고 난 제숙 댁(弟淑 宅)에서 서류를 들고 합동정류소에
서 표를 끊다.

고급 택시와 인연이 있었던지 입장한 아가씨와 동승하다.

도중에 내려 그네들은 식사하고 난 돼지고기에 약주하고.

늦게야 어머니를 뵈다.

낮에 역을 왔다 갔다 하며 기다렸다는 것.

11월 24일 일

00이가 포마드 날 주라고 했단다.

역시 고마움은 아는 모양.

이젠 한글을 대충 마스터한 모양이다.
옥화, 희영이네가 수피아 근처로 옮기다.
형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나다.
도중 깜박 잠이 들어 순천까지 가버리다.
45원을 어쩔 수 없이 물고 2시간을 기다려 버스로 내려오다.
조그마한 실수지만 염두 해야겠다.

11월 25일 월

어둑할 때 일어나 총을 들고 뒷산으로.
허탕.
청 앞 나무에서 부엉새 2마리 잡다.

11월 26일 화

역시 일찍 일어나다.
통 새가 없다.
나폴레옹을 그리다.

11월 27일 수

쫓아 다녔으나 허탕치고 돌아올 때 대나무에 있는
딱따구리를 단방에 떨치다.

11월 28일 목

출장 겸 총을 메고 장산에서 까치 4마리와
딱따구리 1마리 잡다.

29일, 잘 요리해 송(宋) 양과 같이 먹다.

12월 2일 화

구룡 공판 대비 대룡을 수증 씨와 담당했으나 여의치 못해 그냥 송기 구장 댁
에서 자다.

공기총을 메고 돌아다녔으나 허탕.

비둘기 한 마리가 대나무에 뒹굴어 죽은 줄 알고 흔드니 멀리 날아가 버려 서
운.

12월 3일 수

병표랑 세금 받으러 농협 앞 아줌마 댁에서 점심을 맛있게 얻어먹다.

김장 첫 마수는 우리가 해버리고...

12월 4일 목

추경(秋耕) 지도 차 총 매고 수덕으로 출장.

가랑비를 만나다.

12월 5일 금

덕산 출장.

신송 동막 구장의 알미움에 알곶은 대꾸를 해 줬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어쨌든 약주는 얻어먹고 내 화색은 좋아지고.

12월 6일 토

봉림 공판 날짜라 독려하러 장산을 병표와 돌아다니며 고구마를 얻어먹고 일
꾼들이랑 술잔을 들다.

순천을 버스로.

전에 다정했던 여인이 결혼해 버렸다고...

12월 7일

내일 공판에 대비 버스로 송기(松基)로 가 수중 씨와 대전으로 가다.

골짜기 골짜기로 5킬로미터 정도.

지붕 잇는 집에서 점심과 술을 하다.

송기 구장 댁에서 취침.

12월 8일 일

농협에 내려오는 도중 3일 날 점심 해주시던 예쁜 아줌마를 만나
고구마를 얻어 술독에서 구워 먹다.
점심은 병표랑 세금 받으러가서 얻어먹고...

12월 9일 월

오전만 청 내에서 근무하고 총을 메고 장산이랑 회의공문 전하러 출장.
겨우 딱따구리 한 마리.
까치는 도저히 못 잡겠다.
해질 무렵에 대밭에서 비둘기를 발견했으나 날아가 버리다.
내일 어둑할 때 메고 와야겠다.
쌀이 없어 외상으로 병철이랑 순천식당에서.

12월 10일 화

캠캉할 때 깊이 자고 송정(松亭)으로 가다.
내가 발견치 못하고 접근하자 비둘기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한로를 만나 골짜기에서 토끼와 꿩을 발견했으나 한발도 발사해보지 못하다.
급히 아침을 하고 이 주사랑 대곡(大谷)으로 주민증 사무 보러 가다.
요사이 쪽 술을 빼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캠캉할 때 들어와 순천식당에서 여럿이 저녁을.
기타를 병철이와 같이 익히고 있는 중이다.

12월 11일 수

설익은 아침을 치우고 수덕 쪽으로 추경지도(秋耕指導) 출장을 가다.
청 내에 처박혀 있는 것 보단 출장 가는 게 자유분방스러워 자주 나가고 싶다.
지리도 익히고.
군에서 경찰과 함께 양곡불하 때문에 문책하러 온 모양.
똑같은 도둑놈들인데...
십자약국 아줌마와 이야기하다.
자주 와서 전축으로 즐기고 이젠 병표랑 꼭 교회에 나와 달라고...

12월 12일 목

콩으로는 무영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비가 조금 내린 모양.
일어나 보니 축축이 젖어있고 구름이 흩어져 한파를 밀고 온다.
갑자기 쌀쌀해졌다.
동생으로부터 글월이 왔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엔 윗 쉼타라도 해드려야겠다.
어머니, 학모에게 안부서신을 쓰다.
학모와 여수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끔 어떻게 해봐야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타와 함께 배우다.

12월 13일 금

김 주사랑 마산으로 주민증 지문 채취 사무 하러가다.
주민증을 남녀로 구별하여 여(女)는 내가 쥐다.

점심 후 쪽 계속.

저녁은 닭고기와 막걸리로.

파고다 한 갑씩 받다.

이 주사로부터 고마운 훈계를 받다.

친구로부터 고마운 편지를 또 받고.

12월 14일 토

대송으로 가다.

전에 무안을 줬버린 동막, 신송 구장들과 함께 일하다.

닭고기를 먹다. 담배 한 갑씩과.

편지를 띄우다.

갑자기 오후부터 추워지다.

12월 15일 일

요사이 쪽 냉수마찰을 해오다.

오늘 새벽 일찍 추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벗어치우고 물을 끼었다.

원창 주민증 사무. 토(兔)선생을 구워 먹고.

책상이 있어 편히 했으나 발이 시리더라.

12월 16일

군에서 독촉 전화를 받고 곧 유휴답 지력증진 사업계획을 작성, 발송해놓고

총을 메고 장산(長山)으로 가다.

산으로 산으로 막 달려 마산까지 가다.

매, 비둘기를 봤으나 한방도 쏘아보지 못하다.

오리는 한 마리도 발견 못하고.

학모 생각이 자꾸 난다.

지금은 졸업고사를 치루고 있겠구나.

아마 마지막 고사일 이겠지.

12월 20일 금

월급을 받다.

빵집에 외상값을 갚고 병원이랑 별량 식당 외상, 순천식당, 중화요리 집 등에
외상을 다 갚아버리다.

12월 21일 토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곧 버스로 벌교로.

거기서 광주여객을 갈아타고 광주로 향(向).

남광주를 그냥 거치고 총장로 거리를 걷고 싶어 목회사에서 내려 집까지 걷다.

총장로 거리가 좀 달라진 게 있다.

영화 포스터도 낫설고.

어머니를 뵈오니 동지죽을 만드시다.

반가이 맞아주셨다.

양동에서 산 쉼타를 드리다.

다음 달 또 쪼들리게 됐지만 흐뭇한 마음 그지없는 대신...

12월 22일 일

어머니 등이 너무 굵으셨다.

라면 한 박스 떼어 남광주역에서 향별(向別)하다.

내 앞에 앉은 아가씨가 전화 받침 뜨개질을 하고 있다.

유난히 손매가 고와 눈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미여서 내려 서운하더라.

두 짐을 양손에 쥐고 청(廳)으로 향하니 손가락이 시리더라.

학모에게 선원증(船員證) 할 비용을 못 부치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안쓰럽다.

12월 23일 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타로 배우다.

젊은 기분에 멋있게 보내게 될는지.

학모, 학모로부터 시험에 구애받아 나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못 지내게 되어 안됐다는 글월을 받다.

곧 이브 0시에 같이 잔을 들기로 하다.

12월 24일 화

다 가버렸다.

과자를 얻고 소주에 허전한 마음을 다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달래다.

그저 서운하다.

12월 25일 수

잘 되지 않은 막걸리와 과자도, 하지 않는 노랫가락으로 괜시리 떠들어대다.

12월 27일 금

구룡 뺨기 뜰에서 추심경 대회를 갖다.

준비가 없어 38두(頭) 밖에 나오지 않았다.

군에서 낫 한 자루씩 배부하고 1등엔 제초기, 2등엔 삼을 증정.

12월 28일 토

원창에서 추심경 대회를 마치고 오는데 청이 소란스럽다.

기공식 아치가 다 부서져 너절하게 헝겊이 늘어져있다.

실갱이와 실갱이의 연속.

난로 옆에서 완전 철야.

그네들은 밖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12월 29일 일

군중들이 완전 밤새움하고 다시 몰려온다.

면장실과 타합한 후 지시를 받아 회의 수배를 가는 도중 장막 구장과 언쟁을

하다.

운천 입구에서 면장님의 애원에 다 청으로 모였다.

많은 플랜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군수 영감의 “여러분의 일시지급에 응하지 못할 경우 기공식은 하지 않겠다.”
는 확약에 승리감을 안고 돌아가는 군중.

12월 30일 월

청 내(廳 內)에서 근무.

오후 출장. 내일 가기로 하다.

12월 31일 화

지문 미 채취자 독려로 출장.

이악이 씨의 서울에 있었던 자녀가 온 모양.

떠들썩하다.

무엇을 했건 간에 저렇게 부모를 모실 줄 아니.

송내를 거쳐 하노 집에서 점심과 소주를.

상당히 취한 모양.

송정 구장으로부터 박(朴)주사 것 공기총을 가져오다.

고장이 나 안됐다.

한숨 짝 늘어지게 자다.

난로 옆에서 과자 등을 들고 0시를 보낸 후 - 1969를 맞는 후 - 잠자리를 들
다.

1969년 1월 1일 수

새파란 하늘, 금방 얼음장 깨지는 소리를 내며 무너질 것도 같다.

두둥실 떠올라 따뜻이 비춰주는 나의 해님.

천원을 껴 순천에서 '대장군'을 보고 그냥 돌아오다.

청 내엔 면장, 지서장 등 여러분이 환담 중.

숙직실엔 여러 직원들이 화투에 여념 없고.

옆방에서 기타를 연습.

1월 2일 목

산업계장님이 5일에 와도 좋으니 집에 갔다 오라고.

술기운에 잔소리가 많은 분이다.

1월 3일 금

오늘까지 쉬는 날이지만 먼 행정은 아랑곳.

3시에 회의 곧 운천저수지 매몰지 피해민 조사에 나오다.

철호, 이주사와 장날이라 술잔 좀 하고.

주먹질을 각오하고 장학 구장 댁에서 일을 좀 보다 저녁을 같이하다.

오늘이 장학 회의 날이라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가야겠다.

1월 4일 토

일찍 일어나 추위를 무릅쓰고 이주사와 장산으로 .
황씨 댁에서 일을 보고 점심 아닌 조반을.
송정을 거쳐 돌아오다.

1월 5일 일

피해민 조사 한 몽텅 작성하다.
농기구 기계 상황조사지를 박아놓다.

1월 6일 월

월요일의 후 별량 농가조사로 병천이랑 총을 메고 송산으로, 장산에서 벤치보
다 조금 작은 새를 잡고 신구장과 인사하다.

송정에서 산업계장 고속 댁에 혼사가 있어 한잔 잘 먹고 송내에서 상이군경
중 하나인 신구장과 인사.

곧 병천이 집으로 따뜻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다.

재무계장 딸과 병천이가 장난치는 모습이 천진난만해 재미있다.

1월 7일 화

장날이다.

하노 아버지가 와서 사료 2가마를 가져가다.

셋이 풀빵을 막 먹고.

1월 8일 수

별량 농가 조사에 전 직원이 야근.

상당히 복잡하다.

1월 9일 목

가족계획 요원이 새로웠다.

내 누나나 돼졌음 괜찮겠다.

겨우 조사 작성을 끝내다.

1월 10일 금

하노가 군에서 용지를 가져와 곧 복사하다.

편지 3통을 쓰고

이숙 댁을 들러 문안드려야겠다.

계획을 세워 공부도 해야겠고.

송학, 운천 출장 보던 중 비가 쏟아져 흠뻑 젖어 장학에서 드러눕다.

달같이 깨져 주민증이 엉망, 고랑에 고인 빗물에 행구다.

곧장 송정에서, 송내에서 발급.

코, 입도 크고 예뻐장하고 어찌고저찌고.

“중매해줄 테니까 우리 송정으로 장가드시오.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마땅한 처녀가 없단 말이오.
그렇잖아도 하노한테 부탁했는데 못 들으셨소?”
태만의 연속.

1월 21일 화

곧 학모에게 서신 첨부, 3,600을 부치다.
왜 편지가 뜸 하느냐고, 어머니께서.

2월 5일 수

어제 비가 내려 예비군 훈련이 오늘도 연기.
흑탕물에서 훈련 받다.
산을 뛰어다니며...
총무계장님께 3,000을 꺾 내일 친구에게 갈 차비를 하다.
아버진 안 따라가고 친구 따라간다더니...

2월 6일 목

오전 집무, 오후 회의실에서 출장회의.
미루고 차비를 채려 순천으로, 곧장 완도로 향하다.
강진에서 내려 빵으로 저녁을 하고 과자, 사과를 좀 사들고 바꿔 타 완공을
본 완도교를 지나 저녁 늦게야 들어가다.
“계십니까? 나여 나, 영철이”

반가움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학모.
송태현 군이 또한 반긴다.
편지 받고 태안호로 올 줄 알고 기다렸었다고.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2월 7일 금

해가 높이 떠서야 일어난다.
곧 같이 학교로.
길이 질퍽하다.
학부형 사사에서 어떤 부인의 유창한 축사가 귀를 기울이게 하다.
다과점서 선술집서 같이 어울리고.
꽃다발을 준비 못 해 서운타.

2월 8일 토

같이 짐을 꾸리고 나서다.
애석치만 거리낌을 받을 필요조차 없다.
강진서 헤어지고 거리에서 빵을 들고 산탄을 사들고 해지기 2시간 전에 별량
도착.
책임이 있어 9시가 넘도록 송학을 돌며 돌아 출장용무를 보다.

2월 13일 목

비가 끈질기게 내린다.
5,000을 받다. 기분은 좋지 않다.
오히려 돈 걱정 뿐이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누구든지 만나면 못살게 굴고 싶다.
학모로부터 안부편지 받다.

2월 14일 금

못나게도 비가 질금질금 내린다.
재무직원들이 군에서 합동 집무.
늦게야 헬기장 공사 동원으로 송내, 송정, 장학을 뛰다.
캄캄한 때에 질퍽한 곳을 헛 밟아 신이 엉망.
통 고생한다는 느낌조차도 안 든다.
내일 무조건 저질러놓고 봐야겠다.
3,000 정도 어머니께 부쳐놓고 보자. 다음은 어떻게 되던.
산업계장님과 내가 숙직.
같이 한잔 들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공부해야겠다. 돈 벌면 인간 버리고 만다더라.

2월 15일 토

헬기장 설치로 장산면민을 동원, 산을 타고 10시에 도착.
김순경이랑 합세, 100여명이 삼질을 하고 온갖 머리를 총동원했으나 1/3도 못
끝낼 것 같아 구장들이랑 하산.

타협하다.

내일이 구정 앞날인데 도저히 동원시킬 수 없다고.

잘됐다.

눈아, 평평 쏟아져라.

돼지고기를 나눠 내가 다섯 근을 갖다.

2월 16일 일

눈에 비가 겹쳐 길에 온통 죽을 썬놓았다.

아무래도 가봐야겠다.

10시 30분 차로 병표가 끊어주는 표로 올라타다.

사과, 과자를 사들고 문을 열어본 즉 아무도 없다.

역시 내 집이 아늑한 곳.

안 올 줄 알고 편지 막 띄우고 오는 참이라고 하신다.

마음 모질게 먹지 않음 안 되겠다.

종철이가 야간 3학년에 편입해야겠다고.

형이 와 코를 골고 있다.

꼭신하다.

이렇게 마음 편히 잘 수가...

2월 17일 월

12시 20분 차로 향량(向良)하다.

멀리 걸어 뒤돌아보니 그대로 서 계시다.

가슴 아프다.

인사드리고 곧 제숙 댁에 세배.
수자가 아직 안 가고 있다.
인사도 없이 부드럽게 지나게 되다.
화투를 매우 잘 친다.
차비까지 털려 100을 개평 받다.
늦게야 고전 '대학'을 읽다 꿈나라로.

2월 18일 화

왠지 가기 싫다.
우산을 받고 꼬마들이랑 '이층집 새댁'을 보다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 모습 초라함을.
인근이랑 '블루'를. 서부극 중에선 그래도 나은 편이다.
박상철 얘기, 기숙사 얘기 모두 나를 서글프게 하다.
역시 후회를 앓을래야 앓을 수 없다.

2월 19일 수

나란히 또 '결근'이 찍혀 있다.
기분 나쁘지만.
병표가 순천우체국으로 간다고.
배꽃에 마음 걸려 악심을 먹고 분투해야겠다.
드러누웠다. 통 잠이 안 온다.
전화벨이 울린다. 불을 켜다.
전통 준비, '맥류 포장 관리 철저'

잠바를 걸치고 책상 앞에 앉다.

콧물이 줄줄 흐른다.

2월 20일 목

그 위에 지참이 찍어져 있다.

병표가 갈 서류를 챙기고 나는 최육 맥에서 전 직원과 점심한 후 금산사로 출장.

수도종자 신입(水稻種子 申入)으로 과동, 금동, 대치를 한잔 씩 하며 돌아.

땅거미가 짙어오는데 비가 한 두 방울.

2~3리 길을 내달다.

몸이 으쓱하다.

이미 어두워졌다.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숙직실에서 약주하시며 환담하시고 계시다 숨 가쁘게 들어오는 날 반긴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찬사는 들었지만 짜름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시 180도 뒤돌아보자.

깊은 잠에 빠지다.

2월 21일 금

일찍 별량에서 조반하고 신천으로 출장.

한잔 씩 나누며 중매이야길 나누다 돌아오다.

사진 촬영 기술을 익히고 산업계장님과 병천이랑 오산에서 주민등록 사무를 보다.

재무계장 댁에서 헛 장난치다 병천 집에서 한숨하다.

2월 22일 토

그릇 소리에 깨어 병천이랑 재무계장 댁에서 조반하다.

영자는 벌써 점심도 안 싸가지고 가버렸단다.

단방에 무영새 하늘 떨어뜨리고 내동에서 용무.

외동 철호 모친이 날 보시고 잘생겼다니까 옆 할머니가 사위 삼으라고.

난 한바탕 웃고.

구전 부면장 댁에서 저녁을 전 직원과.

내가 뭣이 되어 이렇게 건설하고 저렇게 복지 향상을 위해 땀 흘리고... 등등
푸른 꿈을 - 허한 꿈일는지 모르지만.

홍세미 운운, 전남일보 오리다.

몇 달 전 사직공원에서 아카시아를 올려다보며 헛꿈을 껴던 생각이 멍끗(흠칫
의 사투리) 가슴을 치미다.

배꽃을 보고 분발하면 어떨는지.

외곶으로 뚫자.

대의명분 다 집어치우고 영어 하나 뚫고

다음 생각해보자.

2월 23일 일

산업계장님과 송산으로 사진기 들고 출장.

송내, 장산을 거쳐 다시 송정.

기다리다 이장님과 사무를 보고 한 잔씩 나누며 한담하다.

호병계 일을 거들다.

2월 24일 월

새벽부터 호병계의 일인 짐계를 내다 늦어 결근이라 찍혔다.

지참이라 고치고. 기분 나쁘지만.

오후에 김용근이랑 덕정 출장.

수덕에서 풍병인(風病人), 맹인(盲人) 까지 다 찍어 끝내고 상삼 이장 없어 백동에서 모두 끝내고 돌아오다.

앞 이발소 개업인지 원지 여럿이 저녁을 하고.

발이 새까맣다. 양말도 빨아야겠는데, 게을러서.

2월 25일 화

김용근은 순천행.

혼자 상삼, 승곡, 효신촌을 다 쏘다니다.

전 면장 맥에서 곧 시집간다는 선희 언니의 부름에 양채 좋게 떡국, 막걸리로 배를 채우고

발, 양말을 세탁.

어머니, 학모에게 글월 띄워야겠다.

2월 26일 수

김군과 운천리 출장.

다 마치고 지그재그 걸음 비슷이 신촌으로 걸어가는데 부락엔 커다란 구름장
같은 연기가, 가가호호마다 곧은 연기가 쪽 위로 서서히 오른다.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이 또 있을까 싶다.

내 마음 후련함을 느끼다.

신촌 이장 댁에서 저녁을 하다.

짓씹은 보리알 마다 학모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돌아와 난로에 오징어 굽고 이군과 소주.

2월 27일 목

셋이 원사리, 굉장한 집이다.

운천 주민증 하나 알쏭달쏭. 내일 찾아봐야겠다.

총 값 어떻게 해서 줘버려야겠는데.

2월 28일 금

소동이 났다.

운천리 의운까지 한숨에. 실경이. 겁도 난다.

부면장이 온야(溫野)까지 확인하러 오시고.

3월 1일 토

별량교(校)에서 식을 마치고 병천 집으로.

괭이 옆에서 푸드득.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한 마리도 못 잡다.
땀이 등에 후줄근하다.
말라버린 언덕 풀을 불 피우면서 돌아오다.

3월 2일 일

병천 밭에서 보리에 흙을 덮어준다.
서둘러 잘 안 된다.
수덕에서 막걸리 등등 금산 애랑 들고 와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며 한잔씩 들
이키다.
한해에 시달려 통 찰밥을 하지 않는 모양.
저녁에 찰서숙 밥 해먹고 처녀들 있는 방에서 옥 얻어먹고 모두 기분 나빠하
다.
종선이 집에서 금산 애가 기이한 몸짓, 언동으로 웃겨준다.

3월 3일 월

모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괜스레 걱정이 되기도.
하노가 안됐다.
같이 가자고 조른다. 재미있는 애다.

3월 4일 화

기타를 신석 애한테 사오는 병천이를 보며 반갑기 그지없다.
기어이 마스터 해버려야지.

3월 5일 수

술을 사왔다. 모두 660이 든 셈.
맞추다 세 번이나 끊게 하다.
그래도 상당히 잘 튕겨진다.
병수 씨가 후릿대가 많이 휘었다고.
언제 저렇게 실력파가 될까?

3월 6일 목

통 영어 공부가 되지 않는다.
자세를 바로 갖춰야겠다.

3월 7일 금

김(金)과 카메라를 매고 출장.
책값 치르다.
장씨 댁 옆집에서 술을 나누며 찬밥을 비벼먹다.
골목을 배경으로 한 청산이 아름답다.
저수지 물을 배경으로 한판 누르고.

3월 8일 토

2,000원을 꺼 모두 3,000을 가지고 향순(向順).

공기총 값 치루고 병표와 만나 보건소 친구와 한잔씩 나누다.

순천 시가지를 둘러보고 공원 죽도봉을 오르다.

3월 9일 일

일찍 일어나 영어 공부.

운동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

해병대는 2년간 복무하면 제대한다고.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지만 달리 안 된다면.

3월 10일 월

면장님이 오셨다.

기년도 서류를 정비하고.

일신의 안락을 오로지 누르고 있는 게다.

채찍질하는 곳에 더욱 채찍질을 가해도 부족할 내가 어찌된 셈인지 이렇게 무기력하고 결단성 없이 빈정대고 있는 것인가.

서울의 동창들을 보라.

수자(壽子)를 보라.

가슴 메이지 않으며 눈시울 따가와지지 않는가?

어찌 어머니, 형, 동생과 멀리 떨어져있다 하여 홀몸과 같이 안이(安易)를 누리고 있는가.

어찌 앞날을 남의 힘에 기대하며 노력함이 없이 행운을 기다리고 있는가.

남과 비교해 볼 때 무엇 하나 떨어지는 게 있는가 말이다.

그저 모든 걸 포기하고 내 갈길 내걸고 있으니 네 무엇을 원하느냐는 식으로 그냥 허송세월해야만 하는가.

무결단, 무기력을 천성으로만 여기고 안간힘 씀이 없이 이대로 보내고 있을 작정인가!?

대아(大我)! 허울 좋았던 대아(大我)여!

지금도 조금도 늦지 않다!

너는 젊다! 여러 가지의 재능을 겸비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건 네가 알고 있는바 결단성이 결핍돼 있다는 거다.

다만 그것 뿐 무어 부족한 게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단 한가지 결점.

네가 인지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저 무기력하기만 하느냐?

이제 대아(大我) 계절(季節)도 널 조력(助力)하고 모든 게 널 떠받든다.

건강만 회복된다면 했던 거면 이젠 모든 걸 되찾았던 금년(今年)의 시작.

힘껏 이 기름진 땅을 내딛어라.

넘어지거든 웃으며 일어서 다시 앞으로 내딛어라.

다른 것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웬지 자신이 없다.

영영 대학생이란 말을 듣지 못할 것 같단 말이다.

꼭 가야할 건 없지만 눈물겹도록 꿈에도 그려왔던 대학시절 아녔던가.

날에 넘쳤던 힘이 대학이란 두 글자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속 빠지곤 하지 않았던가.

욕망, 미지에의 동경, 꿈에 사는 인간상(人間象).

가슴이 답답하다.

하진이 코고는 소리, 스피커의 조금씩 흘러오는 아나운서의 음성과 같이 머리를 산만하게 한다.

밤새워 사색, 숙고해 보자.

어떤 알찬 결산을 세울 때까지.

지금 10시 반인 것 같다.

3월 12일 수

신석리장을 만나 치도(治道) 당부.

3월 13일 목

화가 치민다.

신석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이센(씨의 일본 말투) 집서 만나다.

일이 바빠 내일해야겠다고.

3월 14일 금

아랫도리를 빨아 넣고 덕정 출장.

수덕을 거쳐 상삼으로. 순희의 결혼인지 들썩하다.

마을 남자 분들에게 전하고 승곡으로.

밭에 땀이 몽썩(몽땅의 방언)하다.

내려오는 개울물에 발을 담그다.

따갑도록 찬 느낌이 말초신경을 통해 피부까지 찌른다.

이상하다는 듯 할머니 한분이 말뚱말뚱 올라다보고, 보고하며 내려가신다.

관아 차(官庠 車) 하나 - 발에 정차해 있던 - 미끄러지듯 농로를 빠져 북쪽으로 달린다.

백동, 하삼을 거치다.

경전 버스(전세) - 자그마한 - 하나 있다.

이상한, 야릇한 감정의 물결이 인다.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병표가 왔다.

내일 서울로 교육 간다고.

최(崔)랑 여럿이 소주를 오징어 발 안주삼아 마시며 이야기하다 녹아떨어지다.

순희 청첩장을 공교롭게 늦게 받아 못 가버렸다고.

3월 15일 토

일찍 병표랑 나서다.

재무계장 댁에서 생일이라고 아침을 들고 반주하다.

병표 부모께 인사드리고.

버스에 올라 가버린 후 길을 따라 내려가다.

수덕은 내일. 다른 곳도 내일. 신촌만 관찮게 끝냈다.

부산하게 돌아와 쏘다니며 바지를 다려 입고 면장 댁으로.

많은 축하객들인지 모를 사람이.

몇 잔하고 뵈은 후 그네들 얼굴도 구경 못하고 우리들만 나와 버리다.

더욱 택시가 붐빈다.

선우취 씨의 '깃발 없는 기수', '추적의 피날레'를 단숨에 읽다.

되게 마음을 사로잡는 저서.

3월 16일 일

괴롭다.

자제심이 없는 탓.

애들과 장난. 남의 눈치를 생각할 건 없지만.

욕 얻어먹는 건 나.

‘되게 속없는 녀석’이라고 할 게다.

재미. 무슨 재미가 있다면 애들과 장난쳐지진 않겠지?

공부, 공부! 먼저 영어! 먼저 자제!

‘싸릿골의 신화’를 읽다.

다 시나리오 화 할 수 있는 소재. 별 꿈 다 꾸고.

3월 17일 월

아침 일찍 오그라지는 쌀쌀함을 박차고 일어나 험산으로 오르다.

부락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스럽게 솟는다.

숨이 가쁘고 장단지가 당긴다.

순천 쪽에서 불그스름한 햇살이 퍼진다.

구불구불 이어나가는 국도와 농로.

논밭의 굴곡 있는 이랑.

갑자기 가파르게 솟은 침산이라 아찔하다.

바닷물에 해가 두 개나 처박혀 내 얼굴에 빛을 반사하다.

웃통을 벗어 제치고 먹을 감다.

3일간의 출장회의를 마치고 운천 김기수 댁을 거쳐 저수지 공사장으로…
눈물이 핑 돈다.

한해(旱害). 이 두 글자. 치가 떨리는 이 두 글자.

두 글자의 후유증이 내 눈앞에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산을 깎아내리고 있는 삼을 친 아낙네들.

바지개(‘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의 방언)를 매고
흙을 퍼 저 나르고 있는 남자 분들.

나이 어린 처녀들까지 나와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1,200여명 된다고 한다.

병표도 나와 삼을 들고 있다.

관광지 될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사업.

한 쪽엔 술집을 벌써 세워놓고 돈벌이에 여념 없다.

시나리오 생각이 확 머리에 찬다.

3월 18일 화

새벽부터 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더니만 끝길 줄을 모른다.

출장 준비를 청에서 하고 있노라니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휩싸여 진눈개비가
돼 보리이파리를 휘두른다.

보리에도 흉년이?

영어공부에 상당한 진전.

기타를 수리해 달래야겠다.

3월 19일 수

일찍 일어나 먹을 감다.

찌푸린 날씨가 가슴을 언짢게 하다.

한 보따리 싸매고 대여 이장과 용무 본 후 캄캄한 주막 골방에서 한순 배(罇)
들고 용운으로.

구장 댁에 이순경이 먼저 와 있다.

신천에서 끝내고 돌아와 한잠 자다.

술기운에 일을 좀 빠뜨렸다.

주문진서 무장공비 7인을 사살했다고.

병천과 돌 뿐이라 흔들어 땀을 뻘 후 영어공부.

3월 20일 목

사무 중에 출장 용무를 보다.

송내, 송정을 거쳐 장산으로. 이장이 순천 갔단다.

신천도 없고 용운은 손님 핑계로 오지 않는다.

괘씸하다.

6,135 받다. 맥이 죽 팔린다.

3월 21일 금

별량식당에 4,000.

술 한 되 그냥 주기에 김(金)이랑 권천(權天)이랑.

3월 22일 토

운천 출장.

이장은 하나도 못 만나고 당부만.

김기수 씨 내외분과 고구마 먹으며 환담하다.

같은 광산 김씨라고.

무슨 파! 알아봐야겠다.

그런 것에 관심이 왜 통 없는지 모르겠다.

3월 23일 일

일찍 일어나진 못했지만 주저앉아 영어공부.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빌까?

왜 어디에 재미를 붙여 한 곳에 집착하지 못할까.

쪼대가 통 안 잡혀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죽을 지경.

공부하다가도 병천, 하노만 들어오면 장난.

친구가 없는 탓인지 병천이만 졸졸 따라다니고.

속직실 낮잠 자고 있는 명중, 광휴 옆 비좁은 곳에 사전을 펴놓고 영어공부.

석양 무렵 자전거를 배우다.

이젠 웬만하게 잘 된다.

3월 24일 월

상당히 덩다.

재산세가 통 안 걷힌다.

※ 일주일 후 더듬어 적다.

대여에서 신천으로, 용운은 이장이 다 걸어준다니까 빼놓고 장산으로 가는 도중 말라버린 잔디 위에서 가쁜 숨을 달래며 그늘 밑을 찾아 눕다.

신천 이장과 나눈 술이 오른다.

저녁 늦게 3~4시간 회의. 완전치 못할 땐 사표 운운.

눈이 부시도록 강한 햇발에 온 몸이 나른해 무기력.

운천은 통 사람이 없어 징수치 못하다.

송산에서 조금밖에 못 걷다.

하노 집에서 자고. (화투놀이 좀 하다)

애가 타기 이만저만 아니다.

대여에서 혼사가 있어 한잔 어쩔 수 없이 하고.

신천으로. 통 사람이 없다.

다 일 나가버리고. 운동산에 조림하러 가고 나머진 논밭에서 일하고.

오늘 저녁 7시에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10시쯤에야 들어가다.

논길을 걸으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다른 직원도 많이 안 걸힌 모양.

늦게야 혼자 저녁을 하다.

옆방에선 화투소리가 유난하나 잠만 꾸벅꾸벅.

4월 3일 목

쌀쌀하다. 옆 회의실 수강생이 통 없다.

처녀 열 몇 뿐. 안됐다.
확인 감사에 장날이다. 어수선.
저녁 늦게까지 상전비료 계산에.

4월 4일 금

부산하게 보고문 작성.
눈칫밥 얻어먹기가 그렇다.
마음 편치 않아.
어머니께 서신 올린다. 돈이란 것 때문에...
1주일 동안 통 책을 들여다보지 못하다.
영어 공부 좀 하고.

4월 5일 토

이광휴가 수국을 가져오는 등 치자나무랑 꽤 많다.
정원에 면장이랑 여럿이 식수하다.
예비군훈련 엉망. 대대장 지적.
사격술, 총검술을 익히다.

4월 6일 일

괜히 날씨 탓인지 들떠있다.
'닥터 지바고'가 오늘은 꼭 보고 싶어 안달.

어데 돈을 좀 취할까 하다 용운 이장의 치사한 행동 때문에 한 되 받아 돌이
들이키고 그대로 드러눕다.

이런 것도 한해(부害)란 두 글자의 후유증인가?

고놈의 앙큼한 눈에 부아가 치민다.

4월 7일 월

직원회의.

십자약국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약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동운이 생각이 스친다.

4월 8일 화

내일부터 종합감사.

회의실에 감사장 준비.

대비하여 청소.

병천이가 늦게까지 변소 치우는데 수고.

4월 9일 수

수강생들을 교회로 쫓아버리고 회의실서 인사를 나누고 감사에 들어가다.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것.

내 온지 얼마 되지 않고 나는 받을 필요도 없지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감사

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면 행정, 문서 행정.

“이것 알아서 했지?” 이해는 잘 하시는 군.

정병수랑 병천이랑 기타에 맞춰 떠들어 대다.

4월 10일 목

정(鄭)이 다 끝마쳤는데 건담직파(乾番直播) 각서에 도장이 빠져 지적.

김(金)이 많이 당하고 있는 모양이다.

농협에 들렀으나 아직 안 돼 허탕.

양잠 기자재 공급 공문을 띄우다.

4월 11일 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지 않는다.

오전 중에 감사는 끝장이 나고 내일은 강평농협에서 조합으로 가는 ‘비료수급 계획’을 가져와 군에 올리다.

상전(桑田)비료 관리가 엉망이다.

비료 수급 또한 엉망. 수도 종자 공급에 죽산리 차가 잘못 돼 엉망.

정병수랑 꿀 빵을 먹고 김용근의 면곡(面穀) 복사에 시간을 상당히 보내다.

계운이가 찾아와 이센 집에서 한잔 들이키는데 배가 차 오르기 시작.

같이 운천 저수지까지 걸고 거기 주막에서 또 한잔 갈리다.

4월 12일 토

면장실에서 감사 강평.

많은 지적을 당해놓고 보니 보완을 해놓을 걸 저마다 한마디.

출장회의를 끝내고 보건소 버스에서 아래 왼쪽 둘째 아들 보완하다.

4월 13일 일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로 혼잡하다.

계량기 단속을 하려다 미비한 점이 많아 다음 장날로 미루다.

양잠 기자재를 농협에서 인수받아 면으로 옮기는데 진땀을 빼다.

3인에게 수배하고 나머진 보관.

이발 후 출장하려했으나 너무 늦어 내일 가기로 하다.

첨산 등성이에 구름이 짝 깔려 하얀 구렁이가 골짜기를 기어오르는 게 만개한
벚꽃사광도 조화되어 아름답다.

스냅사진 좀 찍고 싶다.

날씨 탓인지 온몸 나른하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의 배경치.

불 꺼진 청에서 창에 기대고 올려다 볼 때의 환희와 애수의 뒤범벅.

혼자 감상하는데 서운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와 말없이 올려다보고 이렇게 같이 오래오래 날이 새도록 보고 또
보고...

외등에 연분홍이 거의 백색이 되다시피 되어 말간 우유 빛을 낸다.

비가 후두둑 쏟아진다.

눈이 곧장 창밖으로. 바람은 아직 불지 않으니 괜찮겠지.

사직공원의 벚꽃이 머리를 스친다.

고 1때 졸업 후. 상채 등등.

4월 14일 월

우울이란 즐지 않더라.

비가 계속 빗꽃 잎 하나하나를 때리며 엉켜 앓고 떨어진다.

3차 비료변경계획 작성하여 띄워놓고 구판장에 90원 짜리 우산 하나 달아놓고 퍼들고 송촌으로.

이장 모친 병으로 굿 한다고.

송정에서 다 마치고 돌아오다.

4월 15일 화

장산 출장 끝내고 우산을 놓고 송정으로.

마음 맞은 곳이고 어쩐지 쓸리는 곳이다.

술 권하는대로 마시고 배불러 터지도록 마시고 꺼진 후에도 옷 찾아준 사례로 닭 뜯으며 마시다.

놀다 자고 가라는 걸 그냥 들어와 술김에도 정신 차려 주판질을 해 맥류파종 면안(面案)에 손대놓다.

4월 16일 수

긴급회의. 가족 분위기. 면장 호통. 봄꽃놀이 운운.

맥류파종 면적 통계 마지막 긴급 손질.

저녁에 샌드백 좀 친다는 게 껌질이 벗겨졌다.

꼬마들과 한판 어울리고. 될 대로 되라는 판인가!

4월 17일 목

괴롭다.

내가 사회를 모름이냐, 돈이란 걸 모른다는 것이냐, 사람 다루는 기술이 부족함이나?!

어머님 얼굴이 픽 스친다.

아무 생각 말기로 하자.

송정 청년들이 여기까지 나와 어울리자고 모시러왔다.

4월 18일 금

계량기 단속.

심 계장께 500을 취해 송정에서 놀다.

다들 잘 논다.

빈속에 강술이라, 오른다.

한참 비벼도 대보고 목청 뽐아 보기도 하고 처녀들 배짱이 나보단 낫다.

자고 해 놨이 솟은 후 일어나 조반하고 소개받아 같이 어울린 반곡 애들이 같이 논길을 따라 걷다.

꼭 8시 반, 출근시간이다.

4월 19일 토

집에 갈 준비를 하려는데 꽃놀이 가잔다.
같이 안 어울릴 수도 없고, 어머니 얼굴이 스치고.
늦어 기차를 뒤쫓아 버스로 향려(向麗)했으나 허탕.
오동도를 한창 뒤졌으나 술 취한 부인네 등 등 뿐.
익속하지 못한 곳이라 겁도 난다.
찾기를 단념하고 돌아가려는데 버스가 없단다.
호주머니 돈이란 별로 없고 하숙은 당치도 않다.
똥배짱이라도 쓸 수밖에.
가까스로 20:30분 기차로 12시 다 돼 순천 도착.
너무 늦어 제숙택은 못 들어가겠고 하여 그대로 111호 자가용 시발(始發).
운동화가 작아 발이 아리는 걸 참고 마라톤을 하여 기어이 도착.
1시 30분 넘었다.
통금이란 게 꺼림칙했는데 무사히 잠들게 되다.
아랫방엔 병천이랑 셋이, 윗방엔 윤, 김주사 싸근싸근.

4월 20일 일

기어이 가야겠다.
밥값, 가시 돌친 눈(?), 아마 그럴겠지만 짜증 섞인 눈이지.
연쇄반응으로 급실무(急失務)랄 수 없지만 총(銃)맛.
그러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어머니의 야원 모습뿐이다.
비가, 가랑비가 바람에 날려 후두둑 온 몸을 휘갈긴다.
이두영 씨 덕. 집은 깨끗하나 내 소유 아니라 흡족함이란 없다.
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다.
급한 신발 800에 구입. 2,500밖에.

상국이랑 사직공원에 오르다.

꽃잎 거의 저 조화 등만 초라하다.

이순이랑 2학년 말에 어울렸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정현이는 태어나 벌써 이렇게 자라 말도 잘하고.

어쨌든 빠르다.

4월 21일 월

온 김에 할 것은 어느 정도라도 마쳐놓고 가야겠다.

종철이 고교는 포기해야겠고 5급을 종용하다.

여지없어 기분 전환으로 영화 값도 못줘 안쓰럽다.

해 다 저물어 숙직실, 즉 내 방으로 입실.

밥을 먹고 우선 오늘저녁만 모면하기 위해 내일 치룬다고 일러두다.

내일은 모르는 인간인가.

앞날의 방향을 연구해봐야겠다.

병역 3년. 위험. 교대(敎大). 마도로스. 4급.

4월 22일 화

식대를 마련하려 발버둥.

염치없어 밥 먹으러 가지 않고 하노랑 같이 해먹다.

4월 23일 수

장날이다.

계량기 같은 걸 단속하고 30짜리 국수 하노랑 때우고 최주사에게 부탁하다.

4월 24일 목

고대 입시는 결정했으나 안정이 안 돼 진도가 없다.

책 같은 걸 빨리 구입해야겠다.

4월 25일 금

비가 너무 쏟아져 보리 수확에 많은 지장을 초래케 할 것 같다.

김작수 씨가 나보다 그럴게도 비위가 없느냐며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신다.

사실 그런 걸 어떡하나. 사실 너무 담이 적다.

식대는 마련됐으나 선뜻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공부가 통 되지 않는다.

얼굴이 야위고 풀이 죽어있다는 걸 나 자신 깨달으나 왠지 모를 어떤 희망에 가슴 훈훈하다.

4월 26일 토

하노가 없어 내 임의로 밥 짓지 못하고 출출하던 차에 이센 덕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막걸리 한잔 들이키다.

정주임의 종자관계 업무 좀 거들어주다.

4월 27일 일

종축(種畜)검사 후 순천식당에서 7인이 점심.

언변이 능변이라 탈이나 사교적인 성격이 부족해 문제점이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장터에서 '소라의 꿈'을 보다.

너무 사람 됨됨이 좋아서일까 아부적인 성격이 있어서일까 남 싫어하는 일은 좀처럼 못하겠다.

대인접촉이 잦아지면 자연 경우가 좋아질 것도 같다.

4월 28일 월

토종 신입서(兔種 申入書)에 인장이 빠져 산업계장에게 싫은 말을 듣다.

참고 참아도 못 이겨 터져 나오는 신경질적인 나무람인 줄 알고 있어 더욱 괴롭다.

식은 밥 조반으로 이산 댁에서 때우고 점심은 하노랑 거기서 30짜리 국수로 때우다.

결단 없었던 일주일을 넘기고 2,600 별량식당에 지불하다.

곧 갚아버려야겠다.

'울고 넘는 박달재'를 보다.

시집살이를 파헤쳐놓은 영화.

송정 아가씨들의 '이리 좀 와보세요'를 웃음으로 넘겨버리다.

4월 29일 화

일찍 일어나자마자 춘종(春種)을 개별로 묶어놓다.

호병계의 급한 일 때문에 출장 못하고 내일로 미루게 됐다.

박계장 님이 반발하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내일로 연기하고 바쁘게 내 업무와 호병계 일을 뒤적이다.

가장 보람 있게 일을 해본 것 같다.

비가 짓궂게도 주룩주룩 내린다.

4월 30일 수

일찍 일어나 막 떠오르는 햇살을 받고 칫솔질하다.

하로가 집에 간지라 라면을 끓여 조반으로 하고 출장 타합을 본 후 최군에게 100을 빌려 금치(琴峙)로 가다.

진치를 지나쳐 대치에서 종자를 배부하고 점심하다.

개나리가 온통 동적산을 덮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짙은 핑크가 햇살을 정면으로 받아 내쫓는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핑크 곁에 뒹굴며 아무 잡념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일이 바빠 아쉬움을 남기고 지나치다.

금동 이장이 논에서 일하고 있다 그대로 뛰어나와 일을 봐주다.

과동에서 1장(杖)을 반쪽으로 나누고 조합을 거쳐 용두, 척동, 신석, 동송을 지나다.

동송이 제일 경치 좋은 것 같다.

5월 1일 목

연탄불이 꺼져 갈팡질팡하다 이선 댁에서 빵 40원 어치로 둘이 조반으로 때우다.

점심도 풀빵 30으로 때우고.

통 힘이 없다면 어머니를 대할 때의 어떤 희열을 느끼다.

구덕을 파고 나무를 패어 불을 지펴 밥을 끓이고 국을 끓인 후 처음일 것 같은 맛있는 저녁을 하다.

5월 2일 금

학모로부터 서신을 받다.

아직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어떻게 잘 돼야 할 텐데.

여기는 힘 쓸 곳이 못되고.

5월 3일 토

계량기 단속하며 장터를 쏘다니다.

총무계장께 부탁했으나 귀찮은 모양.

기어코 수금원이 왔다.

점심 먹여 보내버리다. 300원 씩.

5월 4일 일

총 손질 해놓고 송산리 정동까지 올라가 인보 상조 양곡 회수 각서 인을 받고 내려와 곧 순천으로 향(向).

비가 쏟아져, 적시며 통일교회도 찾아가 타함 본 후 마가린과 수학1, 물리를

사들과 김약국 댁과 같이 오다.

3,000을 더 불입해야 하는 게 서운하다.

양성규 형이라는 그 책방 주인과 대입(大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게 흐뭇
하나 돌아와 수학1을 펴 보니 웬일인가 통 탄판이다.

미적분까지 들어가고 인수분해, 1·2차 함수, 삼각함수 같은 건 쏙 빠져있다.

내 힘 역시 쏙 빠지고 포기 같은 게 맴돈다.

박차고 해야지.

더욱 분발치 않음 안 되겠다.

5월 5일 월

또 아침부터 비다.

종자가 남아 반납하려고 상신해보니 씨가 깨더라도 그냥 관찮으니 많이 나가
게끔 독려해보라고.

병표가 와 대입에 관해 이야길 나누고 병천이랑 플래시를 들고 길을 넘쳐흐르
는 논물을 신에 가득 담고 양말을 적시며 오산(午山)으로 가다.

춘궁기에 한해(旱害) 후유증이라 순 보리밥이다.

병표와 호롱불 아래서 이야길 나누며 사진을 펼쳐보다 예쁜 꼭 스타 같은 아
가씨 한분. 누나라고. 김포 비행장에 있다나.

내 이야기를 했더니 일고 졸업하고도 그런데 근무하다니 시시하다고 하더라고.
허허 웃어넘길 수 없다.

내 걸어온 발자취 내 앞이요, 내 현 위치 지난 발자취의 결과인 줄 뻔히 알면
서도 왜 이렇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까?

머리가 핑 돈다.

5월 6일 화

한 시간의 회의에서 면장으로부터 용자 건과 뽕나무 밭 비료 관리의 허점에 지적을 받다.

곧 송기, 대전을 버스로 달려 확인하다.

재호 댁에서 점심을 하고 곧장 내려오다.

송산국교에서 어린이들과 유희하는 여선생들이랑 바라보며 2~3년 후의 나를 짚어보다.

벌써 교대 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원들이 다 아는 모양이다.

말조심 해야겠다.

아침에 병표로부터 가져 온 5권 책을 구분해 우선 준비를 갖추다.

그래도 금전출납부를 갖추니까 모든 게 낫다.

시간 계획표를 짜놓고 물리 69 공부한 후 12시에 잠이 들다.

5월 7일 수

큰일이다. 3시 30분에 잠이 깨어 찬물로 머리를 일깨우고 수학 log수에 손을 대어 나갔으나 너무 기초실력이 박약해 그대로 집어치우고 소파에 몸을 던져 잠을 청하나 좀체 오지 않는다.

새 교과서를 구입해야겠다.

조속히 수학1, 국어123, 물리, 화학, 생물 교과서를 갖춰야겠다.

모래 같은 곳에 어떻게 무거운 기둥을 쌓겠는가.

이장 회의를 마치고 대곡리 상대부락으로 미곡증산 교육 반상회를 갖기로 했으나 모든 게 자신 없어 내팽개쳐 버리다.

물리, 화학, 생물의 객관식 문제를 상당히 해내다.

5월 8일 목

장날이면 괜스레 좋다.

청 내에서 붙들려있지 않아도 괜찮으리라.

새벽에 상치 10어치를 사서 찬밥에 간장으로 상추쌈을 하다. 된장은 못 얻어서.

525에 쌀 5되 사고 밀대를 빼앗아 쪄개버리다.

40어치 물고기를 사서 하노랑 샘가에서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리다 땅바닥에 쏟아버려 흙이 많이 묻어버렸다.

나무를 주워 모아 잘게 쪄개어 불을 지피고 신나게 노래를 흥얼대며 지지고 볶고, 삶고, 찌고 하여 맛있게 먹다.

5월 9일 금

못자리 지도 겸 인보 상조 양곡 회수각서 변경일로 정동까지 올라가다.

최씨랑 같이 반주하고 송정 이장과 그 사기꾼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송내 이장과는 술집에서 흥어 안주를 기다리며 환담하다.

내일 집에 내려가야 할 것인지.

교과서를 빨리 갖춰야겠고 과목 같은 것도 알아볼 것도 있고, 선결문제가 병역문제다.

숙직 심 계장 보내버리고 병천이 숙직실에서 공부하고 나는 회의실에 혼자 구입할 책이랑 갖춰야 할 참고서 같은 걸 연구해보며 영어를 정성들여 독파하다.

5월 10일 토

대문 앞에서 형을 만나다.
카메라를 들고 어딜 산보하러 가려던 참인 모양이다.
갑자기 찾아오니 어리둥절해 하신다.
형이 시계하나 괜찮은 걸 산 모양이다.
처음으로 어머니랑 형, 동생과 같이 현대극장에서 ‘장마루 촌의 이발사’를 즐기고 택시로 귀가.
언제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을 때가 올 것인지.

5월 11일 일

상국이도 교대 입시 준비하는 모양.
상배한테 두 번 다 바둑에 패하다.
상국이 고모랑 점심을 같이하고 돌아다니다.
갑자기 너무 더워졌다.
물리, 화학, 생물, 수학, 강의록 모두 320에 구입하다.
광주역까지 종철이랑 걸었으나 향별 차(向別 車) 없어 되돌아가다.
‘팔도 사나이’ 둘이 보고 귀가.
형이 오지 않는다.
어머니께서 또 성화.

5월 12일 월

건어물과 함께 가방을 들고 어머니를 뒤에 두고 종철이랑 남광주역으로.
차 안에 봄놀이 가는 아낙네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웅성웅성.

점심시간에 도착하여 변명 좀 붙이고 근무.

하노랑 점심 해먹고 책이랑 준비하다.

빈틈없는 계획표를 짜놓다.

5월 13일 화

물리, 화학, 생물을 해치우고 근무시간에도 시간을 내 국어, 역사, 사회 등을
마치고 장터에서 벌이는 영화 ‘뜨거운 구름아 말 물어보라’도 집어 치우고 세계사,
음악, 지리, 미술을 공부하다.

틈을 내 책상, 의자 등등 마련해 놓기 잘했다.

일출광경을 그려 액자에 끼워 창 위에 걸어놓으니 공부방 영락없다.

꼭 내 소유하는 방 기분이다.

호박, 참외, 물외 씨를 구해 웅덩이에 분노를 붓고 뿌리다.

5월 14일 수

일찍 일어나 국어부터 들다.

맥류 적미병 방제약을 들고 송내에 11병, 송정에 24병을 맡기고 돌아오면서
국민교육헌장을 거의 외우다.

5월 15일 목

덥다. 덕정 출장. 이장들이 농자금 때문에 농협에 나가버려 효과를 포기하고
송내, 송정으로.

입회시여는 어렵게 돼 그냥 분배하여 자진 살포케 하다.
장산 이장에게 20병 맡기고.
영화선전에 귀가 아파 글이 통 머리에 박히지 않고 신경질만 난다.
동아일보에 '병역 면제대상 교대 출신 국민학교 교사 의무 년 한 8년', 도합
10년이다.
기가 막힌다. 31살 노총각.
심사숙고해 보자.

5월 16일 금

오늘은 통 책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잡아봐야 어저께의 업무가 눈을 가린다.
다른 방도가 없을까 숙고 끝에 완전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놓고
그때 사정을 참고하여 교대입시 하던지 광주에서 병역하면서 조대 2부에 수
업하도록 조대입시 해야겠다고 종결을 짓다.
급선무가 실력배양과 금전- 월부금 6~7천하여 2월말에 5만 정도 찾도록 해
야겠다. 문제다.
벌써 0시를 넘어 1시 20분이다.

5월 17일 토

무풍리 금천을 거쳐 환히 내다보이는 파란 바다를 앞세우며 두병으로 땀을 그
늘에서 식히며 걷다.
종패 인수하러 수산계 차석하고 조합인과 같이 발동선으로 떠버린 후에 도착
하다.
내일 해 들 때 산포(散布)한다고.

도로만 가깝다면 초가삼간 마련해 기거해보고도 싶은 좋은 풍수다.

장산을 거쳐 상대부락 정이정씨 댁에서 점심을 하다.

내가 선도단지 상대 지도원인데도 아무 경험이 없어 오히려 정씨께 지도를 받게 됐다.

주객전도가 되겠다하니 빙그레 웃으시며 이론보다 경험이 풍부해야 그게 알찬 것이라 하며 개요만 설명해 주신다.

최(崔)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냥 내버려 둔 게 낫겠다고.

어떻게 거기서 며칠간 묵으며 내무(內務)도 완전 젖혀놓고 입회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5월 18일 일

아침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오늘 장(場) 서기 글렀다 했더니 웬걸 금방 구름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면전에 전개된다.

오이씨랑 싸이 오르기 시작하나 너무 늦은 편이다.

깊이 심은 것 같다.

화학은 좀 세밀히 해야겠다.

교대 응시자 예시 면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학비는 전액 면제라고.

의무복직이 5년만 돼도 낫겠는데.

5월 19일 월

호병계 주민발표 때문에 저녁만 얻어먹고 거들어줘 공부 좀 못하다.

이대로 나가단 큰일이다.

너무 책에 치중하다 내무에 소홀하다고 말이 많을 것도 같다.
더욱 내무에 만전을 기해놓고 책을 들춰야겠다.

5월 20일 화

신천 이장을 비롯, 부락민이 다리를 개축하고 있다.
용운, 장산, 송정, 송내도 부인 저축회의 수배하러 출장.
라면 한 개 사서 식은 밥에 말아 돌이 맛있게 먹다.
8,000을 받아 최 3,000, 김 200, 심 500, 이 800, 빵 50, 앞집 65, 순천식당
100, 합 4,715를 갚다.
총, 책값 1,800 쥐버리고 나머진 하의(下衣)랑 쌀값 해야겠다.
전신전화국으로 발령한 병표와 전화대화하다.

5월 21일 수

6월 9일부터 28일까지 교육공문이 왔다.
좋은 기회다.
병역문제 손 좀 봐야겠고 대입 경향도 알아보고.
잡종 외상 증서 현금 335원(우선 내 것)과 군에 보내다.
더벅머리 오랜만에 손질 받고 2,400중 1,000 하의 맞춤하다.

5월 23일 금

못자리 표지, 평 표시 독려하러 산업계장보다 먼저 덕정으로 출장하다.

4월 초파일이라 그런지 모두 집에 없단다.

명단만 따놓고 어르신들께 당부하다.

정말이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내가 아직 새파랄게 덜 익어서 그럴지는 않을게다.

아, 이놈의 행정, 한국민의 정치, 기반 없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행정, 숫자만 제멋대로 두드려 맞추는 잉크 묻은 종이쪽지 행정.

어쨌든 농어민들 즉, 일반대중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정치가 시급하다.

박봉에 생활유지를 근근히 해나가는 공무원, 특히 말단직, 인간치고 성실한 공무원집행이 요원하다.

대민접촉이 빈번한 말단행정, 마을 출장은 언제보고 내무는 - 산적해있는 -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말이다.

모든 조건이 허위작성 보고 아니할 수 없게 한다.

나 자신 그러고 있으니 말이다.

기반이 이러거늘 대통령께서 얼굴에 주름살 깊도록 면려하시며 민족부흥 자립을 위해 불면노력 해 보셨댔자 사상누각이 아닐 수 없다.

도약단계로 들어섰다지만 일부지역에 한한 거요 그 외 대부분은 정체상태일 뿐 국가발전이 암울하다.

정치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거개의 국민들이 좀체로 우리나라의 행정에는 불신임이 변치 않고 만성이 돼있으니 한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답답하여 가슴이 터질 노릇이다.

해결방법이란 간단하다. 말로는 말이지.

온 국민이 잘살면 된다.

그 실제 방법은?

난 모른다.

아직 모른다.

더 배워야겠다.

나 자신 부끄러우니 입 다물기로 하자.

순천농전 5학년 재학생 둘이 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답시고 뛰놀았더니 눈에
즐음이 와 앞 술집에서 통탕거리는 소리도 희미하다.

5월 24일 토

지금까지 채우지 못한 공부 좀 메꾸려 하는데 주민증 신청서 다시 손봐야 한
다고.

저녁은 짜장면으로 하고 염치 불구하고 들어와 숙직실에 처박혀 책과 씨름하
나 진도가 통 없다.

학모에게 편지 띄우다.

5월 25일 일

공휴일도 아랑곳없이 전 직원 주민등록 등재 사무를 보다.

5월 26일 월

직원회의에서 부면장으로부터 출장용무 소홀에 간접적인 비난을 듣고 내 힘
부족함을 - 아직 경험 없기 때문이라 자위하지만 - 느끼다.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당해야 하나씩 둘씩 배우는 거라 흐뭇하기도 하다.

5월 27일 화

전신전화국으로 옮긴 병표한테 검찰사무직 시험 관촬게 치렀다는 전화가 왔다.

5월 28일 수

관정(管井) 채수량 조사 나온 둘이 와 병천이랑 소주 한 병을 돌려 마시고 차석 주임이 건디다 못해 왔는지 짜증부릴 때까지 0시가 넘도록 멋있게 떠들어대다.

다들 주정부리지 않고 잘 어울린다.

핑핑 도는 술김에 무슨 정신으로 공부하겠다는 지.

그래도 이 시간 저 시간 아쉬운지라 영어공부하다.

부지런히 내무처리하다.

5월 29일 목

정 주사로부터 3,000을 취하여 하의를 찾고 쌀 반말 팔다.

십자약국에서 등운이랑 한잔씩 나누다.

5월 30일 금

통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덕정 못자리 풋말 지도에 나갔으나 무심한지라 몇 개 만들어주고 이장들께 내일 확인을 다짐하고 일러두고 돌아오다.

배갈에 돼지고기로 영섭, 삼주랑 기분 내다.

중판으로 넷이 한판 찍고, 몽실 몽실 지금 내 사정을 표하건대 빨리 돌아가

주면 싶다.

비용이 걱정된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5월 31일 토

급히 저녁을 해치우고 병천이랑 오산으로 걷다.

휘영청 밝은 달이 못자리에 채운 물 위에다 은빛을 쏟아 춘풍에 하늘거린다.

병표는 직원들과 불놀이 갔다고.

종선이와 병천이랑 한방에 자는데 0시쯤인가 소란스러워 눈을 뜨니 동네 총각들 종선이와 마른 풀을 거두어 쥐고 밀보리 구워 먹는다고 하는 모양.

6월 1일 일

수북이 쌓아올린 조반을 재무계장과 마주앉아 들고 귀청(歸廳)하다.

옆방에서 딱딱 치는 화투소리에 맞춰 공부도 하고 처음으로 전 직원 휴무한 것 같다.

6월 2일 월

산업계 회의를 갖고 계장과 정선동 씨랑 덕정 쪽으로 못자리 지도 출장하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쓸모없는 팻말 곱기.

파종 시기는 흑 모를 일이지만 심사대비(審査對備)에 당하여 권유한다는 게 안 돼먹은 일이요 반응 역시 노골적 불만이다.

팻말 곱아야 농사가 잘되나?

정말 비위 없는 농은 못해먹을 것이다.

쏟아지는 비를 비닐우산으로 받치며 집집마다 드나들어 판자에 직접 손질을
가해 글씨까지 써주고.

그래도 꽃지도 않는 심보이니.

6월 3일 화

소낙비 후의 햇살에 속살까지 들어가 시원케 해주는 훈풍...

바람에 나부끼는 잔잔한 파도 같은 보리 이삭.

노란 황금물결이 햇살에 반짝이며 나부낀다.

6월 4일 수

평 표식(坪 標識) 독려 출장.

박 계장과 송내 입구에서 술내기 윗놀이를 송내 이장이랑 부락민이랑 하다.

셋이 다 한사람에게 저 50씩 내고 한잔씩 돌리다.

6월 5일 목

광주 교육 때문인지 책이 통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영어를 읽다.

벧지, 청애 대두(大豆) 등 녹비(綠肥)종자에 대해 물으니 나락도 모를 테니까
직접 봐야한다며 모두 웃는다.

거짓말로 실속 복명하는 게 안스럽다.

6월 6일 금

작년 한해(旱害)로 면역이 됐는지 공휴일도 다 나와 일을 본다.

서류 인계할 준비를 하다.

교육비 12,000 정도는 나온다고.

다행이다.

책값 2,000, 최 2,500, 정 3,000, 별량 1,000, 이 500 정도 갚으려면 9,000은 줄잡아 있어야 하니까.

다 들추어내어 갈 채비를 하다 동복 호주머니에서 100이 나와 흐뭇하다.

총무계장에게 5,000 정도 가불받아야 할 텐데 얼마나 힘써줄는지 모르겠다.

6월 7일 토

교육이 농번기를 피해 무기연기 됐다고.

짐까지 다 꾸려놨는데 맥이 쪽 빠진다.

생각해보니 갚을 금액도 많은데 큰일이다.

한 달쯤 후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샌 맥에서 소주 한 병 사들고 종선이 집으로 가다.

오토바이 몰고 온 농촌지도소 둘이 와 인사를 나누고 동네 총각들 2~30여명과 한데 어울려 잔을 주거나 받거나 노래를 돌리며 전축 틀어놓고 '빽바바 롤라'에 맞춰 여럿이 춤도 즐기고 새벽 3시까지 어울리다 병천 집에서 자다.

모래 보낼 종선이 엄마가 측은하다.

6월 8일 일

생전 저보지 못한 지게를 등에 메고 보리 단을 나르다 .
병두는 10~12물도 문제 아닌데 처음인 나는 7물도 벅차다.
나르는 거리가 너무 멀어 땀을 줄줄 흘리며 나르다.
어깨축지가 아파오고 고개가 땡기며 허리가 아프다.
짐을 내릴 때의 그 시원함, 즐거움...
이런 맛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기도 할 거다.
땀을 뻘뻘 흘리고 난 뒤 휴식의 기쁨.
작년 노동 - 띄약벌에서 - 하던 게 번쩍 머리를 스친다.
상추쌈이 이렇게 꿀맛 같을 수 없다.
집에서 빛은 막걸리 맛이 또한 꿀맛이다.

6월 9일 월

병두와 조반을 하고 종선이 집으로 들리다.
갈 차비를 하는 모양이다.
“잘 가소” 굳은 악수로 헤어지다.
언제 다시 만날 때가 있겠지.
종선 엄마가 더욱 안됐다.
내무 보다 모내기 지도를 나가 사점식을 독려.
주인과 술잔을 나누고 모내기 구경을 하다.
부인네들이 음담패설로 흥겨운 노래 소리를 번갈아하며 모 심는 게 이해가 간
다.
그런 소리로 웃으며 일을 해야 시간가는 줄, 고된 줄 모르고 죽 계속할 수 있
으니까 말이다.

돌아와 낮잠을 5시간여나 점심도 집어치우고 자다.

허리가 뼈근하다.

6월 10일 화

청애 대두 파종실험 보고가 아무래도 부면장 결재를 무난히 못 넘길 것 같다.

별교 공판으로 가버린다는 대응으로 순천으로 가라고 회유하러 출장.

이 주사 덕에서는 보리치기에 여념 없어 혼자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터덕터덕 힘없이 올라가다 탄불이 꺼져 그냥 풀빵으로 점심을 때워 배에 힘이 없는 탓.

잠망을 배부하고 박동수씨 덕에서 막걸리만 좀 나누고 개령까지 올라가 타관 내 잠건 매상 엄금에 대해 역설(力說)했으나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다.

장미꽃이 곁들어 핀 연못이 자연스러워 눈길을 끌다.

버스가 없어 그리 길을 넓다 걷기 시작하다.

어머니 생각에 고생이란 두 글자는 붙이지도 못할 거다.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낸다.

밥을 해놓을 테지.

기대가 어그러져 보릿대로 불을 지펴 밥과 국을 짓고 끓여 맛있게 먹다.

마음을 가다듬어 입시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밀가루를 나르고 400여를 벌었다고 병천이의 얼굴이 만개.

6월 11일 수

어제 저녁부터 질금질금 내리는 비가 아침에도 질금질금 하다.

탄불을 하로가 앞집에서 가져와 늦게야 김치 없는 된장국에 밥 말아먹다.

농약 공급 등 출장 타함을 보고 속직실서 한숨하다 일어나 저녁을 짓다.

6월 12일 목

가방에 반 틈, 상자에 반 틈 못자리 농약을 갈라 들고 쉬며. 쉬며 운천리로 출장.

밀짚모자에 눌린 머리카락 사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손수건으로 누르며 가다.

보리타작에 다들 바쁘다.

용운 이장이 그래도 인정은 있다.

자취하고 있는 줄 알고 점심을 내놓고 올해처럼 이렇게 굶은 마늘은 없었다며 신문지에 싸 다섯 뿌리를 가방에 넣어준다.

고맙기 그지없다.

6월 13일 금

어제 출장 용무 끝나치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나를 부른다.

방문을 열자마자 학모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가.

반가움에 손을 힘주어 잡아 방안으로 이끌며 이야기를 주고받다.

드디어 일이 손에 잡힌 모양이다.

처음으로 오사카 등등으로 무역선을 몰고 갔다 왔다고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너무 물질적, 이기적으로 대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

병천이랑 하노랑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밤늦도록 이야기 나누다.

6월 14일 토

쌀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나.

다행히 짜장집에 밥이 있어 병천이 주선으로 아침을 셋이서.

최 주사에게 3,000을 취해 2,500 학모에게 쥐어주다.

라디오를 월말에 가져다준다고.

심심할 테니까.

4개월 후에 배 못가고 나오니까 같이 일해보자는 이야기에 일구이언하지 않는
자라는 걸 확신하게끔 되어 나 자신 부끄러워진다.

버스에 태워 보내고 이광휴와 4점식 못자리 지도에 나가다.

6월 15일 일

설레어선지 왜 이렇게 마음이 들떠 책 보고 싶어지지 않는가 모르겠다.

너무 결단성이 나약하다.

불이 꺼져 찬밥 앞집에서 얻어온 따스운 물에 말아먹고 잠을 청하다.

‘공무원 월급 30% 인상 7월부터’란 기사가 눈을 끈다.

12,520이 되겠으니 10,000 정도는 손에 쥐어질까?

12,000 정도의 값을 것이 있으니 야단이다.

다음 달 부터나 5,000씩 부쳐줄 수밖에 없다.

6월 16일 월

4점식 지도 출장 타합 후 버스로 금치에 이광휴, 김수중과 나가다.

대치 이장 댁에서 타맥하는 기계소리가 무더위 속에 요란하다.

신발에 땀이 찬다.

6월 17일 화

김수중 주사 댁에서 타맥 후 점심을 들고 모내기 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다.

가는 곳마다 투덜투덜 댈다.

이렇게 무조건 정부시책이라면 투덜대게끔 그 누가 이 한국민에게 영향을 끼쳤는고.

지금 투덜대는 당신이요 선조일 게다.

6월 18일 수

참외, 물외, 옥수수가 상당히 자라 손질해주고 버스를 타고 구룡으로.

정착 지도원 정호 씨랑 못줄도 잡아주며 4점식에 대해 장단점을 이야기도 하며 같이 논독에 앉아 막걸리도 나누고 점심도 하고...

6월 19일 목

하노가 지어준 밥에 김치를 얹어 조반을 끝내고 모내기 지도에 임하다.

한두 방울 내리는 비에 우산을 들었으나 곧 밀짚모자나 가져올 걸...

벌겋게 탄 팔이 시큰시큰 따끈따끈하다.

학모 예상대로 한 달 간은 가물 모양이다.

점심을 못 때우고 이 주사에 의지하여 처녀들과 점심을 하게 되다.

왜 이렇게 못난인지.

노래 한가락 담담히 멋들어지게 못 부르고.

식은 밥 김치에 저녁을 때우고 운동 좀 하다.

6월 20일 금

최정호 씨랑 지도에 나서다.

윗 구경하며 고동을 깨먹으며 잔을 나누고.

6월 21일 토

비가 조금 내리다 곧 그친다.

아무래도 가물 모양인가?

처음으로 못줄 좀 잡아주다 소나기에 바지가 흠씬 젖었다.

빌려 입은 우의에 상의는 괜찮고.

8,000을 봉급 받아 6,000 최, 정에게 갚고 2,000 남았다.

다음 달에나 풀리려는지.

산업계 직원 한데 모여 잔을 나누다.

취중진담이라는데 산업계장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것도 이해가 가기도.

집에 보태준 적 없어 안됐지만 다음 달 부터야 풀리겠다.

6월 22일 일

사장이라 불러주면 좋아한다는 송치 김영감 논에서 7년 만인가 모를 심어보니
통 잘하지 못하겠다.

아줌마 아가씨들이 모두 못 심는다고 핀잔이다.

병천이 생일이라 300 선심 써 정 주사 기타에 맞춰 새벽 4시까지 떠들며 비벼대고.

6월 23일 월

배가 고프 참에 11시쯤에야 이센 집에서 하노랑 조반을 점심 겸 때우고 운천 출장.

아주머니네 들 핀잔 받으면서 성도 내보고 기어이 4점식으로 모 심게 한 후에 퇴약별을 내리받으며 돌아오다.

짜장면으로 들이 저녁을 하다.

그 집에서 병천이랑 하숙하는 게 나올까 그냥 전기 곤로 하나 사서 계속 하노랑 자취하는 게 속 편할까.

병역문제 때문에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통 세상사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 시시일일(時時日日)이 헛되이 지나가고.

생년월일이랑 다르니까 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월말에 학모와 만나 잘 알아봐야겠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까.

6월 24일 화

하노랑 타협하고 향순(尙順)하여 전기 곤로 사러 나가려는데 아줌마가 왔다.

2,500에 하노는 1,500에 먹기로 회의하고 아침을 들다. 깨끗해서 좋다.

운천에서 4점식에 대해 토론하며 점심을 들다.

돌아오는 길에 장산 아줌마들이랑 토마토를 나눠 먹고 양손에 가득 들고 오다.

여천군 화양면 간첩 소지품 발견, 초비상 걸려 무기를 지급받고 전 직원 수배

하여 밤을 새우다.

6월 25일 수

비가 상당히 내렸다.

웬만한 곳은 모내기를 하겠으나 아직은 더 내리셔야겠다.

급히 하기 비료 계획을 짜 놓고 구룡으로 4점식 확인 출장.

병역법을 들춰보니 연기 가능한 것도 같은데 징집, 입영의 구분 여하가 문제다.

수검을 해버렸으니 연기 안되는 게 아닐까?

6월 26일 목

운천서 못줄을 잡아주다 실수를 하여 언짢은 가슴을 안고 힘없이 걸어오다.

농사경험이 있어야지.

7월 7일부터 교육이라고.

최(崔)랑 이(李)가 술에 만취되어 싸움질.

6월 27일 금

구룡서 4점식 확인 출장.

너무 무기력해 큰일이다.

공부도 통 안 되고.

내일쯤이나 학모한테서 연락이 올는지.

6월 28일 토

계량기 검사를 하고 버스를 타다.

몸집 큰 황소를 축산계장과 같이 올라가서 재보고.

비가 내린다. 이대로 서너 시간 계속된다면 이왕 못하는 논이 없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학모한테는 소식이 없다.

6월 29일 일

행어나 학모에게서 전화연락이나 안 오나 숙직실 책상 앞에서 창을 내다보며 인기척이 있을 적마다 학모 아닌가 하고.

꼭 올 것만 같은데 안 오고 만다.

5일에 떠나면 못 만날 것 같고 하여 서신을 써놓다.

집에랑 내일 아침에 부쳐야지.

병천이랑 권투를 익히다.

6월 30일 월

바빠서인지 이장들이 통 나오지 않았다.

제대 후에 공부해서 수대, 해양대를 갈 수 있을는지.

병역은 수검해버려 권리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 연기는 안 될 거로 간주해야 겠다.

대입 공부는 그대로 해나가야 하는데 너무 게을러졌다.

비가 장마철처럼 내리고 있다.

수해는 없어야 할 텐데.

다행이 이앙은 완전케 되어 흐뭇하다.

농촌에 대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농민들을 이끌어다가며 농민같이 살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겠다.

농사에 경험 없는 자가 지도란 얼토당토 않는 일.

7월 1일 화

송정 이장 댁에서 춘양 참외를 싹컷 먹고 동네 총각들이랑 떠들어대다.

7월 2일 수

학모한테서 연락 올 때가 됐는데 감감 무소식이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요란스럽다.

빨래를 하고 찬물에 목욕을 하니 심신이 개운하다.

7월 3일 목

벌써 외, 호박이 가지를 뺏어 잘도 자란다.

교육 후 돌아오면 금직한 열매를 맺게 되겠군.

성냥과 양초를 사들고 짜장집 발전을.

함속이라는데 개운찮다.

7월 4일 금

마음 들떠서 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미결이 좀 있는데 잠깐 다수확 농가 조사 독촉장이 나와 더욱 짐을 무겁게 한다.

저녁 후 청에 앉아있자니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한 감정인가 뭔가가 솟는다.

새벽에 내린 비가 40미리 이상이니 천수답도 완전이앙.

가끔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디젤 기관 소리에 개구리 울음도 쑥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7월 5일 토

내일 가기로 하다.

직원들 고생했다고 토, 일요일은 쉬라고.

거의 순천에서 즐기고 내려오다.

여비 10,000에서 최주사 3,000 갖고 박계장, 정진호 씨랑 저녁 늦게 약주 좀 하고.

징집검사 왔다가 여비 없어 재워달라는 36짚 되는 촌부와 잠을 같이하다.

7월 6일 일

그 촌부와 같이 아침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병천이 여동생이랑 가방을 나란히 들고 철길을 걷다.

병천이가 가방에 포도주 한 병 사 넣어주며 어머니 갖다드리라고.
보성에서 그이에게 기차표와 100원을 쥐어준다.
꼭 편지하겠다며 감사하는 표정에 어쩔 줄 모른다.
어머니께서 어저께부터 기다렸다며 마중 나오셨다.
무거운 내 가방 하나를 머리에 이시고 땀방울 송울송울 코에 맺힌 채 걸어가
시는 모습이 언짢다.
5,000을 드렸으나 교육원에서 기어이 기숙생활 해야 한다고.
정말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막힌다.
절대로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니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1원이라도 아
껴 써야겠다.
변모한 시내도 둘러볼 겸 걸어갔다 걸어서 오다.
넷가를 따라오니 오늘따라 추악한 빈민가만 줄지어 서있는 것만 같다.
빨리 복개공사가 시작되고 상가아파트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 5대도시의 면목
이 아까울 지경이다.

7월 7일 월

서운한 표정이시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주시는 3,000과 내 주머니의 예비
비 중 720을 합하여 숙식비를 내다.
교번 60번, 공통과목, 신규임용 기초행정, 행정실무, 기본과정 교재를 지급받
고 입교식을 갖다.
예산, 공무원 복무자세 등에 대해 강습.
책을 두 손으로 모아 쥐고 계단을 올라갈 때 꼭 대학에서 수강 받는 착각을
해 기쁘기도 하는 한편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가슴 미어지는 것 같고.
고교 동창도 있고 선배도 있다.
버릇되어서인지 수강 중 졸음도 오고.

티비, 실화극장 감상하고 책 좀 들여다보다.

7월 8일 화

예습 시험을 치르고 모두 어렵다고 한다.

나도 거의 만점일 줄 생각했는데 4~5개 틀렸다.

교재를 모조리 들춰볼 걸 그랬다.

너무 거리가 멀어 글씨도 안 보이고 강의 내용도 잘 파악할 수 없어 졸음만 와
즐기도 하다.

메뉴가 변화가 있어 괜찮다.

짓궂게도 가랑비는 그칠 줄 모른다.

바둑을 하며 인사도 나눈다.

티비가 기대돼 서운키도 하나 버스에 몸을 실어 집으로 가다.

형이 빨리 왔다.

3형제가 모두 정신 차려 완전 자립해야 할 단계다.

종철인 이 호기에 수업시키고 졸업장이라도 얻어야한다.

5급을 응시케끔 노력도 할게고.

형이 정신 가다듬어 적게 써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7월 9일 수

일찍 일어나 검정 작은 가방을 들고 숙사에서 아침밥을 먹다.

기왕 숙식비 치렀으니까.

동료들이랑 바둑을 두다.

엇비슷한 실력들이다.

대학교 기숙사 생활의 느낌이 들어 마음이 울컥하기도.
집에서 자다.

7월 10일 목

처음으로 타자기를 손대보다.

30대 정도밖에 안 돼 몇 번 치지 못하고, 내일 타자 시험이 있고 모래 최종 시험이 있는데 잘될지 모르겠다.

형광등 주위에 모기보다 작은 벌레들이 수천이나 몰려들어 독서를 방해한다.

7월 11일 금

군에서 해본 사람이 있어 잘 치는 이도 있다.

긴장해서인지 오히려 손이 늦어지다. 그럭저럭 시간 내 2/3 째는 해치웠으니 후련하다.

이제 어느 정도는 기초가 잡혔지만 몇 시간 정도라도 연습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안익재랑 바둑을 놓으며.

잠이 밤 아닌 대낮에 엄습해와 혼이 나다.

사고 때문에 토, 일 외에는 외출이 안 되게 됐다.

7월 12일 토

타자 시험을 치루기 전 연습하고 있을 때 언뜻 내다보니 어머니가 바라다보고

서 계시지 않는가.

장 볼 겸, 대지 형 만나볼 겸 찾아와 보셨다고.

엇저녁에 교수들에게 커미션으로 500원씩 거출하자는 안에 심히 꽤빚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것.

7월 13일 일

‘일본어 첫걸음’ 구입하다.

시청각 교육 2편하고 2~30원 밖에 안 남았다.

외항선 밀수 운운 기사가 자주 띄는데 염려가 된다.

7월 14일 월

서신 함을 자주 들여다봐도 학모 소식은 없다. 웬일일까.

형이 정신 차려서 결혼 전에 집이라도 마련해야 할 텐데.

어머니께서 주신 500을 납부하다.

7월 15일 화

면(面)에도 안부 서신 띄워야겠는데 선뜻 내키지 않는다.

벼에 지장이 없어야할 텐데 비가 너무 자주 와 큰일이다.

종철이가 친구와 절에서 공부한다고 가버렸다.

7월 16일 수

비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계속한다.

교육원 위로 큰 여객기가 우렁찬 폭음을 내며 날아가 송정리 비행장으로 내리는 모양이다.

집에 도착해서 신문을 본 연후에야 괜히 왔군, 발사 광경이나 보고 올 걸.

문서 기안 실습을 하다.

교재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다.

총장로 변화가에서 동창생들과 악수를 나누다.

모두 방학을 해 내려온 모양.

왜 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지지?

7월 17일 목

하루 종일 이불 위에 몸을 던져 뒹굴면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춘원 이(春園李)의 ‘재생(再生)’을 슬퍼도 하며 노여워도 하며 어떤 바람을 기대도 하면서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읽어버리다.

어떤 막연한 사명감을 느끼다.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대 전까지라도 막연히 대입준비를 할 것인가?

친구의 조력만을 기대하며 일본어와 바다에 대한 서적을 구해 거기에만 정진할까?

어떤 한 일에 집착하여 온 정신을 쏟아야 하는데 하면서 그놈의 3년이란 장벽 앞에 모든 게 막연해진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이여니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무엇을 심사숙고 해보자.

7월 18일 금

수강 전 '아폴로 11호' 티비 중계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다.

미국 같은 곳은 컬러 티비라는데...

우주인들의 동작, 무동(無動)상태의 실증(實證)이 눈앞에 전개.

바둑 하는 동료끼리 모여 바둑대회를 가지다.

야지(野誌)선생을 2:0으로 K.O시키고.

회비 100씩 걷은 것으로 상품, 수건, 손톱깎기 등을 사고.

행정실무의 학교방 채우기에 사전 대비 없어 몇 개 틀리다.

탁주 1말 받아 처음으로 군 대항 노래자랑을 재미있게 열어 오랜만에 기분전환하다.

정말 누구하나 안 어울리는 이 없이 희한하게도 잘 논다.

동창 안익재가 2:1로 떨어지고 또 한판 하는데 자리에 들다.

박남수가 2:1로 이기고.

7월 19일 토

대민관계에 대해 강의를 듣고 점심 후 집으로.

월요일(21일)을 달 착륙 경축을 위해 공휴일로 정했다고 편히 쉬란다.

'사랑했는데'를 보면서 사내다운 사업욕에 감탄.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희생시켜가면서 까지 성공을 해 두 손에 부를 쥐었으나 그 커다란 괴로움이 가슴에 차있어 어떻게 삶을 누릴는지.

황금만능시대 돈의 매력, 돈더미 위의 괴로움.

평범한 촌부의 일확천금의 꿈.

여하튼간에 무서운 의지에 나 자신 부끄러워진다.

7월 20일 일

어떤 학업, 사업에 대한 재미, 의욕...

그런 재미, 의욕이 없어서인지 갈팡질팡하며 다른 희열을 추구하다가 영영 갈팡질팡하는 건달 신세를 면치 못하는 빵점 이하의 인생.

짧은 시간이나마 책을 들고 촌음을 아껴 사색하며 살자.

무등사(無等畬) 앞뜰에 한가히 풀을 뜯던 말.

한가하니까 잡념이 인다더니만. 일이 없었던 게라.

발기한 성기를 보며 다 같이 웃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분주해야지 한가하면 잡념이 생기는 법’

재미있는 세상이기도 하다.

오늘 저녁에 들어가야 착륙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일본어 첫걸음을 손에 쥐다.

7월 21일 월

학강국민학교에서 이발을 하는데 달 착륙 중계가 나오다.

몸이 으쓱해지며 온 신경이 쏠린다.

7월 22일 화

순천시의 범 주사를 2점 놓아주고 물리치다.

기우들과 나란히 기념사진 촬영.

7월 23일 수

책도 조금씩 들여다보며.

보성의 염 주사를 2:0으로 가볍게 누르고 결승 진출.

박남수 씨와 대국하게 됐다.

7월 24일 목

마지막 시험. 통계가 몇 개 틀렸다.

무덤다.

7월 25일 금

여론조사. 신랄히 비판.

교수들의 실력이 결여. 성의 부족.

버스로 아시아자동차 공장 및 신역을 돌다.

7월 26일 토

김수남 원장이 대담한 자기 경력 자랑을 하기도 하고 여하튼 관운(官運)없는

분이란다.

수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 상국, 상호, 상채, 석기를 만나 같이 어울리다 자버리다.

바독실력이 상국에 곧 따라간다.

7월 27일 일

‘눈 나리는 밤’ 모성애에 눈물짓다.

따뜻한 어머니의 전송으로 무사히 별량면에 당도.

기차가 떠날 때까지 대합실에서 지켜보시고 계시던 여원 모습이 안타깝다.

3형제 모두 각성해야 하는데.

차내에서 송기 아줌마와 인사를 나누고 어둠을 밝혀주는 보름달을 밟고 귀청(歸廳)하니 병천, 김상문이랑 반겨 손을 내민다.

병천이가 준비해둔 샌드백을 치고 나니 후련.

내일 유두라는 밝은 보름달 아래 나뭇가지 새로 스치는 바람이 오장육부까지 시원함을 느끼다.

야릇한 감회가 솟는다.

모두 공개채용시험에 낙방했다고.

7월 28일 월

부면장님의 굵은 목소리에 눈이 떠지나 몸은 고단해 일어나지지 않는다.

“나는 벌써 밥 먹고 출근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네? 교육받는다고 고생 많이 했제?”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처음 느껴보는 다정함이다.

면장님 이하 손을 흔들며 인사를 여쭙고.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추니 별로 미결 서류가 누적되진 않았다.

호박 넝쿨이 빈틈없이 지면을 덮어 무성할 대로 자랐고 밭 옆으로 줄줄이 심
었던 해바라기, 코스모스, 봉선화가 내 키의 반만이나 컸다.

물외가 열렸고 참외가 열렸다. 옥수수는 곧 내 키를 넘을 것 같다.

광주보담 더 더워야할 텐데 상쾌한 마음이어서인지 더운 줄을 모르겠다.

추잠 계획과 계량기 정기검사 대비를 기안해놓다.

해프게도 화장품 900원 제하니 9,500이다.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다.

밥값 1,300을 갚다.

7월 29일 화

하루 종일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선거인 명부를 주민등록증에 의거 발체하다.

내일 송사(送舍)해야겠다.

샌드백의 톱밥을 갈아치워야지 손가락이 걸려 제대로 뺄어지지 않는다.

오늘같이 갑자기 소나기가 무섭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그치고 짹짹 햇볕이 쬐
고, 소슬바람이 이렇게 불어주고, 반복이 되면 병충해가 발생되지 못하고 벼에
아주 좋다나.

7월 30일 수

내일부터 3일간 출장에 대비하여 기안하여 공문 등을 완비해놓다.

7월 31일 목

출장용무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3일간에 해치울 수 있을는지?

폭우로 인사피해며 저수지, 가옥, 도로 등 피해가 심하여 군 행정전화가 불이
나다.

22시 현재 159.4 미리.

비가 잠시 그쳤으나 홍수 된 세찬 물결 소리가 귀를 솔렁인다.

출장 용무 중 추비 증산을 청 내에서 주판질하여 끝내버려 후련하다.

8월 1일 금

아무도 없는 대여 이장 댁 마루에서 한숨 자며 기다리다 곧 복잡한 용무를 끝
내고 용운에서 열추 해놓고 점심 후 신천에서 열추.

8월 2일

정 주사한테 100을 취해 순천 엠모드에서 중앙 인사, 도지사의 미곡증산 병충
해 방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소나기를 피하여 버스로 내려오다.

넷에서 죽산리 출장, 원산 주민을 못시켜 무너진 초가집 보수하며 한잔씩.

비를 한꺼번에 내려주려는 것인 모양.

8월 3일

03시쯤에는 슷제 빗방울이 아니라 물이 펑펑 쏟아진 것 같아 수해 극심 일줄 알았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모양이다.

피해상황 보고가 10건 쯤.

조금이라도 더 보조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지 슷제 싸우는 태세의 어조다.

이 주사의 서류를 복사해주고 보도문 좀 손질해놓다.

이불뿐 아니라 옷에서까지 냄새가 코를 불쾌하게 한다.

언제 따가운 햇볕을 보게 될는지.

학모 소식이 감감하다. 웬일일까?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8월 4일 월

출장 용무를 다 못 마쳐 틈내어 나가봐야겠다.

일제 때 경찰했다는 쌀 상인이 찾아와 면장을 통해 나를 설득하려고 위협도 해 보곤 하나 더욱 괴씸하지만 달래야 했다.

다음 장날부터 직원 총 출동해서라도 계량기 검사만은 철저히 해서 몇몇 악덕 상인의 반감을 사더라도 무지한 영세민들에 서운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계량기 수검 통지서 영수증이 없다.

8월 5일 화

덕정리 상삼 앞 도로를 대강 보수해놓고 이장들과 술집 골방에서 화투놀이 한 걸 구경하며 가만히 앉아서 얻어만 먹고 늦게야 돌아오다.

유난히 색깔 고운 버 위를 꾸불꾸불 무슨 뱀 같기도 한 기차가 소리 없이 지나 간다.

도 감사에 진땀을 빼는 밤중이었다.

8월 6일 수

축산 행정 감사.

발을 벗고 물 부른 개울물 건너기를 대여섯 번.

용운 이장이 피를 뽑고 있다.

검푸른 벼에 병이 있을까보냐 하는 소신에도 이상이 있다는 듯 하얗게 또는 갈색 얼룩이 진 곳도 있다.

개울을 무리하게 뛰어넘다 구두가 벗겨져 떠내려가는 걸 잡느라고 아래바지가 온통 젖어버리고 그대로 뛰어가는 모습이란 일대 가관.

이놈의 장마 언제나 끝이 나려나.

옷에서 땀 젖은 냄새가 체취에 섞여 구수하기도.

왜 학모로부터 소식이 전무일까?

무슨 사고는 없는지?

8월 7일 목

마침내 날씨가 개었는가?

무덥긴 하나 악취가 말끔히 가신 것 같이 상쾌하다.

삼을 들고 신버심에서 도로 정비 좀 하고.

오랜만에 내미는 해님이 살갓을 발갛게 만들어 놓는다.

제비가 논 한 필지에만 몰려들어 웬일인지 유심히 관찰해보니 농약을 산포하고 있어 벌레가 위로 올라가 제비들이 먹이를 쉽게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인 모양이다.

산보 겸 조그마한 낚싯대를 들고 개구리를 골탕 먹이는 모습이란.

지나가는 이장들과 한바탕 파안대소.

샌드백을 여럿 앞에서 멋있게 한번 휘두르고.

8월 8일 금

무더워 의욕을 상실 어영부영.

밀대 가지고 오센(씨의 일본식 방언)과 옥신각신 하다가 물러나게끔 다 쥐버리고.

이장과 점심. 술을 하며 금전 좀 소모하고.

8월 9일 토

도로 보수 출장인데도 모두 포기한 것인지 출근하여 열심히 근무도 하고.

무덥기 짝이 없어 부면장이 불쾌지수 150쯤 되겠다고 하여 모두 한바탕 웃고.

병천이 온몸이 발갈게 땀다.

짱뚱어를 25마리 잡았다나?

8월 10일 일

짱뚱어를 낚아채는 그 솜씨에 놀랍기도 하고, 여하튼 씹 소리에 몸뚱이 여기저기에 걸쳐 손에 쥐어지는 맛.

다른 재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33마리 정도나 될까?

양장점에서 우연히 수고를 맡아 한잔씩 하며 얘기를 나누고.
눈길이 한결같이 호기심 가득 찬 뱀 같다.

8월 11일 월

대치 3.25매를 금동에 추가하여 신입서(申込書)를 끝내어 빨간 독촉장을 첨부
발송해버려 후련.
하곡출하 독려 출장 타합.

8월 12일 화

송내 신촌입구에서 한잔씩 들고 독려에 나서다.
신천 이장과 이 주사가 옥신각신하여 술자시고 몰려와 데모라도 벌일 텐가?

8월 13일 수

무슨 야로일까?
눈길이 견습 온 우양이라던가에 자주 쏠린다.
허전한 가슴에 언뜻 생각이 스치면 순정을 나눌 처지는 못 될 것 같다.
경험이 없는 나인지라 듣건대 늦바람이나 피우지 않을까?
어처구니없이 성을 너무 빨리 알아 막심한 심신양면의 손해를 보았지.
스스름한 웃음만 입가에 흐를 뿐인저.
일조는 내일 떠나는데 우리는 21일쯤이라니.
멤버도 형편없고 날씨도 맞잖아 울화증만 난다.

8월 14일 목

면장실에서 면장님이랑 타합 끝에 날튐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향하고 귀로 길엔
여객선을 편승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에서의 여권 수속은 내가 전담하기로 하다.

자비 4~5천정도 부담케 되겠군.

덕산 양수기 회수 출장하여 시원한 국수로 요기하고 땀을 흘리며 돌아오다.

8월 15일 금

하늘도 드뭅다. 태극기가 드높게 푸른 하늘에서 춤을 춘다.

엄숙하고 활기찬 눈을 가지고 경축해야 하는데 언제나 국민정신이 가다듬어지
나.

배구를 못해 안타깝다.

8월 16일 토

2만을 쥐고 K.A.L광주사무소로 쫓아갔지만 크게 실망.

26일까지 매진되어버렸다나.

23일에 빌지도 모르겠으니 내일 아침에 둘러보란다.

때가 맞지 않아 23일에는 안될 것 같은데.

8월 17일 일

서성거리다 단념하고 시민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미있게 감상하고 선글라스를 450에 사다.

도청 앞 분수대가 완성되어 10여 미터 위로 물줄기를 뿜쳐 무지개를 띄우는 게 마음을 흐뭇하게 하다.

이제야 광주도 발전하는군.

어머니랑 양산을 받치고 남광주역으로.

차 안에서 타는 정열 때문에 애만 태우다.

8월 18일 월

서운해 하면서 다시 타합을 보자고.

우리 면에 타자기 한 대 온다고.

이제야 완전히 배우게 됐군.

늦게야 김용근과 술집에서 한잔 하려다 여기서 손 안에 쥐고 있다는 진호라는 불구자 아래 놈들과 주먹질 하려다 어떻게 풀어졌다.

분에 못 이겨 가슴이 뚫다.

한번 대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어떤 자식인지 내일 아침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란다.

자신 있음 그 자리에서 명령하실 것이지.

8월 19일 화

개헌에 대한 타합을 하고 한잔씩 돌리다.

아마도 전남에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유독 반대표가 많이 나올 거다.

조금 안다는 것이 정부 비난에 쓸리니까.

열등의식에서의 발단인 정부 비난으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많다.

8월 20일 수

며칠 전 써버린 1,000을 제하고 9,500정도를 손에 쥐고 즉시 4,000 집에 부치다. 3,000을 떼어 밥값을 치루고.

급히 옷을 세탁하여 말려 입고 면장, 총무계장, 호병계장, 김채홍, 윤병수, 나, 병천, 광심, 송양이랑 버스를 타고 순천에서 저녁을 한 후 여수로 향하다.

깨진 버스 앞 유리창이 흔들릴 때마다 와이끈 찌를 듯 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다.

험한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장 머리칼을 나풀나풀 춤추게 하고 우리들 빵을 간지른다.

안착하여 3층에서 숙박하다.

극성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몸을 씻고 면장의 가닥 추려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결단력에 새삼 놀라다.

8월 21일 목

포도를 사들고 모두 배에 오르다.

정시에 뜨는 게 흡족하다.

넷이서 통통 울리는 뱃전에서 사진도 찍고 고성방가도 하며 한려수도를 만끽하다.

목적지 남해군 부두에서 내려 코로나로 금산까지 무려 한 시간여를 달리는데

해변마다 밀려드는 물결이 바위에 부딪쳐 파도를 이뤄 은빛을 내는데 파란하늘 아래에서 내다보는 기분에 더욱 장관이다.

모두들 나와 유명 관광지가 될 이곳 길을 보수하느라 야단법석이다.

금산 입구에서 모두 짐을 풀고 다과를 나누다.

김, 송 양은 반 하이힐에 골머리를 앓으며 오르기 시작하다.

폭염아래 가파른 길을 오르자니 등에 땀이 후줄근하다.

그러나 수만이나 될 것 같은 매미들이 오솔길 주위에서 우리들을 반겨줘 지루함을 모르겠다.

김양이 벗어버린 구두 대신 덧버선을 신었는데 모두 헤져 구멍이 뿡뿡 나있다.

선글라스를 끼고 옷옷을 모두 벗어 손에 들고 더욱 가파른 상봉을 쉬엄쉬엄하며 가는데 전라도 말소리가 튀어나와 반가움에 물었더니 광주에서 왔구나.

간단한 인사도 보내고 대학생 같은 청년 셋이 우릴 붙잡고 무전여행을 하니 한 푼 보태준 셈치고 연필 한 자루 사달란다.

마치 50이 있어 5자루를 가방 속에 넣고 막판을 굵어 오르니 무슨 이런 영화 같은 경치인고.

빌딩만한 바위에 큰 길이 나있어 아닌 게 아니라 꼭 용이 들락날락 했을 것 같은 석굴이다.

앞바다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지 흡사 자연 선풍기같이 바람이 일어 몸에 땀이 짝 걸혀 오히려 추워 떨 지경이다.

작은 애의 안내를 받아 여관에서 묵게 되다.

부산 아가씨들인지 여자팀들만 모여 여행하는 모양.

노란 한 아가씨가 유난히 시선을 끈다.

젊은이들끼리 쏘다니며 대자연을 만끽하고 나이 드신 이들은 화투로 소일 하는가 부다.

정말 그냥 잠들어 야경을 헛되이 보내니 혼자서라도 모든 걸 제치고 나서 몇 길 되는 바위에 올라 목청껏 내뿜으며 외로이 달밤을 얼싸안다.

대아(大我)다운 패기를 안고 씨부렁대며 호젓한 산길을 걷다.

조반을 모두 하지 않아 꿀돼지같이 점심을 하다.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맞선 용호(龍虎).

태조 이성계가 100일을 수도하며 기기 암(奇奇 巖)에 흐뭇해하며 비단으로 이산을 둘러싸게끔 명령하자 너무 비용이 막대하니 단념하고 금산(錦山)이라 명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여 금산이라고 불리운단다.

저 멀리 날름(비행기)에서 내다보는 기분으로 내려다보는 백사장으로 냇다 지르는 하얀 물결이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 물고기들이 뛰노는 양 아름답다.

10여 미터 옆드려 기다시피 들어가 라이트를 켜들고 석간수를 모두들 막 퍼마시는데 유독 면장님이 뭐 술 마시듯 목을 넘긴다.

불로 약수나 되는 듯.

흔들바위 또한 기묘하여 이렇게 흔들리니 언젠가는 굴러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염려도 하게끔 하다.

기념 낙서장에 붉은 사인펜으로 절을 배경으로 한 스케치를 상상해서 그려놓다.

평평 솟는 샘물로 등물을 하는데 어떻게나 차가운지 흡사 얼음물 같다.

8월 22일 금

새벽 4시반경에 모두 일어나 더듬더듬 얼음물 같은 샘물을 막 퍼 세수를 하다.

이렇게 맑은 정신이 또 있을까 싶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일출광경을 못보고 내려가 서운하다.

토함산에서와 다를 것 없는데.

제일 먼저 내려와 기다리면서 기념품을 고르는데 뭐 유별나게 마음 드는 게 없다.

하동으로 건너 가 버스를 잡아 해수욕장으로 가는데 이런 버스는 정말이지 처음 보았다.

어떻게나 사람이 뻑뻑한지!

뭐 사람을 짐승 취급한 것 같다.
김양과 몇 번 이마를 짚으며 곤두박질할 뻔도 하고.
궁둥이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
송림(松林)이 고3 때 가 봤던 소록도에 비할 바 아닐 정도로 훌륭하다.
더운 김에 모두 벗어젖히고 뛰어들다.
바닷물이 아니라 냇물이나 바다와 흡사하다.
백사장도 여느 해수욕장에 못잖고.
양쪽의 다리가 멋있어 사진에 담아두고.
처음으로 영화 보면서 좋아보다.
병천인 부산 형네 집에 간다고 도중에 가버리고 우린 냉우유며 콜라를 막 먹어
대고.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
면장님의 호방함에 웃음을 금하지 못하다.
과연 사나이다운 분이다.
바로 이 선이 전라와 경상을 잇는 선이구나 하며 자리를 찾는데 순천에 거주한
다는 예쁜 두 딸을 가진 아줌마가 극성스럽게도 짐을 챙긴다.
별 여유 없이 지냈으나 그래도 기분은 상쾌하다.
코로나(택시)로 넷이서 순천서 별량까지 달려오다.
목은 잔뜩 쉬었다.
부면장님을 뵈오니 급한 일 때문에 잔뜩 기다리신 모양 반긴다.

8월 23일 토

심부름으로 1,000을 받아 순천에서 급행버스로 광주에 와 도청에 들러 서류를
전하다.
핀잔은 고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받고.
분수대의 물길이 전 보다 약하다.

뭐 날림공사라나.

500을 주고 탁자를 구입하여 비치해놓다.

이제부터 하나 둘씩 가구를 마련해야지.

종철이 학교문제가 잘 돼가는 것 같다.

난 언제나 영장이 나올까?

8월 24일 일

큰 무등산 수박 하나 들고 가려다 취급곤란을 생각하여 참아버리고 빈손으로
승차.

아직은 무덤다.

8월 25일 월

병충해 방제 출장.

학모에게 무슨 사고가 난 모양이다.

곧 찾아가 봐야겠다.

8월 29일 금

게으름의 연속.

정기 계량기 검사를 하다.

도 직원이란 녀석 행위가 꽤 씩하다.

8월 30일 토

비가 상당히 내렸다.

이 정도면 벼에 마치 적당하단다.

병천이 문에 들어서니 담뱃잎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종선이 엄마를 뵈다.

8월 31일 일

빗물이 상당하다.

철길을 따라 사무소로.

철길에 개구리가 많이 죽어있다.

옥시풀이 이렇다고 병천이가.

최병우랑 술 한 잔 나누고 샌드백을 치려는데 통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9월 1일 월

바빴다. 그래 고달파선지 막 배가 고팠다.

처음으로 박센 집에서 더 달라하여 곱빼기 밥을 먹다.

이제 그만 내려야 할 텐데 하며 부면장이 울상이다.

발산을 제대로 못하여 풀죽은 이 젊음.

정말 미치고 싶다.

동네야 떠나려 가버려라 목청을 놓아 울고도 싶다.

손에 무슨 재미가 붙어야하는데.

이렇게 무의미한 삶이 계속된다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

9월 6일 토

출장 용무는 제쳐놓고 제부, 영숙이랑 순천으로 가 종철이 호적초본을 보내고 제부랑 농무과에서 사무를 거들다.

돈이 모자라 영화한번 못 보여주고 그냥 보내버리다.

9월 7일 일

소주와 담배 몇 값 사들고 신천 이장을 뵈다.

왜 선전 안하느냐고 형승 씨가 비꼰다.

뺨이 꼴리지만 참을 수밖에.

종성이가 특별 휴가를 얻어왔단 소식 듣고 술병 들고 병천이랑 쫓아가 반갑게 손을 잡다.

9월 8일 월

종성이 집에서 이불 없이 자 추워 혼날 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기가 들 정도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간지른다.

샘물에 세수를 하는데 완연한 가을이다.

종성이를 모두 배웅하고 난 사무소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동을 해야 할 단계인데도 난 아직 얼굴에 익숙하지 않은 이

가 많으니 일하는 나 자신이 너무 소홀해진 느낌.

나와 따뜻이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주민들을 찾아뵙고 투표에 관한 건 보류하고 농사, 가사를 이야기하며 정은석이랑 소일하다.

개헌을 반대하는 거지 박대통령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고, 윤계선 씨.

9월 9일 화

신천 아가씨들이 마루에 옹기종기 걸터앉아 삼을 삼고 있는데 온통 순진하다 할까 그래서 말도 붙이지 못하고 딱청만 부리고 동욱이 집에서 잔을 나누며 점심.

용운을 들어가니 치도 울력에 떠들썩하다.

100원씩 껌 막걸리 값 보태주고 가가호호를 찾아 인사를 나누는데 역시 아가씨들 여럿이 모여 삼을 삼고 있다.

점프로 단감 하날 따서 깎아먹는데 엄치도 즐단다.

9월 10일 수

점심을 마치고 대여 이장 덕에서 사방 씨랑 농으로 정담을 나누다.

우체부 영감은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인지 마루에서 낮잠을 달게 자다 우리들의 기척에 잠이 깨어 반긴다.

9월 11일 목

페디스토마가 틀림없는데 너무 소홀한 느낌.

곧 검사 후 투약을 받아야겠다.

수도 병충해 방제 대장 작성을 빨리 끝마쳐야겠는데 통 일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

샌드백을 치는 도중 숨이 너무 가빠 쉬엄쉬엄 운동을 하다.

폐에 지장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 자주 부락에 드나드는 것도 염증을 느낄 테니 고려해야 할 문제.

종철이 학교문제는 잘 돼가는 지 모르겠다.

보람찬 나날을 보내지 못해 안타깝기만.

9월 12일 금

우양과 영숙이랑 사과, 과자, 수루매를 막 퍼먹고.

9월 13일 ~ 15일

너무 오래 돼 모르겠다.

바빴다. 바쁜 대신 오히려 한가했는지도 모른다.

게으름을 피워 많은 일을 내버려두어 축적시켜놓고 보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멍할 따름이다.

폭우. 새벽에 일어나게 한 것은 면장님의 고래고래 지르는 기상소리 때문.

운천 저수지 절강 해놓은 것이 완전 나가버려 무진장한 피해란다.

장부에 병천이 글씨로 198 미리.

우산을 집어 들고 정영진과 피해조사차 운천으로.

다행히 전 직원이 야근했기 때문에 모두 새벽에 나갈 수 있었다.

몇 백만 원의 손실(저수지만).

완전히 아래 논 몇 정보를 덮어버렸고 물이 차있을 동안의 위 논이 대부분이

침수.

하의 전부를 물에 젖게 하고 건너서 조사에 힘을 기울이다 헤어져서 부락으로.

가옥피해는 없단다.

개헌안 날치기 통과 운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 머리가 웅웅.

9월 16일 화

이상케도 무림에서 농땡이 쳐버린 결과가 돼버렸다.

하노가 쫓아오고 정종옥이 쫓아오고.

술이 얼큰한 김에 또 소리들을 것을 생각해서 아니 술기가 있어서 곤란하니까
그대로 철로를 따라 한없이 가고만 싶어 그대로 걸었다.

야릇한 쾌감조차 느끼면서.

재만이랑 둘이 아니꼽게 굴어 기분을 잡치다.

언제 한번 붙을지도 모르지.

그대로 한없이 철길을 따라 걸으려다 툭 터진 바다, 마음 후련해질 바다 쪽으
로 길을 바꾸다.

염전 길을 따라 죽 걸어가는데 인부들이 이상하게 여긴다.

길을 물어 꼬불꼬불한 곳을 막연히 걷다.

너른 바다가 시야에 전개. 훨씬 가벼워진다.

농민들이 피를 뽑고 있어 물으니 거차란다.

제부랑 동네 청년들을 만나 바닷가로 거닐며 잡 얘기를 나누다.

장구섬에 놀러가야지...

9월 17일 수

햇빛에 은빛 물결이 나부끼다.

10척이나 될까한 어선들이 고기 잡으러 그물을 싣고 노를 저으며 순풍에 돛을 올려 떠난다.

몇몇은 썰매를 타고 한발로 굴리며 물 빠진 뿔 바닥을 내달아 굴, 꼬막 채취하러 가는데 참 재미있는 생활이겠다.

바다이야기를 하고 혼자 돌아오다.

9월 18일 목

피발 독려 차 송산으로 정영태랑.

피 뺏으려다 눈에 빠져 온통 아랫도리가 젖어 냇물에 씻고 양말을 짜 두 손에 걸치며 독려.

송정 이장 댁에서 점심 후 한숨 거나하게 주무시다.

샌드백과 싸우며 땀 흘린 후 샘물을 몸에 끼었다.

초승달을 보니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군.

종철이 학교문제가 궁금한데 통 서신이 없다.

남양이 곧 약혼한다나. 서운도 하고.

9월 19일 금

이산 댁에서 단감 좀 맛보다.

가을이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는 코발트블루.

9월 20일 토

피발 득려 차 점심 후 장산을 출장.

웬만히 돈 있다는 유지들이 그렇게 거드름피워서야...

10,500 정도 남아 외상 치르다.

9월 21일 일

내가 광주에 간걸 알면 좋은 일은 없을 것이고 에라, 모르게 갔다 오는 것.

눈물 날 지경이다.

보따리 속의 형의 군복...

5천을 드리다.

형이 웬일일까?

왜 그렇게도 모든 것에 약한지.

종철이랑 다실에서 음악 감상 좀 하다 되돌아오다.

폭넓은 경험을 얻기 때문에 한편 나무라지도 못하겠고 그러나 우리 살림의 현 위치를 젓혀놓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허영에 물들지 않기를 부탁하다.

하늘색 송실고 교복에 '김종철' 이름 보다 눈시울을 따갑게 하며 마음 훈훈케 하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런다고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도무지 신빙성이 없어 안타깝다.

9월 22일 월

새벽 4시에 어머니께서 깨워 싸늘한 바람을 머리 뒤통수로 느끼며 어머니와 함께 남광주역으로 걷다.

어머니, 정말 불쌍 하달까.

왜 우리들이 다 컸는데도 어머니 한 몸 편히 모시지 못한단 말이나.

형님!

같은 사람을 조물주는 왜 그렇게도 개성차가 현저하게 행동하게 했을까?

인생이 다 함께 잘 살고 혈뜬지 않고 유대하게 오붓하게 지내면 너무 단조로워서 그랬을까?

형님! 동생 종철아!

‘바람은 일찍 피워야한다.’, ‘늦바람이 무섭다.’

이 말이 옳을지 안 옳을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 자신 충고할 자격도 없는 놈.

우리의 위치, 어머니, 집, 형님의 결혼문제...

우리의 현 형편을 인지하시오?

9월 23일 ~ 28일

별량 청년애량회(靑年愛良會) 조직.

이재만 회장 선출. 병천 회원.

또 한 번의 폭우. 곧 운천저수지가 터질 것 같다.

밀가루를 가지고 이장 댁에서 풀을 끓여 국민투표에 관한 침부물을 우산을 받치고 돌아다니며 벽에다 부착시키고 거센 물을 헤치고 용운까지 풀 양판을 들고 돌아다니다.

플랜카드 ‘농업용수 개발사업 합동 준공식’, ‘가정의례 준칙 실천대회’를 함께 붓질하다.

부재자 신고.

한 시간 동안 플랜카드를 재부와 함께 들고 식을 거행 후 농악, 예비군의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

아주 재미있게 장구 치는 모습에 절로 어깨가 들썩들썩.

명우랑 갈고 다니며 폭음하다.

송산에서 배구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장산 이장이 으스댄다.

애양회 주최 콩쿠르 대회, 연 3일째.

영속이도 상당히 잘한다.

정 주사의 기타에 다들 입 모아 칭찬한다.

정말 도시 못지않게 잘 되어나가는 가요 콩쿠르다.

이발소 김미경 아줌마가 1등하여 은컵과 큰 밥통을 상으로 받고 군중으로부터 열렬한 악수와 양코르를 되받아 인기.

참 어쩌면 난 이렇게도 못났을까 싶다.

9월 29일 월

1,000을 받으며 강력한 훈시를 받고.

생각하지 말자.

병우랑 멋대로 걸어 나가는데 발걸음 떼어지는 곳은 너른 바다.

재부와 만나 장난을 주고받고.

짜장집에서 밥을 못 먹게 되나보다.

서울로 이사한다나.

- 22일치를 쓰며 -

어머니.

왜! 사내가 이렇게 약할 때도 있습니까?

눈물이 솟습니다.

오열이 콧물과 범벅되려 하더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사실 문 밖으로 달빛어린 코스모스를 처음으로 눈 여겨 보았습니다.

뭐 그러나 더 약해지진 않았지요.

그냥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전엔 어머니를 생각할 때였고 후엔 나 자신을 염두에 두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한 시간 전 샘에서 물을 길어 빨래를 했습니다.

면장실엔 부면장님이 근무하시느라 하얀 형광등불이 환합니다.

빗방울이 하나씩 둘씩 듣는군요.

서늘한 바람은 가끔 오싹하게 하는데 길어 붓는 샘물은 따뜻하더이다.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징조로만 알고 있습니다.

온갖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아무 것도 담아두기 싫습니
다.

행동해야겠습니다.

사고도 우선하겠지만 손이 먼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들들 걱정 마시고, 생각 마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맛있게 요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애로우신 어머니.

자식 사랑이 크지만 첫째, 어머니의 심신건강이 나의 행복 전부이며 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날 보고 객지에서 고생한다 하지만 전 고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을 발갈게 달게 하는 퇴약별 아래에서 모래 짐을 지고 6층을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 자식 위해서 밥벌이 하는 게 고생입니까?

아니면 청상과부가 또는 조실 처 한 흠애비가 고독을 짓씹으며 정욕을 짓누르며 한숨을 내쉬며 하는 게 고생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고생일까요?

난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어린애입니다.

어머닌 날 보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현 위치를 가슴 한구석에 넣고 있으니’ 하며 믿고 계실 테지만, 현재까진 변함없지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경험 전무한 솟총각이지만 너무 빨리 안 성(性)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으며 그 때문에 상당한 지장도 초래케 되었지요.

젊은 나이 인지라 한 번도 사랑해본 일이 없는 순정파 청년인지라 내 눈에, 내 이상에 부합된 처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래도 좃대는 굽히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난 병신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또 늦바람 피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슬퍼하셔야겠습니까? (하시렵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이상적인 삶일까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하지만 다 신통치 않습니다.

굵고 짧게 산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한단 것인가.

사는가 시피 살아야지.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 하하하하..., 웃어버리는 게 수다.

9월 30일 ~ 10월 16일

신천 동육이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조금씩 일도 보고 하지만 좀체로 내키지 않는다.

소낙비를 우산으로 받치고 ‘헌법개정안 게시’ 등등을 벽에다 부치며 내 할 일은

해야지 하면서 쏘다니다.

10월 17일 금

어둑한 새벽 동욱이 집에서 잠이 깨어 문을 여니 동쪽하늘에 샨별이 유난히 밝다.

싸늘한 공기를 뚫고 일어나자마자 내놓은 농주의 술기운이 훈훈함을 느끼며 면사무소로 내달다.

위원장이랑 순천식당에서 조반을 마치고 투표 사무에 종사하다.

옥신각신하며 열을 지우기에 땀을 흘리며 내 담당 리(里)에 누가 기권 했는가 명부를 뒤적이다.

제1투표구가 80% 정도, 투표자 율이.

조금이라도 나를 울궤먹으려는 작자들이 알밋다.

10월 18일 토

오전 사무 좀 보다 재부, 병천이랑 순천으로.

‘울고 넘는 고모령’ 감상 후 동걸 씨 댁에서 막걸리 타령하며 장난도 치다.

바가지 술값은 아니지만 생떼를 써보다 옥신각신 말다툼 좀 하다.

택시로 돌아오다.

잠종대를 다 써버렸다.

10월 19일 일

면장 덕에서 전 직원이 회식하고 돌아와 숙직실에서 한바탕 떠들어대다.

10월 20일 월

월급을 받아 외상 갚고 제부 400원 회수하여 잠종대를 채우다.

10월 21일 화

국민투표에 관 벽보 첨부물 철거하러 담당 리에 출장하여 김용석 조합장 덕에서 계 치루기에 한잔.

10월 22일 수

입영 영장을 받다. 12월 15일.

농림 통계 출장 타합 후 열차로 집에 달다.

형이 곧 결혼해야한다는데 정말 큰일이다.

5천을 드리고 종철이랑 제일극장에서 감상.

형도 마음잡은 것 같은데 종철이가 못 미덥다.

공부 좀 해서 5급에 조속 패스해야 하는데.

돈 벌지 않을 때는 빛이 없더니만 돈 좀 벌려하니까 빛이 무진장 불어난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때인 줄 모두 알아야할 텐데.

10월 23일 목

돌아와 늦게까지 방에서 출장 용무 가닥을 추려놓고 골칫덩어리 잠종외상 증서 정리.

10월 24일 금

농림 통계를 들고 대여, 신천, 용운을 마치다.

비가 똑똑 들어 용운리장 우산을 빌려 받치고 내려오다 얼큰한 김에 콧노래 흥얼대며.

31사 연예단 쇼를 즐기다.

10월 25일 토

저수지 부지에 들어간 면곡을 빼놓고 다시 정리 집계하려다 3시쯤에야 완결보고 넘기다.

하필 숙직이라 서운하지만 순천 전 직원 회식에 참석 못하고 혼자 방구석에서 안 듣는 기타를 튕기며 내 살림살이 정리도 하고 병역 걱정도 잠깐해보며 종철이 생각도 하고, 학모 생각도 하며...

샌드백을 후려치다.

이제 추위가 왔나보다. 얼굴이 핏색해진 것을 보니...

제부, 병우랑 모두 성격이 엇비슷해 친구 없는 나로선 안달이 나게 하다.

용면에서 주먹만 한 감을 얻어오다.

자위? 반항? 용기가 없다?

장남 역할? 내 위치? 내 위치!

11월 4일

전 직원들이 모두들 다음 봉급 후 순천서 오입 좀 하잔다.
용기? 용기! 내 위치? 실감이 안 간다.
타자기가 왔다. 배운 것과 판이해 처음은 곤란.
곧 내용을 알게 되다.

11월 5일

타자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부지런히 배워버리자.
석현 실습생 방에서 환담하다 돌아와 타자기 앞에 앉았다.
편지를 해야겠다. 집에, 학모에게.
오늘 갑자기 몸이 으스스할 정도로 추위가 몰아닥쳤다.
오늘 아침같이 내일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공을 차며 운동 해야겠다.

11월 24일

남광주역에서 앞이 어스무레할 만큼의 함박눈을 스치며 어머니에게로 곧장 달려가다.

8,600에서 스웨터 1,700, 식대 3,000, 3,900 남았다.
아직 외상도 상당한데 그냥 3,500 드리고 보다.
내가 만약 임대하면 어떡한다지?
종철이가 곧 졸업고시 치른다고.

정신 차려 공부해서 5급에 합격해야 할 텐데.

정말 큰일이다.

어둠이 온 누리를 덮은 8시쯤 형이 퇴근하고 들어왔다.

웬만 절약하면 일만 원은 보탬 수 있을 텐데. 아직 군 생활에 능하지 못해서
일까?

정신만은 바짝 차린 것 같은데.

어머니가 증심사를 나다니며 차 열매를 따 하루 150 정도 수입하신다고 하는
표 딱지가 가슴 뭉클하게 한다.

11월 25일 화

이복녕씨 아들 의송을 만나 타함 끝에 어머니에게서 2,000을 되찾아 600과 합
쳐서 주다.

가서 부친께 받기로 하고.

어머니가 안됐다.

막 도착해서 부쳐드려야지.

11월 26일 수

아무리 애쓰고 돌아다녀봤자 한가마 안 나온다.

면목 없어 청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락에서 자버리다.

11월 27일 목

용운을 거쳐 신천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정 주사가 다녀갔다고.

재부와 현대 옥자한테 다닌 후로는 자주 다니게 되어 나중엔 너무 이무로워져 장난도 치며 옥지거리도 거침없이 하다 웃기도 하고.

나기도 상당한데 왜 아직도 시집을 가지 않는고?

병천이가 우리가 다닌 후로는 옥자, 강원이랑 생기가 돌더라고.

11월 28일 금

농지세 한가마니 나오지 못하게 되자 면장, 부면장이 직접 들어오시어 이장, 부락민 앞에서 실적이 없을 경우엔 다른 기관으로 옮길 준비해야한다고 호통.

신천 이장 덕에 7가마 낼 수 있었다.

동육이네도 몇 가마는 내줄 수 있을 텐데...

유감스럽다.

실적부진, 호통. 농지세 30여 가마.

12월 6일

40여 가마.

마음이 들떠 잘해보고자 해도 잘되지 않는다.

12월 9일 화

5만을 받아 매상실적에 임하게 되다.

재부랑 편물점에서 옥자, 강원이랑 화투치다 저버려, 200 과자 먹다 갈 곳이 없

어 편물점 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다.

유담프에 발이 후끈후끈. 웃고 웃으며의 연속.

나는 코 골며 맛있게 자는데 재부는 한숨도 못 잤단다.

새벽에 옥자의 조급함에 일어나 재부랑 걷다.

10시간여가 넘어도 날 썰 줄 모른다.

그대로 드러누워 자버리다.

10시쯤에야 깨다.

집 앞에선 술집에서 모임을 줄 아는 모양.

대낮에 나랑 재부랑 편물점에서 노는 걸 부면장에게 들켜버렸다.

통 농땡이 친 줄로 밖에.

12월 10일 수

동한씨 일만 원 밖에 못 먹이고 용운에서 비상소집 스피커를 들고 청에서 회의.

면장님이 대여에서 통 독려치 않는다고 들었는지 날 꼬집어 10여분을 꾸지람.

태연히 자리를 포개고 눈은 조금도 치켜져서 듣고만 있다.

급한 모양이다.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하시오!’

다들 각 담당 리로 출장.

후레쉬 전지를 40에 갈아 끼우고 공동묘지를 지나 대여로 걷다.

10시는 이미 지났다.

김기수 씨 집에선 군에 있는 아들 찾아 간다고 떡방아 중.

나락이 없단다. 사정에 사정을 거듭하다 퇴짜.

원승 씨 6가마니는 예매 당비(豫買 糖肥), 봉승 씨 것 가지고 한바탕. 본 성질을 여기 온 후 처음으로 본때로 보여주다.

농협에서 신천 이장이 면장이 주선 매상은 1등을 맞춰주고 남은 것은 아랑곳

않는다고 호통.

당비(糖肥)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달래어 술 나누다가 보내버리다.

12월 12일 금

어저께 받은 ‘소지품 가지고 급래’ 전보를 받고 저녁차로 내려가다.

3,000 드리고.

그냥 다음을 위해서 그냥 입영하라고. 결심.

별 생각에 눈물이 글썽.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발소 오(吳)산이랑 정(鄭) 직원과 타함.

3만원 돌아와 들고 보니 17병원 진단서가 문제.

12월 13일 토

업무처리 해야 하는데도 들떠서인지 내키지 않는다.

재부랑 4명이 옥자 방에서 화투로, 이야기로, 훈계로 결혼을 조속히 하라며 완전 날 새움.

이 정을 어떻게?...

12월 14일 일

혼자 나와 내무(內務)에 손대다.

앞집에서 조반을 하는데 날 새움 해서인지 꼭 점심 같은 기분.
봉승 2,500 드리며 10여 킬로그램 모자랐다고 말다툼.
동순 2,600 드리고 동승 300 받고, 동욱에게 1,000 받다.
이장이 못내 아쉬워하며 꼭 다음에 여기에서 일 보라고.
용운은 급하여 인사 못 드리고 대어로.
윤기선, 김기수 들러 인사하고 이장 댁으로.
모두들 나락 훑고 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최순종 씨가 옷을 벗기며 훑어 주라고.
이장이 술을 권하며 애석해 하다가 500을 쥐어준다.
고맙기 그지없다.
김센 집에서 문중 인사드리는데 15여명이 200을.
고맙게 받았지만 같은 일가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서운하다.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다.
상당히 술이 위에 차있다.
밥값을 2,650 이라고. 껌치만 어쩔 수 없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갚다.
이센에 700, 순천식당 800여, 신 값 900, 짜장 170, 손짜장 240 갚다.
아는 분마다 인사 여쭙고 서운함을 악수로 달래다. 헤어지면서.
그대로 숙직실에서 자버렸는지 깨어보니 황혼이 무르익을 무렵이다.
내무를 대강 간추려놓고 복명서 등사하여 철해놓고 하니 자정이 넘었다.
면장님, 박 계장님, 병우에게 인사편지를 미결함에 넣어 놓고.
몸이 으스스톡 톱다.
청 한번 쪽 훑어보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나와 짐을 챙기다.
처녀 시집가는 기분이다.
순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박 짜장 갚고 한도꾸리를 한입에 넘겨버리고 마지막
으로 못 만나볼 것 같아 옥자 방을 두들겨 들어가니 막 잠에서 깨는데 말소리조
차 잠이 서려있다.
귤련을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마지막 정담.

나 군 갔다 오면 이미 시집 가버렸을 거고 .
돌이서 걷다 날 보고 반가워할는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며 죽겠다고 웃는다.
우리 장가 간 것 보고 시집가겠다고.
아마 몇 개월 내로 혼인할 것 같다.
사실 우리보다 2살 위이고.
내일 못 보고 갈 것 같다며 마지막 부탁하며 들어와 내무.

12월 15일 월

면장님이 일찍 오셔서 모두 잠에서 깨다.
어제 이야기 했으면 직원들 불러들여 송별연이랑 하고 서운찮게 헤어질 걸 하
는 면장님의 말씀을 일축하고 순천식당에서 큰 물고기 냄비를 둘러앉고 면장, 박
계장, 김수중, 정영진 등 간단히 송별연 후 장터를 돌며 인사드리다.
십자약국이 음료 한 병 주머니에 넣어준다.
이지열 덕에게 점심 부탁하고 병천이랑 마산으로.
재부가 자고 있다.
밥 주라하니까 급한 걸 안 모양인지 식은 밥을 가져와 여럿이 나눠먹고 같이
나오다.
옥자, 강원이랑 장난치며 이야기하며 애석하게 별리(別離).
아침에 옥자에게 책 3권과 타자기를 주며 알아둬야 할 거니까 별 생각 없이 받
으라니까 어깨를 주먹으로 쿡쿡 때리며 어려워한다.
문딩이, 염병하네. 아둔한 거!
전별금 5,000.
인사하기에 바쁘다. 지나가는 분들에게.
최 계장께 휴직서를 2통 내고 도장 맡기고 20,850 + 700(교육비) 받다.

봉급, 연금, 이자는 이숙에게 부친다고.

총무, 재무, 산업, 부면장이랑 재부랑 나중에 정병수 주사랑 술을 나누며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다.

처음엔 성의 있게 뛰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무너지고 어린 마음에 마음이 들떠 실속 없는 일을 하게 됐으니 너그러이 감싸 주시오.

급히 뛰어 가방, 이불 보따리, 지팡이를 병천, 재부랑 들고 버스에 올라, 순천 이모도 서울 향(向).

급히 별량 전보 부탁하나 시간 없어 취소하고.

광주여객 막 떠나려는 걸 재부 올라타다.

사진 한판.

손을 흔들며, 흔들며.

눈이 창을 후려친다.

종철이가 역에서 기다리다 이제 막 와 드러누웠다고 어머니가.

형이 내일 집결치 말고 31사로 훈련 받게 해준다고.

이만을 드리다. 나머지 이만 정도는 나중에 찾기로 하고.

12월 16일 화

시민관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종철이랑 폭소하며 감명 깊게 관람.

재부, 병우, 옥자에게 꼭 관람토록 편지 띄워야지.

12월 17일 수

별량면 병우, 재부, 하노, 박 여사, 김, 송양, 남부의원, 이지열, 정창성, 대여, 신천, 용운 이장, 옥자에게 보낼 카드를 정성껏 그리다.

순천 매숙(妹淑)에게도.

12월 18일 목

사직공원을 종철이랑 산책하다 제일극장에서 '레드 문' 감상.

형이랑 형 집에 가다가 주변한다는 바람에 되돌아오다.

내일 갈 준비로 챙길 것 모두 챙기고 옛날 일기랑 훑어보며...

오늘 부친 Card가 내일은 모두 지인들 손에 들어가게 되겠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한바탕 웃으리라. 절하는 그림을 보고.

옥자는 만원이랑 오빠라는 글자를 보고 쌍을 찡그리면서도 폭소할 테지.

체! 체! 아니꼽다는 소리하면서.

재부가 옥자한테 카드 이야기를 꺼낼 테지.

서로 펼쳐보며 박장대소 하지 않을까?

아무튼 처음으로 객지 생활한 별량면이라 정 떼기 어려운 곳.

지금이라도 달려가 소곤소곤 정다운 얘기 나누며 지내고 싶은 마음 간절.

머리를 쓸어본다.

퍼뜩 정신이 깨인다.

아까 이발소에서 다 밀어버렸으니...

학생 시절이 떠오른다.

31사 입영은 쉽게 될까?

다시 별량면에 복직할 수 있을까?

아니 3년 후니까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옛 추억을 살리며 근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 내일을 위해서 챙길 건 챙기고 포근한 잠이나 청해보자!

저녁 9시 15분

주인댁 김장하는 칼, 도마 소리를 들으며...

- 끝 -

편지 - 사랑하는 아내에게

※ 아래 글은 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1983년부터 1998년 사이에 부인에게 쓴 편지들이며 중간에 병원 의사의 소견서 등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족과 같이 생활하며 살고 싶은 내용이 절절이 느껴진다.

발송 일자가 기록되어있지 않은 편지가 많아서, 기록된 일자와 편철된 순으로 조정하였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늘 아침은 유난히도 상쾌하더니만 강신석 목사님과 정동년 형님의 형수가 같이 면회 오셨소.

그동안 장사가 잘 안돼서 어디 일하러 다니곤 한다던데 왜 도대체 하던 청과물 장사를 더욱 힘쓰지 않는지요?

그러나 청과물 장사도 잘하고 있을 줄 믿어요.

다시 글로 쓰지마는 나는 정신병이나 다른 아무 병도 없으니 하루 한시라도 빨리 와서 퇴원토록 해줘요.

내가 돈벌이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런 걸로 믿으면 돼요.

이번에 면회와 퇴원 수속하러 면회 올 때에는 닭죽을 써 와요. 튀기지 말고.
닭죽은 먹기 좋은데 튀김 통닭은 먹기가 어려워요.
다시 쓰지만, 하루 한시라도 빨리 퇴원 수속 겸 면회 와 줘요.

사랑하는 당신의 김영철 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의 하나님께 말없이 지금까지의 모든 조그마한 잘못일지라도 용서를 빌고 오늘과 앞으로의 당신과 우리 가정, 이웃, 사회, 국가, 세계평화를 위한 계획을 약속하고 밖으로 나오니, 하늘나라 선동(仙童)들이 죄 씻음의 상징인 백설을 뿌려주어 더없이 기뻐 이곳 나주국립정신병원 친우들과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황금 칼을 차고 있는, 하극상 하지 말라는 전두환대통령 각하께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내시어 1988년도 태극 대한민국의 위기와 패권에 대비하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주십시오 기도드리고 나니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4173년) 역사 위에 아름답다…」가 흘러나와 더없이 기뻐다오.

더없이 높은 하늘 끝없듯 하나님(太極宇宙)의 사랑 끝없으며 제1형상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부모님과 더불어 자유무등(自由無等) 평화스레 산다는 걸 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으며 나는 기꺼이 새마을 지도자가 됐으며 영원히 새마을 지도자이며 사랑하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의 단 하나 밖에 없는 오빠요 지아비 이오.

분명히 얘기하지만 난 광주 사태 수습위원회 기획실장이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려고 끝까지 지켰소.

혹자는 나 김영철 때문에 사망자, 부상… (중간 부분 안보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사망이 무엇이며 영구 불구가 무엇이오.
당신이 내게 행한 잘못은 절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인성검사도 끝나고 했으니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전백중(全百衆)과 함께 못했던 일을 계속 밀고나아가 이를
것이오.

그러나 완전한 평화는 없다는 걸 잘 알 것이오.
에펠탑에서 떨어져 자살극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사서라도 고생을 해야 할
것이며 옛날처럼 정중동 하겠으니 아무 염려 말아요.

광주신협 정기총회를 내가 퇴원하는 즉시 개최할 수 있도록 임직원과 함께 또
광천시민 아파트 주민과 함께 준비해 주시구려.
홍관순 목사님과 함께.

안녕

당신의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던한 더위에 그동안 얼마나 가업에 수고가 많았소?
난 당신의 기다림 속에 잘 수양하고 있어요.
여보, 날씨도 연일 평탄치 못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항상 쫓기지 않는 평탄
한 마음가짐으로 느긋이 일해요.

그저께 명노근 교수, 정동년 형 사모님이 다녀갔어요.

그래도 타인의 어려움을 알고 초지일관 찾아주는 두 분이 너무 고마워요.

당신에게 할 말도 있곤 한데 되도록 빨리 면회 좀 와줘요.

그리고 주위 분들의 노고로 이젠 괜찮아 졌으니 박상학 담당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되도록 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퇴원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당신 고생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영치금이 떨어졌으니 빨리 면회 와서 좀 넣어줘요.

항상 사랑의 하나님 품안에 평온을 가져요.

그럼 만날 때를 기다리며 안녕.

당신의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여기에서 수양하고 있는 동안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가호 아래 아무 별고 없이 청과물 장사에 열심히 세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는지요?

난 당신과 주위 여러분의 염려 덕택에 잘 수양하면서 쪽지에 일기도 쓰고 있어요.

여보,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일기를 쪽 쓰고 있는 사람이 정신병이 있겠소?

이번 강신석 목사님이랑 면회 왔을 때 목사님도 또 당신도 퇴원 수속 밟아서 퇴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편지 한 장 써 보내지 않는 거요?

도대체 당신은 왜 남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만 생각해요?

인철 형님 형수는 왕비열전 수십 권을 사서 책장에 꽂아놓고 열심히 탐독하면

서 형님을 대통령 이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아내다운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 보기는 당신이 정신 이상이 있어요.

난 조금도 정신이나 신체에 이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같이 하루가 천년 같고 흐르는 세월은 하나님도 잡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정말이지 미칠 일이요.

즉시 강신석 목사님이랑 면회 먼저 와서 나 배고프니까 닭죽과 과일 좀 가져와요.

뭐하려고 나를 이곳에 얼마나 묶어두려고 일 만원이나 영치시켰소?

모두 찾아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조처 합시다.

난 단독으로 일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당신과 타합해서 했으면 했지.

그럼 내일이나 며칠 사이에 퇴원하여 집에서 일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창한 봄 날씨가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때 그동안 가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소?

고생하는 당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서 수양하고 있는 당신의 남편은 괴로워 한시하루라도 빨리 퇴원하여 내가 가사를 모두 맡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래요.

여보, 아무리 장사가 잘 안되더라도 계속하던 청과물을 치우지 말고 끈덕지게 계속해요. 내가 퇴원하면 다 담당 할 테니까.

그리고 편지마다 다 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정신병이 있게 그냥 놔 두실건가 생각해 보구려.

당신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요.

하루바빠 난 퇴원해서 가사에 충실하여 남에게 줄지언정 꾸어 쓰지 아니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난 몸과 마음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 편지 받은 즉시 퇴원수속 준비하고 면회 와서 나의 담당의사 박상학님을 찾아 이야기해서 내겐 정신병이 없음을 얘기하고 곧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올 때는 배가 고프니까 꼭 닭죽을 쑤어서 김치랑 가져와요.

여기에선 배도 고프고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아요.

당신이랑 애들과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일이든 하고 다 할 수 있으니 박상학 의사 선생님께 얘기해서 곧 퇴원토록 해줄 줄 믿으며, 나를 억지 정신병 환자로 만들지 말아요.

4. 2.

당신의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동안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보호 아래 별 탈 없이 가사에 충실할 줄 믿어요.

여보, 왜 그렇게 남편을 못 믿어요?

옛그제 강신석 목사님이랑 면회 왔을 때 목사님하고도 약속 했었고 당신과도 약속 했는데 왜 퇴원토록 해주지 않는 것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 하고는 뭐하려고 결혼했소?

‘우주, 곧 해, 달, 지구, 못 별과 하늘이 하나님’ 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제1형상인 소우주’ 이라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뭐 정신이상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모르니까 그럴지!

당신, 기원에도 근무 했었잖아. 바둑이 곧 하나님, 곧 우주의 원이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약육강식 원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마구 먹는 짐승 같은 인간의 원리이면서 정반대로 내어줄 것은 내주면서 합리적인 희생, 봉사하는 하나님의 기독정신이지 않아요?

여기 병원에서도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고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당신한테 있어요.

난 조금도 정신이상 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부 동심일체이지만 부부유별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틀린 언행에 그냥 그대로 언행 하는 바보 같은 지아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즉시 이 편지 강신석 목사님이랑 와서 퇴원 수속을 밟아서 즉시 퇴원해서 같이 돈벌이하며 경천애인하고 가화만사성 하도록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아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에요.

언니랑 같이 읽어보고 내 하라는 대로 해요.

어디 내가 사랑을 실천해 왔는데 정신병이 있겠소?

잘 생각해 보구려.

이만 퇴원 수속과 퇴원하여 집에서 있을 때를 기다리며.

안녕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젠 완전한 봄이구려.

그렇지만 나에겐 쓸려한 겨울과 같이 삭막하고 보고 싶은 당신이랑 애들이 없어 모든 게 귀찮기만 해요.

도대체 왜 퇴원시켜주지 않으며 요사인 면회도 한번 오지 않는 거요?

당신이 지금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도 정신이상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고 있는 청과물 취급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구려.

당신과 애들이 없는 이 곳은 정말이지 배고프고 교도소만 못하게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 받은 즉시 통닭 튀김 말고 닭죽을 썰서 김치랑 가져와요.

면회하면서 나의 담당의사 박상학 선생님과 퇴원 문제를 얘기하게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밑바닥에서부터 착실히 실천해 왔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실 건데 내게 무슨 질병이 있겠소?

아무 염려 말고 이 곳 담당의사 박상학님과 상담할 준비 해 가지고 즉시 면회
와주세요.

그럼 안녕.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가호 아래 그동안 아무 별고 없이 가사에 충실
하고 있는지요?

난 당신과 아이들 또 주위 여러분의 성원 아래 아무 탈 없이 잘 수양하고 있
어요.

이젠 예전처럼 말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빨리 퇴원시켜 줘요.

정신병 있는 사람이 매일 일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곧 퇴원 수속 밟아줘서 영치금 나머지만 찾아가서 가
업에 충실하게 해줘요.

다시 말하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고 또 쓸데없는 말은 절대 삼가고 일에만 충
실할 테니까 빨리 퇴원 수속해서 같이 일하도록 해줘요.

강신석 목사님이랑 곧 퇴원시켜 준다고 약속해놓고 나를 어찌해서 이곳에 머
무르게 하느냐 말ियो.

모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으로 믿고 그냥 웃어넘길 테니까 빨리 퇴원
시켜 줘요.

그럼 이만, 안녕.

※ 지체 없이 빨리 전해주길 주님께 빌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와 만물이 되찾는 듯 활동을 시작하는구려.

그동안 하나님 가호 아래 잘 가사를 보고 있는지요?

보고픈 당신과 동명, 선형, 은형이랑은 아무 탈 없이 나를 기다리며 잘 지내고
있소?

난 사랑의 하나님과 당신, 세 자녀의 염려 덕분에 수양 잘 하고 있어요.

여보, 난 정신과 몸 모두 아무렇지도 않으니 하루 빨리 퇴원 수속을 받아 같
이 지내도록 해요.

난 여기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억지 환자 노릇하며 당신 면회 오기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퇴원 수속해서 같이 열심히 일해서 남 못지않은 삶을 가지도록 해요.

1초 1분이라도 빨리 퇴원토록 해줘요.

그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뒷면 참조)

김영철 씀

(뒷면) P.S) 이번 면회 때 가져온 통닭 튀김은 먹기 어려워서 안 먹었을 뿐이
니 이 번 퇴원 수속하러 올 때는 닭죽을 써가지고 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려.

당신의 염려에 힘입어 사랑의 하나님 보호아래 잘 수양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내가 하나님이다. 마지막 예수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의 동학 사상 ‘인간이 하늘이다’란 말에 지나지 않으니 내가 뭐 정신이상이 있어 말한 걸로 여기지 말아요.

난 강인한 정신력과 단련된 몸으로 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일개 보통 사람들 중의 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은 승화된 하나님의 종의 것이니 날 이상스레 여기지 말아요.

난 어려운 가운데서 실천적인 사랑으로 그 많은 이론을 터득해왔으며 난 주님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당신의 남편이자 애들의 아빠요.

여보, 내가 술 담배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 어떤 이상이 있어서가아니오.

이스라엘 역사서인 성경을 읽어봐요. 어디 술 담배 먹지 말라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는가.

단지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고 기뻐 노래하며 춤추라’ 이렇게 씌어있어요.

난 성경을 통독해서 거의 외우다시피하며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시편’ 등을,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뜻을 많이 깨달았어요.

이 편지 받은 즉시 아니 지금이라도 곧 면회 와서 퇴원하여 주님 사업에 전념토록 처리해 줘요.

통닭 한 마리 가져와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안녕...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김영철 씬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삼남매 교육과 가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소.

날씨도 무덥고 환경도 불비할 텐데 말이오.

여보, 다름 아니라 이젠 관찮으니 퇴원시켜 줘요.

나 집에 있다가 손님들 많이 오시면 다른 방에 가 쉬게 전세방 하나 작은 걸로 가까운 곳에 얻어요.

직장도 몸 완쾌되면 구해볼 테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일요일 날은 되도록 장사하지 말아요.

여보, 무더운 여름인데 하얀 색으로 곱고 얇은 원피스 맞춰 입어요.

여보, 면회가 꼭 목요일만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되니 강민상 주치의 안 만나도 되니 이 편지 받는 즉시 면회 와요.

되도록이면 만나서 곧 퇴원시켜 줘요.

퇴원해서 당신 친정집 짓는데 보태 쓰게 얼마 나랑 갖다 드리도록 해요.

그럼 삼남매 교육에 힘써주고 사업과 가사에 보다 더 힘써 주길 바라며.

주 하나님 은총 아래 잘 지내요.

보고픈 아내에게

화창한 봄 날씨.

아직 쌀쌀하지만 눈부시게 비춰주는 해님.

양지 녀은 완벽한 봄임을 알려주는구려.

여보, 왜 면회를 오지 않는가요?

다른 사람은 매일 면회를 오다시피 하는데...

난 매일 당신 말대로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양도 좋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과 아이들 없는 곳이라 모든 것이 다 억지인 것 같아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보, 빨리 면회 와서 박상학 담당 의사님과 상의를 해서 퇴원시켜 줘요.

안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퇴원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며 돈벌이 할 테니까.

하던 청과물 상회는 치우지 말고 꼭 참으면서 언니랑 과일장사는 계속해요.

며칠 전 정동년 씨 부인과 강신석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아무 얘기가 없던가요?

이 편지 쓰기 전에 박상학 담당 의사님과도 얘기 했으니까 퇴원준비만 해 와요.

사랑의 하나님 고마우심에 다시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가호아래 동명, 선형, 은형, 또 언니랑 별고 없이 생활에 여념이 없는지요?

난 당신의 기대와 아이들 기다림 속에 잘 수양하고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을 실천했는데 내게 무슨 정신병이 있겠소?

이번 면회 왔을 때는 닭을 튀긴 것 가져와 잘 먹지 못했었어요.

이제는 면회 올 때는 닭을 튀기기 말고 그대로 닭죽을 쑤어서 먹기 좋게 해서 가져와요.

여기 담당의사 박상학님도 당신을 만나서 합의해야 퇴원이 된다고 하니 강신석 목사님이랑 퇴원 준비해서 같이 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나, 김영철에게 무슨 병이 있겠는가?’고 생각해 보고 하루라도 아니 이 편지 받은 즉시 면회와 줘요.

아이들이랑 사직공원에 놀러 갈 수 있도록 해줘요.

정말 난 이곳에서 배고프고 적적해서 못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떨어져 살았는데 이젠 그런 일 없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할 능력도 있으니.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

당신의 남편 김영철 씬

※ 1분 1초라도 빨리 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나는 이곳에서 수양 잘 하고 있으며 대자연의 경관에 고마움을 느껴요.
난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해요.

광천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를 곧 준비하고 나 아니면 당신이 이사장을, 광천 천주교 문재택 씨가 부이사장, 서동주, 임귀순, 제형덕, 김환, 김형채, 각 통장이 이사와 감사에 피선 되도록 조 상무(전무이사), 정은선 직원과 철저히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광천시민아파트가 3년 내에 멋진 협동촌이 될 수 있도록 10개년 계획을 단축시켜요.

아파트 주민 중 일부가 나 없는 사이 당신을 못살게 굴었을 줄 다 알고 있지만 모두 용서하고 한 형제자매가 되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마지막 예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너희는 신이다’라고 말한 나사렛 예수의 말이며, 동학사상 ‘인내천(인간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신병에 내가 걸렸겠는가 생각해 봐요.

퇴원 준비 철저히 하고 와요.

빨리 안 오면 즉각 이혼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요.

단기 4317년 (1984년) 1월 2. (수)

사랑의 누이, 신부의 남편 김영철

사랑하는 아내에게

(앞 몇 줄 안보임)

당신과 아이들 염려 덕택에 더 많은 인생 공부를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고난을 주지 마시오소서 애원하고 있어요.

난 사실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금(精金)을 낱기 위한 연단(鍊段)에 불과하며 난 옴기의 옴 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제 많은 축복이 우리 가정과 모든 백중(百衆)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거예요.

여보, 당신 바쁘겠지만 면회 온지 사나흘이 넘었어요.

돈과 나중에 누구를 택하겠소. 즉시 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영구불구 폐질 정신병 사망이 어디 있겠소?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아,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날 미친놈 정신병자로 몰아붙이지 말아요.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은 모두 내 자신이 책임질게요.

‘내가 하나님이다. 마지막 예수다.’라는 말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며 요한복음의 ‘너희는 신이라.’라는 이론에 불과하며, 보이는 참 하나님은 어리야이를 비롯한 우리 인간들과 해, 달, 별, 지구 모든 것인 줄 알고 있잖아요?

광주항쟁 당시 난 하극상(국민이 정부를 뒤엎는 것)하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게 사태 수습을 한 시민, 학생수습위원회 기획실장 이었으며 끝까지 총 한방 쏘지 않고 평화로서 지킨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혹 알지 못하는 분은 큰 골치 덩어리였으며 광주 사태 수습을 잘못된 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 난 구약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시편 등을 수백 번 읽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언제까지라도 모든 사실이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실 거요.

난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써서 세상에 공개할 것이오.

전라남도 청 2층 민원실 겸 식당에서 날 죽이려고 7발을 쏜 모 중사도 내가 알고 있소.

난 무서운 사랑의 화신 인간이오.

난 인간이 인과응보를 알고 죄 짓지 않고 신망애(信望愛)를 실천하면 영원…
(중간 몇 줄 안보임)

말조심 하려고 죄를 깨물었을 뿐이오.

광천교회 홍관순 목사님께 이 편지 보여드리고 같이 얘기해 보구려.

그리고 내가 간첩이라 소문났을 때 당신이 아파트 주민과 그 이외 사람들에게 당한 수모는 내가 짐작하니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모든 것을 용서해요.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를 알고 있잖소.

내 당신이 방해해도 광천시민아파트를 사랑의 협동촌으로 만들고 협동교육연구원보다 훌륭한 태극(太極) 지덕(知德)체육원을 문화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전 세계 모든 아파트를 협동촌(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성)으로 일시에 조성할 것이오.

모든 것이 다 똥이니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더라.’하셨으면 내가 독일 목사에게 말한 것처럼 맨 처음부터 영원토록 태극낙원이잖소.

난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받고 또 소설과 책으로서 처녀와 비 처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성처녀로서 동명이를 낳았어요.

내가 알면서도 처녀막을 터뜨리지 않았고 동명이 날 때의 큰 고통이 바로 처

너로서 낳았기 때문이에요.

남녀 모두 초지일관 순결을 지켜야 해요.

우리의 고생을 낭만으로 생각해버리고 초감정 시공간(超感情 時空間) 해버립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 하라...

태극 4317년 1월 24일 (화)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앞줄 2행 해석 불가)

당신과 애들, 이웃 사회,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염려에 힘입어 난 아무 탈 없이 잘 수양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당신의 남편이 아프겠는가 생각해보구료.

구정 대목 보고 광천교회에 출석하여 10계명을 지키고 종철이 가족과 친정에 가도록 준비해 줘요.

1. 되도록 빨리 면회 해줘요.

2. 난 조금도 정신이상이나 아픈 데가 없으니 조속히 퇴원하여 생활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후 6행 해석 불가)

3. 광천 신협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현재 이사, 감사, 직원들과 준비해 줘요.

4. 난 여기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 직원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힘입어 수양하며 하나님 복음 전파와 깨끗한 생활에 전념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말고 잘 먹고 잘 지내며 교회 출석 잘 해요.

일요일 안식일엔 꼭 문 닫고 예배 참석하며 재미있게 지내고 휴식하도록 했으면 해요.

여하튼간에 빨리 퇴원하여 우리 가족이 이웃과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요.

1984년 1월 25일 (수) 11시 02분

사랑의 남편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 ‘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찬송가사와 같이 연사할때 새벽 눈을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자꾸자꾸 뿌려주고 있는 이 때 당신과 아이들, 또 도와주고 계신 언니랑 사랑의 하나님 가호 아래 잘 지내고 있는지요!

어제 언니와 면회 온 후 즉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 조금이라도 아픈 데가 있겠소?

언니와 함께 면회 한 번 더 와서 병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퇴원하여 같이 돈벌이 하며 즐거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줘요.

나의 광주서중 일고 친구들은 거의 검판사가 되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남편이 새마을 지도자, 신협 이사장에서 그쳐야 되겠소?

즉시 사법, 행정, 외무 세 가지 고등고시 준비를 할 테니까 빨리 퇴원하도록
해줘요. 난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를 못하겠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도 단 하나 흘러가는 세월만은 어쩔 수 없으니 가장 큰
죄악이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책장 맨 아래 칸은 문을 닫지 말고 언제나 안이 보이도록 해 놔요.

가장 중요한 책과 일기장 하나님 나라 건설 현황 자료가 가득 차 있으니까.

겉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

다시 말하지만 곧 퇴원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요.

퇴원 즉시 당신 고향에 들르도록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현재 1월 26일 (목) 9시 29분 창 밖엔 계속 눈이 내리고 티비에선 요리
강습 프로가 나오고 있소.

당신, 난 조금도 죄짓지 않고 살아왔지만 티끌도 없겠소?

우리 이대로 깨끗하게 영원히 살아가요.

난 이곳 환자들과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쁘게 살고 있소.

그러나 난 당신과 우리 애들, 언니가 더 좋아요.

처제들과도 같이 일하며 살아가고 싶고.

내 퇴원하면 즉시 협동촌을 만들어 가기 시작할거요.

영화 ‘스파르타 카스’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는구려.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삼위일체

단기 4317년 서기 1984년 1월 26일 9시 44분

영원한 당신의 사랑 김영철 드림

단기 4317년 서기 1984년 1월 26일 (목) 8시 30분

업무추진 생활 일기

내가 불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받아 진리를 천천히 할지라도 사랑(실천적)이 없으면 이는 울리는 빈 껍과리와 같습니다.

(이후 중간에 한자 영문 등 메모 생략함)

스파르타쿠스

십자가에 매달린 남편을 그냥 놔두고 마차에서 그대로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세 번 입을 벌리고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가다. 부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누이, 신부에게

그동안 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무런 연고 없이 잘 지냈는지요?

난 당신의 따뜻한 보살핌에 고통 없이 하루하루 일기를 약봉지에 적으며 보람되게 앞으로의 주임(主任)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아요.

영원무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데 내가 정신병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구려.

그리고 작으만한 틈을 내서 성경 맨 뒷부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 보아요.

당신과 나는 8년 동안 오빠 누이동생 하면서 서로를 그리며 깨끗하게 연애다운 연정을 나누었어요.

난 주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깨끗한 영육(靈肉)으로 나와 똑같은 당신과 함께 30세를 넘기기 싫어서 29세 때 구혼을 했었고, 서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즉시 내게 승낙의 편지가 왔으며 종로독서실 밥집 큰방에서 나의 두 어깨를 당신이 꼭 껴안았을 때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성처녀 총각이었었잖아.

자기는 당신이 나의 원혼신(元魂身), Combination, Monami, Everasting Love, 영겁을 두고 돌만이 연정을 나눠야 할 신랑이야.

그러나 부부유별이 있잖아요.

서로의 한계선을 분명히 합시다.

착한 아내가 착하고 훌륭한 남편을 만들지요?

며칠 전 당신이 언니와 면회 왔을 때 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천국 문을 여는 키스를 단순(丹脣)에 퍼부었소.

Kiss me quick.

I have wished you how this feeling.

Hold me close and never let me go.

All that kiss will open Heavens Door...

천국 문을 여는 구체적 사랑, 접순(接脣), Kiss.

‘천하는 내 것이다. 내 품에 안겼다.’

난 어렸을 때부터 우주가 하나님 부모님인 것을 알았으며 자살이 가장 큰 죄악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난 자살한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게 해 주시려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놓았어요.

좋은 학교 나온 녀석이 그 고생을 다 했겠소?

다 하나님 뜻이오.

그럼 안녕, 안녕, 안녕.

4317. 1. 29 (일)

오빠, 남편 김영철 드림

새벽에 씬

일기 쓸 두터운 공책과 삼색 볼펜 빨리 넣어줘요.

빨리 퇴원토록 조치해 줘요.

내 사랑 내 누이, 신부여!

한 점의 티끌 없이 온전히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련이 닥쳐 우리의 고결한 꿈을 무산시키려 하나 사랑, 고마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맨 처음부터 약속하셨소.

맨 처음과 가운데 끝이신 알파 오메가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갈라놓으셨을 때 안타까우시면서 또한 기뻐하셨을 게요.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으니 내 사랑, 이젠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이 험악한 세상을 옥토낙원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같이 살아요.

우리의 합리, 민주적 사고, 언행, 희생봉사가 끝내는 승리한 거요.

이젠 내 퇴원하면 즉시 광주시민아파트와 모든 아파트를 사랑의 협동촌으로 바꾸어 놓겠소.

요한계시록에 명기된 하나님의 성이 바로 아파트(A.P.T)를 뜻한 것이요.

당신의 친정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옆에 우리들만의 꿈인 개인주택을 호화롭게 짓겠소.

그리고 지하에 멋진 협동촌을 지구 전체에 만들 것ियो. 얼마나 멋지겠소?

에어컨이 필요가 없으며 전쟁이나 싸움이 곧 그칠 것이고 해외교포가 모두 돌아올 것이며 평화적 남북통일과 중화민국, 독일 통일을 자기 민족 스스로 이루도록 지켜 볼 것ियो.

우리 인간은 태극(太極) 천신(天神) 인간으로서 천사 하나님 인간이어야 하지 않겠소? 내가 말한 ‘내가 하나님이다’는 동학 철학사상의 ‘인내천, 인간이 하늘이다’이며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께서 말한 ‘너희는 신이라’에서 내가 깨달아 외친 것에 불과해요. 요한계시록 연거푸 읽어봐요.

그리고 광주교회 흥관순 목사님께 이 글월 드리고 같이 읽어본 후 꼭 자개농 가운데 서랍에 보관해요. 이번 면회 때 건네 준 약봉지 일기와 함께...

이젠 우리 멋진 삶을 영원무궁토록 살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모두 보이는 하나님 곧 어린양들이어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나도 어느 경우에도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4317.1.29.(일) 오후 배구 시합 보며 씀

오빠, 신랑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요사이 날씨가 꽤나 추운데 그동안 별고 없이 가사에 충실하고 있을지 알고 있어요.

난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당신을 믿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설날인 구정이 벌써 지나가 버렸지요.

난 면회 올 줄 알고 학수고대 했었는데 아직도 와주질 않군요.

잘 생각해 보구려. 내가 어떠한 정신력으로 실천적 사랑을 해 왔는가를...

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동학사상 「인간이 하늘이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너희는 신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의 말과 똑같지 않아요?

대우주가 하나님이고 인간은 소우주, 곧 어린 양에 지나지 않잖아요.

내가 한 말을 잘 음미해보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 잘못 판단했어요.

난 할 일이 태산 같고 곧 퇴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 수호하는 옥토낙원
조성 사업을 계속 초지일관해 나아가야 해요.

난 이곳에서도 일기를 쓰고 있어요.

당신에게 보관하라는 일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정서 안정에 좋다고 직원 여러분에게 부탁하니까 즉시 응해주어 일기를 많이
써 났어요.

하루빨리 면회 와 줘요. 통닭 한 마리에다 무, 김치 같이 가져와요.

여기서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동명, 선형, 은형이 공부 가르치고 돈벌이해야 하니 하루 빨리 와요. 즉시...

할 말이 얼마든지 많지만 만나서 또 같이 살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만 쓸
게요.

안녕

1984. 2. (수)

사랑하는 당신의 김영철 드림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 씀

나의 누이 신부여!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보호아래 나 여기서 수양하고 있는 이 때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오.

나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지 자녀교육에 열중하고 있는지...

여보!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동심일체이어요.

내가 명령은 아니 하지만 당신이 곧 나이니까 나 하라는 대로 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사랑을 죽도록 실천했는데 내가 정신질환이나 다른 병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구려.

내가 말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마지막 예수다.'라는 말은 동양철학의 '인간이 하늘이다.'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신이라.'에서 기인한 한갓 종교철학에 불과하니 아무 의심 말고 이 편지 받은 즉시 퇴원 준비하고 면회 와요.

빨리 안 오면 난 진짜로 정신병자가 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나를 못 믿어요?

방금 텔레비전에서 박종팔과 카터 선수의 세계 미들급 권투시합이 있었는데 나도 유명한 권투선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력을 쌓았어요.

내 퇴원하면 광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 도장을 차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수련했던 권투, 동서양 검도, 궁도, 유도, 합기도, 태권도, 레슬링, 야구, 축구 등을

모두 가르쳐서 돈도 벌고 다음 로스엔젤레스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겠소.

나를 믿어요. 난 여러 가지로 공부 안 한 게 없을 정도이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 엇그제 지나가고 다 면회를 왔다 갔는데 왜 당신만은 면회 오지 않는 거요? 내가 밭소? 어찌하여 오래 입원하도록 영치금을 일만 원이나 넣었소? 여기가 교도소요?

난 아무렇지 않으니 즉시 퇴원준비 하고 언니랑 같이 택시 대절 꼭 대절해서 와요.

그리고 나머지 영치금 모두 찾아서 장사에 보태어 쓸 수 있도록 조치해요.

그리고 나 퇴원하면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접합 수술하도록 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어린아이들을 더 갖도록 합시다.

당신은 이스라엘 성경도 안 읽었소? ‘날고 번창하라. 너희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뜻도 몰라요?

어디 인정에 못 이겨 산아제한 수술을 하는 믿음 없는 여편네가 있겠소?

내가 축구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윤상원이랑 뭐라고 했소? ‘형님은 술 욕심과 자식 욕심 많다’고 했지 않았소?

왜 남의 부탁이 당신 남편 말보다 못한단 말이오? 남이 나보다 더 낫소?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고난을 받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억지 정신병자가 된 것이오.

내가 어디 정신병자란 말이오?

내가 보기는 당신이 정신병자야. 왜 일을 거꾸로 처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줄 당신은 알고 있구려?

큰일이야 큰일. 거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고 거의 진실이 아니며 비유일 뿐인 것이오.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 세상 끝장이야 끝장.

해, 달, 지구, 별, 하늘 곧 집우(宇), 집주(宙) 우주가 하나님이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몸으로 만든 피조물 중 가장 으뜸이며 하나님의 제일형상인 어린 양이고 사랑의 실천 도구에 불과한 것이오.

나는 종교, 민족, 세계사, 철학사상 이념과학을 독학으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우주 곧 이 세계의 기원이 4317년(예수 나이 1984 + 2333년) 밖에 안 되며, 앞으로 우리 인간과 만물이 영원토록 이 옥토낙원에서 현재의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깨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종일 따름이오.

왜! 나를 악마로 만드는 것이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말이오.

언니에게 잘 물어봐요. 이 편지 같이 읽으면서 이스라엘 성경책 요한복음이랑 읽어보고.

모든 일 젓혀놓고 언니랑 돈 좀 들더라도 하루 자가용이던지 택시 대절해서 퇴원준비 해가지고 즉시 면회 와 같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방해를 놓느냐 말이오? 왜 당신과 나는 거꾸로 됐어요? 당신이 여기 정신병원에서 수양 좀 해요. 내가 편지로 깨우쳐 줄 테니까...

올 때는 통닭 한 마리와 과일 골고루 가져 와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 바보야 태극낙원(太極樂園)이 맨 처음부터였다고 독일 목사들 앞에서 얘기했잖아! 여기 지구촌이 영생무궁의 협동낙원이야.

그리고 우리 방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국제발전연구원장 아키바에가 그 분이 나사렛 예수야. 사진도 있어.

수염까지 기르고 서울 동교동에서 곧 협동교육연구원에서 찍은 사진 봐.

나하고 송보경 씨랑 얘기도 했어.

4317년 2월 5일 (일) 19시 30분

오빠, 남편 김영철 씬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가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여 당신이 면회 와주길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적고 있어요.

여보, 난 당신이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티 없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으며 나의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빼앗긴 자에게 합리적으로 희생 봉사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데 내가 말 좀 잘못했다 해서 정신병이겠는가 생각 좀 해보구요.

내가 말한 '내가 하나님이다. 마지막 예수이다.'라는 말은 동학사상의 인내천(인간이 하늘이다.)을 말함이며 나사렛 예수의 '너희는 신이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말한 것 뿐 이에요. 어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겠소?!

좀 생각 좀 해봐요. 부부 동심일체이지만 부부유별이 있잖아요?

부부사이엔 한 마음 한 몸이지만 반드시 유별해야 할 한계점이 있지 않아요?

나도 누구 못잖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실천해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사내대장부이지 않아?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으면 싶은가요?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일은 내가 서슴지 않고 하지만 당신의 일방적인 것은 난 할 수가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궁둥이가 무거워야하는 법이잖아? 어찌 하나님의 제일 형상인 인간이 아무 합리적인 사고방식 없이 몸과 입을 마음대로 놀려요?

여보, 당신 바둑 두는 기원에서 근무하면서 바둑이 약육강식과 합리, 민주적 희생, 봉사해야 한다는 우주원리인 것을 알았지 않아요?

명성신천(明星辰天 해, 달, 지구, 별, 하늘) 곧 우주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찮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일형상이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빨리 면회 와서 퇴원수속 하도록 해요.

난 부지런히 돈 벌어서 가화만사성을 실천해야 하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가 서울 종로독서실에 있을 때 과일장사 한 것 알고 있소?

인과응보라고, 그만큼 더 주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 때 돈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과일을 사러오게 되어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정찰제 실시하면서도 더 줘야 좋은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해요.

옆에 사람들이 더 준다고 뭐라 해도 나를 믿어야지요. 나 아무 정신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 광천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때 다시 이사장으로 피선되어야 광천시민아파트를 이상적인 협동촌으로 만들고 서울 동교동 협동교육연구원보다 더 좋은 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편지 잘 보관하고 즉시 언니랑 은형이 데리고 면회 와요.

퇴원은 여기 병원에서 잘 알아서 처리 할 거니까 염려 말고.

올 때는 모든 환자와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표시로 나눠줄 수 있도록 굴 한 박스 가져와요.

난 서울에서 별 장사를 다 해봐서 당신보담 더 잘 해요.

또 내가 할 일이 태산 같으니 빨리 면회 와요. 알았지요?

2월 10일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김영철 씀

※ 부부 그림과 영문,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 말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등등 낙서 있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여기서 잘 수양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의 가호 아래 가사에 충실하고 있는지요?

난 정신병 아니라 그 무엇이래도 조금도 이상 있는 곳이 없어요.

내가 편지만도 7~8번 했는데 왜 답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의 담당 박상학 님과 개인면담을 하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고 또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서 새마을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니까 알겠다면서 가족을 만나봐야겠다고 그래요.

이 편지 받은 즉시 퇴원 준비해 가지고 날 면회 와요.

면회 오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고 퇴원수속 밟아서 함께 가사에 충실해야지요.

내 나이가 벌써 40이 다 돼가지 않소?

'남아 20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지 못하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리요.'라는 남이 장군의 호언(豪言)이 있어요.

내가 20세 아니라 40이 다 돼 가는데 왜 나의 갈 길을 막느냔 말이오?

내가 무슨 정신이상적인 행동을 했소!

내가 보기엔 당신이 그랬단 말이요.

더 잔소리하기 싫고 안부 받은 즉시 면회 오지 않으면 여기 원장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소송제기 할 테니 알아서 해요.

여기 의사, 간호사들도 나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정신이상 있는 놈이 일기를 쓰고 편지를 이렇게 찬찬히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일초 일초가 천년 같고 배고프니 닭죽 썩 가지고 과일이랑 들고 만반의 준비하고 면회 와요.

면회 올 때는 당신의 도장 틀림없이 가져와야 돼요.

2월 27일 (월)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김영철 드림

동명이 엄마

여보, 그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난 당신과 애들 염려 덕택에 아무 탈 없이 사랑의 하나님 기도 아래 잘 지냈어요.

잘 읽어요.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무궁하신 분이데 김영철이가 어디 조금이라도 정신병이야 아픈 데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구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마지막 예수다.’ 라는 말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며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의 예수께서 ‘너희는 신이라.’에서 보이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뜻이며 죄 짓지 말고 잘 참고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이 글 읽은 즉시 퇴원하도록 만반 준비하고 빨리 면회 와요.

요사이는 왜 면회 오지 않는 거요.

나는 마를 대로 말라 뼈만 남았소.

올 때는 빵2, 우유2, 담배 2갑 꼭 가져와요.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 빨리 와서 퇴원토록 하고 내가 돈벌이 하도록 조치해요.

광주 사태 당시 당한 수모는 내가 짐작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말고 약점으로 여기지 말고 뚝뚝이 외상값을 받아내도록 결단성 있게 행동해요.

내가 퇴원하면 부드럽게 처리 완결할 테니 그냥 모든 것 놔두고 나 퇴원할 수 있도록 해줘요.

주민등록 갱신 업무도 봐야 하니까.

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소.

빨리 와요. 같이 돈벌이 해 나가도록.

빵과 담배 꼭 가져와요.

내 경험으로 볼 때 배가 고프면 술과 담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오빠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벌써 4월 1일 만우절이 됐군요.

여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 아래 잘 수양하여 모든 질병을 이겨냈소.

얼마 전에 강신석 목사님과 정동년 형수님이 같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웬일로 오랫동안 다녀가지 않는 거요?

여기 박상학 담당 의사님과도 상의가 됐으니까 한시바빠 퇴원수속 겸 면회를 강신석 목사님과 같이 해줘요.

보호자로 되어있는 당신이 와서 박상학 담당 의사님과 같이 상의를 해야 내가 퇴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 중 꼭 해야 할 것은 다 해 줄 테니 빨리 퇴원 시켜줘요.

난 배고파서 교도소라면 탈옥이라도 하고 싶어요.

여기 생활이 교도소 생활보담 못해요.

올 때는 닭은 튀기지 말고 닭죽을 쑤어서 김치랑 같이 가져와요.

이제는 꼭 퇴원시켜서 같이 일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요.

그리고 그동안 하던 과일 장사는 계속 해요.

다른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곧 와서 퇴원시켜 줄줄 믿으며...

4. 1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김영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는 4월 초봄으로 성큼 다가선 이때 그동안 아무 고난이 없이 가사에 충실했소?

난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과 식구들의 염려, 또 이곳 직원들의 보살핌에 힘

입어 수양 잘 하고 있소.

그제는 강신석 목사님과 정동년 형수님이 오셔서 튀김 통닭으로 공복을 채우며 고마운 대접을 받았소.

오늘은 4월 2일 월요일 상쾌한 봄바람을 쐬며 이 글을 쓰고 있소.

나의 담당의사 박상학 선생님께서 보호자인 당신이 와서 의사 면담을 하면 즉시 출원시켜 준다고 다짐했소.

그렇고 난 아무 질병이 없소.

당신이 나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요.

이 편지 받는 즉시 혼자도 좋고 강신석 목사님과 함께 닭죽 썰서 퇴원 준비해서 가져와 면회요청을 해줘요.

지난번 닭튀김은 잘 안 들어가서 안 먹었지만 닭죽이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글 받은 즉시 닭죽 썰서 혼자라도 찾아와요.

그럼 곧 실천해줄 줄 믿으며

4월 2일

당신의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창한 봄 날씨 오늘은 벌써 4월 11일 수요일이래요.

여보, 나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는 그동안 당신과 애들 생각만 하면서 하루빨리 퇴원하여 전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수양 잘 하고 있소.

동명이는 그동안 2학년이 되었겠구려.

여보, 난 정신병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속히 당신 곁에 돌아가 직장생활 하던지 사업에 충실해야 할 때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사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수양만 하고 있으면 되겠소?

그리고 여기 소위 환자란 사람들은 매일 면회 오는데 당신은 왜 도대체 면회를 오지 않는 거요.

모든 것 다 집어치우고 아이들이랑 면회를 1분 1초라도 빨리 와요.

올 때는 닭죽 쑤어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강신석 목사님이랑 같이 와요.

퇴원수속을 한시바삐 해서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가호 아래...

1984. 4. 11 (수)

당신의 김영철 보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없는 그동안 아픈 발을 끌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는 당신이 염려해준 덕택에 아무 탈 없이 수양 잘 하고 있어요.

입원하기 전 내겐 정말로 정신이상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곳 나의 담당의사 박상학 선생님과 간호원 님의 극진한 보살핌에 힘입어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이젠 그동안 쉬었던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퇴원 즉시 직장을 마련해 당신은 손쉬운 집안 살림만 보도록 할 테니까 한시바빠 퇴원하도록 준비해서 면회와주세요.

담당의사 선생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면회 와서 담당의사 면담을 해서 모두 좋도록 합시다.

1월 12일 입원했으니까 벌써 4개월 4일이 됐으며 임낙평, 정재호랑 면회 온지는 4월 27일 이니까 18일이나 지났어요.

얼마나 내가 애가 타겠는가 생각해 보구려.

물론 박상학 선생님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 하시지만...

내가 퇴원만 하면 신용협동조합 전남도지부에서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아무 염려 말고 내게 대해서는...

당신이 고생한 걸 안 나는 매우 괴로워요.

면회라도 빨리 와서 박상학 의사선생님과 타합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안녕

5월 17일

당신의 김영철 씬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마철로 접어들어 비가 끈질기게 내리는 이 때 가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소?
난 당신과 애들의 기다림 속에 잘 수양하고 있어요.

박상학 선생님과도 얘기했지만 난 관찮으니 되도록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면회 와줘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당신과 애들이 없는 곳은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워요.

이젠 모두의 정성으로 좋아졌으니 사회로 되돌아가서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퇴원수속 밟아줘요.

그럼 하나님의 가호 아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7. 6 (금)

당신의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몸 건강히 가사에 전념하고 있는지요?
난 당신의 수고에 힘입어 당신 뜻대로 잘 수양하고 있어요.

여보, 부부간에는 지켜야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무조건 당신 뜻대로만 내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응하고 해줄 수 있어요.

더운 여름에 당신 수고하고 있을 줄 알지만 여보, 틈내어 면회 한번 와 줘요.

그리고 외박할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줘요.

웬만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염려 말고 일에 충실해요.

그럼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만 안녕.

7. 22 (일)

당신의 김영철 드림

추석을 맞이하여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국민학생 때 배운 ‘둥근 달’ 노래를 다시 불러 보며 이번 한가위 추석에는 보름달을 기대해 본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 아이들과 밤늦도록 숨바꼭질, 강강수월래를 하며 놀았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등 기계문명에 우리의 전통놀이를 빼앗겨 매우 아쉽기만 하다.

티비를 바보상자라 한다.

시청에만 정신을 빼앗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요새 아이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부모들도 모름지기 이 점을 깨달아 시간을 내어 자기들이 어렸을 때 유희했던 것을 자녀와 이웃자녀들과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티비를 만들어낸 인간들이 기계문명의 노예가 되어야하겠는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추석에는 꼭 보름달이 보여 질 수 있도록 기대해보며 옛날의 추석으로 돌아왔으면 하며 기원한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여보, 그동안 주 하나님 은총아래 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 삼남매 김동명, 선형, 은형이랑 가사에 충실하며 삼남매의 훌륭한 장래를 기약하는 양육에 얼마나 노고가 많소?

어제 금요일 면회 다녀간 뒤에 줄곧 당신과 삼남매를 생각하다 이 편지를 쓰고 있소.

우리 가정의 가훈대로 난 '정신일도 하사불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정신수양과 신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며 또한 당신과 같이 행복하게 살 때를 기약하며 다시 직업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말고 이 편지 받은 즉시 강진상 주치의 이신 의료부장님을 찾아와 면담하고 나를 즉시 퇴원시켜주어서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오.

난 이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꼭 퇴원시켜주어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게 해주오.

그럼 퇴원하여 행복하게 살날을 기다리며

여보, 안녕.

1989. 10. 26 (토)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김영철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주 하나님 보호아래 동명, 선형, 은형이랑 가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소?

난 당신과 삼남매의 염려와 주 하나님의 은총아래 잘 지내고 있어요.

여보, 다름 아니라 목요일에만 면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면회가 되니 이 편지 받은 즉시 면회 와줘요.

여러 가지 타합할 얘기가 많아요.

여보, 남은 돈은 잘 생각해서 방 두 개 달린 가게를 얻어요.

송도식당 근처에 방 한 개를 더 얻던지요.

내 생각엔 음식점 하지 말고 과일가게 했으면 하는데 당신 잘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인제는 관찮으니 곧 퇴원시켜 줘요.

그럼 삼남매 학업에 잘 도와주기 바라며

가사에 충실해 주길 바라오.

안녕

1990. 6. 25 (토)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김영철 드림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주 하나님 보호아래 동명, 선형, 은형 삼남매랑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소?

난 주 하나님 보호와 가족의 염려아래 잘 있어요.

다름 아니고 우리 집이 있어야 하는데 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라도 사요. 보상금만 기다리지 말고.

송도식당 방에서는 우리 가족이 기거할 수가 없어요. 애들 공부방이랑 마련해 줘야 하니까.

그리고 나 괜찮으니 퇴원시켜 줘요.

광천신용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일하도록 할 테니까.

7월 19일 전화 해보니까 동명이가 받던데, 당신은 서울 이모 집 갔다고 하던데.

목요일만 면회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면회되니까 이 편지 받은 즉시 목요일 아니라도 꼭 면회 와서 외박이나 퇴원시켜 줘요.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사게.

그럼 만나서 타합하기로 하고

무더운 여름 조심해요.

그럼 안녕.

1990. 7. 20. 금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김영철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주 하나님 은총아래 동명, 선형, 은형 삼남매와 찌는 듯 하는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소?

난 주 하나님의 은총과 당신, 삼남매와 형제의 염려 아래 잘 지내고 있어요.

여보, 우리 작은 집이라도 우리 집이 있어야 해요.

송도식당 방에서는 우리 다섯 식구 기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명, 선형, 은형이가 공부방이 없어 공부할 수도 없어요.

여보, 꼭 내 부탁대로 해요.

여기에서 병원생활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방이 없어서 내가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황해요.

그러니 보상금만 기다리지 말고 있는 돈으로 종철이랑 해수 아빠랑 얘기해서 수창국민하교든지 어디 싼 작은 집이라도 사요.

물론 창문 달린 공부방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삼남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히 자랄 수 있고 피아노도 한 대 사서 들여 놔요.

내가 집이 없어서 방황해요.

책상 의자도 사고.

그럼 꼭 당신 집 사서 내가 퇴원해서 같이...

(주 - 위와 같이 일기자료 페이지가 끝남)

사랑하는 당신에게

여보, 그동안 주 하나님 은총 아래 동명, 선형, 은형이랑 가사에 충실하며 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 삼남매 양육에 힘쓰고 있는지요?

지난 면회 때에는 내 왼손이 아파서 안절부절 했을 따름이니 너른 이해 바라
고 지금은 내 정신,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으니 이 편지 받은 즉시 와서 강진
상 주치의 의료부장님과 면담하고 퇴원시켜 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
추진하게 해줘요.

당신이랑 자전거로 양동시장 닭전머리에 가서 개고기랑 돼지 피, 쇠 피 등 사
와서 보양탕, 해장국 만들어 팔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모든 상품 도소매 할 테
니까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광천동에 지어요.

보상금은 나왔는지?

은행에 정기예금 해 둔 일천만원은 즉시 찾아서 장사 밑천에 써야 해요.

예치해 놓으면 은행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여하튼 나 퇴원시켜 줘요. 그래서 같이 장사하게.

그럼 퇴원하여 같이 장사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를 기다리며, 안녕

1990. 10. 23 (화)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김영철 씀

편지글 원본 37~39페이지는 얼굴그림, 낙서 등임

아주머님께

신문은 잘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나주병원에서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요?

상태가 좋아지면 ‘김영철 자서전’을 더욱 내용이 알차게 쓰시면 한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일테면 지금의 자서전은 급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으니 차분히 5·18 당시의 내용을 더욱 차분히 쓰셔서 한권의 책이 되도록 하면 출판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생활 도움이 될까 싶어 몇 자 적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신 : 국립나주정신병원장

경유 : 이00 담당의사

제목 ; 송신인 본인 김영철의 퇴원에 관한 건

본인은 광천동 11통 새마을 지도자로서 본인이 설립 5대 이사장직을 한 특별법인 광천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주도해야 하고 지구 협동촌을 설립해 나가야 하는 바 조속히 퇴원하여 본인의 공 사무에 전념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입원 직전 동양철학에 대해 얘기하다 치료부터 정신 이상적인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곳에 입원하여 있는 중으로서 한참 일할 나이에 허송세월을 하고 있음.

2. 즉시 33-3685에 전화해 주시어 본인의 처와 함께 대담함으로서 본인이 무병함을 입증해 주시고 즉시 퇴원조처 바람.

3. 본 문서는 공문서 처리 보관해 주시기 바람.

1984. 3. 2

광천동 11통 새마을 지도자 김영철

부(附) ; 즉시 본인의 처에게 전화해주시어 특별면회를 요청합니다.

수신 : 국립나주정신병원장

경유 : 이00 담당의사

제목 ; 발신인 김영철 본인의 퇴원 및 보호자 특별면회 신청에 관한 건

본인은 20여일 전 기독교 사상과 동학사상에 관한 발언을 할 때 본인의 처가 그 심층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정신병으로 간주하여 입원시킨바, 본인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할 일이 많은바, 밤잠을 자지 않고 새마을 업무를 기획 추진했던 터라 하루 한시라도 빨리 퇴원하여 일을 해야 하며, 직원들이 공무와 사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여 본인의 처에게 속히 면회 와 달라는 전화조차도 안 해주어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또 본인의 정신병이란 얼토당토 않는바, 즉시 특별면회 주선하여 주시어 함께 대담으로서 진단 판결하여 퇴원조처 바랍니다. 끝

부록 - 의사 소견서 등 메모

심리검사 소견서

연월일 : 1984.1.16.

이름 : 김영철

성별 : 남

생년월일 ;

검사자 : 임00

검사일자 : 1984.1.16.

장소 : 심리검사실

검사명 : BGT, DAP

결과 해석 :

이 환자는 주의가 산만하고 말이 많아서 주의 집중을 요하는 MMPI는 실시하지 못하고 나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BGT나 DAP 자료에서도 산만하고 지리멸렬한 사고 내용이 군데군데 표현되어 기록되고 있었다.

특히 BGT에서는 대인관계의 문제에 관련된 공포나 정서적인 문제점이 시사되었고 기질적인 장애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었다.

DAP 자료에서는 paranoid tendency와 성적인 부적감, 그리고 철회적이며 보상적인 환상에 의존하는 경향 등이 시사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진단적 범주를 관련시키기에는 불충분하나 과도한 관념 작용과 정서적인 장애를 보이는 psychotic한 인물로 사려 되며 기질적인 장애의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검사자 : 임00

국립나주 정신병원

의사 소견서

1. 병동 명 : 2A

2. 성명 : 김영철

3. 성별 : 남

4. 소견 제목 : 입원 기간 연장

5. 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입원 당시 정신운동성 공분, 간질 대발작, 충동 조절 및 억제 장애, 피해망상, 과대망상, 사고 연상 장애 등 뇌증후군 증상과 아울러 심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던 자로 현재 호전 중에 있으나 아직도 수면장애, 정서장애, 사고장애 등이 아직도 현저히 남아있어 사회적응이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어 향후 약 2~3개월 가량 입원치료가 더 요구된 것으로 사료됨.

1984. 7. 13.

담당의사 : 박00

태극단(太極團) 비영리 재단법인

1. 우리는 태초부터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 몸으로 생로병사를 감사하여 영원히 사는 태극인간임을 믿는다.
2. 태극 하나님의 몸은 무한하므로 얼마든지 많은 인간이 행복 풍족하게 살 수 있음을 믿는다.
3. 우리 태극인간은 하나님(태극 여호와 대우주)의 형상(소우주=태극인간)으로서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인격체임을 믿는다.
4. 우리 태극인간은 하나님과 모든 인종에 대한 종교,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 경애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계국가를 이루어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성태극낙원회칙 (聖太極樂園會則)

(Holy C.U.A. Rule - Holy Comos Utopia Association Rule)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태극낙원회(이하 “본회”) – Holy C.U.A.라 칭한다.

제2조) (會宗旨) 본회는 면전(眼前)에 전개되는 유일신 천지신명, 대우주 대자연 신이신 성태극부모신 창조구세주 하나님을 회(會), 종지(宗旨)로 한다.

제3조) (會訓) 본회의 회훈은 ‘경성(敬聖)태극부모신 애인 타피조물 성 실천애 정심 사고 언행 정의 중용 생활’로 한다.

제4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태초부터 영원무궁토록 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자녀인 모든 성태극 인간이 주 하나님께서 주신 본영혼(本靈魂)육신으로서의 영생복락생활을 누리면서 비영리재단법인 영원 무궁 사랑의 공동체 협동촌 성태극낙원 건설원과 협동하여 온 누리 방방곡곡에 협동 생활하는 본영혼 투신으로 영생복락생활을 누리면서 성태극낙원회관과 협동농목어장(農牧漁場)을 조성하여 영광과 존귀함과 찬양을 끊임없이 드려 주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

제5조) (사무실) 본회의 중앙회관은 성태극지구촌 아시아주 대한민국 광주직할시에 두고 온누리 방방곡곡에 지회관을 둔다.

제6조) (운영) 본회관과 이에 부속된 협동촌 회관과 농. 목장, 어장 등의 운영은 성태극낙원건설원의 정관에 의거한다.

제 2장 기관

제7조) (회원) 태초부터 영원무궁토록 온 누리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본회원 명부에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이

사 8명, 감사 3명과 이사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며 이사회와 감사회를 합하여 임원회를 갖는다.

지회장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원) 본회의 직원은 총무, 기획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섭외부장, 비영리 사업부장, 회계부장, 회계원으로 구성한다.

제 3장 회의

제10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예배회: 매 일요일 오후 2시에 정례 예배, 모든 회의 개최 전에 예배회를 갖는다.

2.정기총회: 매년 1월 1일에 갖는다.

3.임시총회: 필요시 임원회의 발의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4.총회의 의결사항 등

1)회칙 변경

2)임원 선출

제1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영생회비 일십만 원, 월 회비 2,000원과 현금, 현물, 십일조, 각기부금, 찬조금, 비영리사업을 통한 제반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부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일반관례에 준하며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공포일 4320(1987)년 8월 15일

회장 김영철

사회복지법인 성태극낙원건설원

영원무궁 사랑의 공동체 협동촌

Holy Comos Utopia Construction Institute Articles

정관

제1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성태극낙원건설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원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누리에 영원무궁한 공동협동생활을 할 수 있는 협동촌을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장기 저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협동촌 아파트를 분양하여 대여함으로서 영원무궁토록 모든 사람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협동생활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본원의 사무소는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에 둔다.

찬양가 - 성태극낙원회가

작사 : 김영철 / 작곡 : 김종철 / 감수 : 원진희

아름다운 태극낙원에 주 하나님 자녀 함께 모여
영생복락 누리면서 주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세
주 하나님과 함께 실천적 생활하며 이루세 온 누리
낙원 영원무궁 성태극낙원회

- 분단 3개국 대한민국, 중화민국, 독일 평화통일과 세계 안전평화 성취를 이념(이데올로기)을 동원하여 88올림픽 이전에 분단 3개국 양 국가가 영세중립국을 선포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고 제3세계 국가, 개발도상 국가도 영세중립국을 선포하여 미, 소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미소중일 등 초강대국도 영세중립국의 입장을 취하여 핵폭탄 등 무기를 영원한 인류평화에 사용하고, 종교 민족 국가 지방색 사상이념 문화를 초월하여 주 하나님과 한 영혼 육신이 되면 분단 3개국이 평화통일 되고 세계 완전평화가 이루어진다.

본인 김영철 신조(信條)

인 인 의례 지덕노체 진선미 신망애
 忍 仁 義禮 知德勞體 眞善美 信望愛
 엄랑필근 엄랑필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嚴郎必勤 勤郎必成 精神一到 何事不成
 시종일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始終一貫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태평천국 성태극낙원 조성
 太平天國 聖太極樂園 造成
 시 태초 종 영원무궁 성태극인간
 始 太初 終 永遠無窮 聖太極人間
 본영혼육신 영생 성태극낙원생활
 本靈魂肉身 永生 聖太極樂園生活
 형유성취
 亨有成就
 요 경성태극 부모신 애인 타피조물
 要 敬聖太極 父母神 愛人 他被造物

성실천애 정심 사고 언행 정의 중용생활
聖實踐愛 正心 思考 言行 正義 中庸生活

본인 소개서

성명 : 김영철

생년월일 : 48.7.14

취미 ; 미술

특기 ; 펜싱

별명 : 아꾸(惡口)

애인이름 : 김순자

혈액형 ; B

학력 : 고졸

1. 왜 입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광주 사태 때 머리를 다쳐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2. 병원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무 때라도 면회가 가능하면 좋겠다.

3. 처음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었는가?

나의 아내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며 온 우주가 내 것인 기분이었다.

4.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여인상을 원하는가?

기결이며 현재의 주체성 있는 여인상이 좋다.

5.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영국의 처칠. 예수(나사렛)

6. 내가 세상에서 저주하고자 하는 인물은?

없다.

7.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의 나 자신

8.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온 우주이다.

9. 내가 의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해 본 적 없다.

10. 돼지고기

11.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조국통일과 세계평화로서 자유 평등 평화이다.

삶의 발자취

- 1948년 음력 7월 14일 전남 순천시 금곡동 76번지에서 아버지 김경묵, 어머니 백은혜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남.
- 1953년, 어머니와 세명의 형제들과 함께 <목포 모자원>으로 옮김.
- 1955년 3월, 목포 중앙초등학교에 입학다.
- 1955년 6월, 가족 모두 광주의 <인성모자원>으로 옮기고 열사는 서석초등학교로 전학.
- 1956년 10월 3일 <인성모자원>이 학동 591번지로 이사하면서 <영신영아원>으로 개편.
- 1961년 2월,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서중학교에 입학.
- 1964년 2월,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광주제일고에 입학.
- 1967년 2월, 광주제일고를 졸업하였다.
- 1967년 어머니가 <영신영아원>을 퇴직하고 방림동에 야채가게를 열었으나 생활고에 시달림. 행정직 공무원 시험공부 시작.
- 1968년, 전라남도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
- 1968년 10월, 전남 승주군 별량면 사무소로 출근 시작.
- 1969년 12월 20일, 군대에 입영하기 위해 퇴직.

- 1969년 12월 22일, 광주 31사단 훈련소 입소.
- 1970년 가을, 열사는 첫 휴가를 나와 아내 김순자를 처음 만남.
- 1972년 11월 30일 군대 제대.
- ☞ 1972-1976년, 서울에서 동생 종철이와 함께 신문배달, 과일행상, 포장마차 등 밀바닥 생활 함.
- 1976년 1월 7일- 24일, 51차 신용협동조합지도자 강습회 참여.
- 1976년 2월, 제52차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 참여.
- 1976년 2월 28일, 신용협동조합 지도자 강습회 수료식을 마치고 순천 세광교회에서 결혼.
- 1976년 5월, 마산교회 청년회장이 되어 별량면 전체 교회 청년연합회 결성.
- 1976년 8월, 아들 동명이 출생.
- 77년 1월, 승주 별량 침산신협 창설 일환으로 순천중앙교회 신협 지도자 교육 유치.
- 1977년 3월, 순천 신협지도자 강습회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을 받아 <전남협동개발단> 간사로 임명.
- 1977년 3월, <전남협동개발단> 활동을 하기 위해 광주 학동 <영신영아원>으로 이사.
- 1977년 10월, 주민들과 직접 생활하기 위해 학동의 <영신영아원>에서 시민 아파트 A동 216호로 이사. 서경자 원장(전남협동개발단 부단장)께서 전세금 10만원 줌.
- 1977년 겨울, 기존의 광천삼화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여 집에서 업무 시작하였다가 아파트 앞 가게로 사무실을 옮김.
- 1978년, 2층인 216호의 집에서 주민 회의 등 사람들 출입이 편리하도록 A동 114호실로 옮김.
- 1978년, 광천동 11통 주민 총회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되어 아파트 제값 받기 운동 시작.
- 1978년 5월 둘째인 딸 선형이 출생.

- 1978년 7월, <전남협동개발단>이 해체되고 YWCA신용협동조합 참사로 근무 시작.
- 1978년 7월, 시민아파트 옆 광천동 천주교 교리실에 들불야학 입학식에 주민대표로 축사 하고 특별강학으로 참여.
- 1978년 8월, 박용준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록.
- 1978년 11월, 윤상원이 들불야학 강학이 되어 시민아파트에 사글세로 입주.
- 1979년 1월 23일, 40여명의 신입생과 15명의 강학,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들불야학 2기 입학식 열림.
- 1979년 3월, 광천동 시민아파트 주민잔치 열림.
- 1979년 겨울, 시민아파트 앞 상가에 김순자 여사가 여성신발가게 개업함.
- 1980년 2월, 광천신용협동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
- 1980. 3월. 광천삼화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이 불어나자 500만원 전세로 광천동 천주교 입구 별도의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이전.
- 5월 18일, 교회 예배를 마치고 시내로 나가 태평극장 앞 시위대에 합류하여 법원과 농장다리까지 진출.
- 5월 19일 월요일, 광주YWCA 신협에 공수대원들이 들어와 2층 양서조합 직원 황일봉을 구타하자 옆 건물의 무등고시학원 학원생들이 큰 소리로 제지. 공수대원들이 학원생들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쓰러진 학원생들을 트럭에 싣고 감.
- 5월 20일, 시내에서 시위에 참여하다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왼쪽 어깨를 맞음. 그날 밤 시위대원들과 함께 방림동 독서실에서 날을 셈.
- 5월 21일, 오후 1시에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하고 시민들이 무장을 하여 대항하자 오후 6시 경에 계엄군이 도청에서 철수하여 광주시내는 해방구가 됨.
- 5월 22일, YWCA 간사 정유화, 안희옥, 이행자와 대인시장에서 검정 천을 사서 녹두서점에서 검은 리본 3~4천여 매를 만들어 시민들 가슴에 달아줌.
- 5월 23일, 쫓겨대회에서 분수대 연단에 올라가 근로자 대표로 등단,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말미에 “군사정권 타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삶을 위해 총궐기합시다.”라고 외침.

- 5월 24일, 정상용, 윤상원, 이양현, 정해직, 윤기현, 김상집, 안길정, 김태종 등과 보성기업에서 날을 새우며 대책을 논의

- 5월 25일, 도청의 시민학생수습위원회가 시민학생투쟁위원회로 조직이 재편되어 기획실장을 맡음.

- 5월 26일, 항쟁 동안 몇 번이나 귀가해 버릴까 생각을 했지만 도청 2층에서 YWCA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 홍남순, 이기홍 변호사, 김성용 신부, 조비오 신부 등 여러분들이 사태수습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도청에 남아있기로 결심.

- 27일, 투쟁위원회 대변인 윤상원과 기획위원 이양현과 함께 도청 2층 회의실에서 경계를 섰다가 윤상원은 총에 맞아 죽고 열사와 이양현은 체포되어 상무대로 끌려감.

- 5월 28일 새벽 4시, 윤상원과 박용준의 죽음과 수사당국의 고문을 생각하여 화장실 벽에 이마를 부딪쳐서 자살을 기도. 헌병들에게 끌려서 통합병원에 입원했으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등 형식적인 치료만 받음.

- 1980년 7월 3일, 막내인 딸 은형이 태어남.

- 1980년 8월경부터 김영철의 말투나 행동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함. 동료들은 정신과의 정밀진단을 요구하였지만 계엄당국은 들어주지 않음.

- 1980년 10월 25일, 1심 군사재판에서 10년 선고 받음.

- 1980년 12월 28일, 2심 군사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 받고 최후진술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시민, 광주시민 만세!” 하고 큰 소리로 외침.

- 1981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기각.

- 1981년 4월 3일, 징역 3년으로 특별 감형.

- 1981년 12월 25일 새벽, 성탄절 특사로 형 집행 정지로 석방.

- 1984년, 정신이상 증세를 백방으로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 이후 처음에는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하기도 했으나 결국 국립나

주정신병원에 입원 함.

- 1998년 1월, 나주병원에서 열사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전갈이 옴. 16여년 치료 도중 생긴 합병증과 왼쪽 신체마비 현상으로 제대로 걸음을 걸지 못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생긴 신체외상 등으로 쇠약해졌다는 진단 받음.

- 1998년 7월 21일, 간병을 잘 한다는 영광의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4개월, 간식을 먹던 도중 호흡이 멈춘 사고가 발생하여 조선대 병원으로 옮김.

- 1998년 8월 16일 오후 3시 45분, 열사의 영혼은 고단한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